

PRSRT STD  
U.S. Postage  
PAID  
Elk Grove VLG. IL  
Permit #1320



# 美 世 爾 大 同 窓 會 報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런 동문들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무국 및 편집국  
790 Busse R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snuaausa@snuaa.org  
website: http://www.snuaa.org

발행인 : 李龍洛  
편집위원회총무: 具璟會  
편집인 : 金正守

월간 99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 A.

2002년 5월 28일

## 母校 音大 연주단 미주 순방

###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8개 지역 공연

지난해부터 계획되어 온 모교 음악대학의 "서울음대연주단"이 드디어 8월15일부터 31일까지 재미동창회가 있는 미주의 8개지역을 순회공연하게 되었다.

이 연주단은 음대 학부, 대학원생 중에서 선발된 우수한 성악 및 연주자 10인으로 구성되어 한국고전음악 및 서양 명곡을 공연할 계획이다. 연주악기는 Tenor(1), Soprano(1), Violin(1), Cello(1), Oboe(1), Piano(2), 관소리(1), 거문고(1), 대금(1)으로 구성된다.

재미 총동창회는 지난 5월 10일자로 이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자세한 공연지역과 일정은 현재 각 지역동창회로부터 신청이 5월 30일까지 접수되는 대로 모교 음대측과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미네소타, 하트랜드, 조지아, 시카고, 뉴욕, LA, 워싱턴DC, 뉴잉글랜드 지역동창회에서 이 순방단의 지역공연 주최의사를 표명하였다.

이 순회 연주회는,母校에 재학중인 음악도들과 재미 동문 및 교포들과의 교류의 기회가 되어, 후배 음악도들이 평소 연마한 기량으로 다채롭고 훌륭한 한국의 고전음악과 서양의 명곡을 선보이게 되며, 우리 재미 동문들은 젊은 후배들에게 미국 내의 연주 무대에서 음악도로서의 기량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여母校의 음악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악회 개최에는 공연장과 필요 자원 등의 확보 문제가 따르므로 많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요망된다.

모교 대학본부에서는 이 연주

회를 위하여 연주자 10명과 동반자 2명(지도교수 및 행정직원 1명)에 대한 항공료를 전액 부담하여, 주최지역 동창회에서 숙박을 부담하게 되는데 선후배 동창들 간의 유대와 친목을 위하여 동문들의 가정에서 민박도 계획하고 있다.

재미 총동창회는 모교와 순회 지역 동창회를 연결하는 Coordinator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고전음악에 조예가 깊고 많은 음악회를 주관 경험이 있는 정호 동문(공대 66년 졸, Ph.D.)이 선임되었다. 재미 동창회는 이번 음악회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앞으로 연례행사로 계속 할 예정이다.

(정호동문 연락처 630)961-1321, 630)886-6033, e-mail: hchung@anl.gov.)

## 재미총동창회 제11차 평의원회

### 母校를 세계 先進高等教育 기관으로

한국의 "최고대학 세계적 고등교육 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母校를 고양하는 牽引車로서 역할을 내실화 하고, 재미 동창회의 새로운 자체 발전사업을 모색하기 위한 재미 총동창회 제 11차 평의원회(시카고 근교 Oak Brook Hills Resort Hotel, 6월 14일에서 16일까지)가 2주일 뒤로 다가왔다.

이번 평의원에는 66명의 평의원중 당연직인 한창섭(뉴욕), 진금섭(워싱턴 DC), 한재은(시카고), 임낙균(남가주), 정조웅(샌프란시스코), 허윤행(북가주), 김재철(조지아), 이상문(하트랜드) 회장과 총동창 본부의 이용락 회장, 오홍조 수석부회장, 관악 후원회 부회장 송순영, 사무총장 구경희, 오인석 명예회장 외에 각 지역 선출직 평의원 중에서는 남가주의 곽철, 이창광, 서영석, 방석훈(4명), 시카고의 장기남, 소진문, 최일주, 송재현 (4명), 워싱턴 DC의 방은호, 뉴잉글랜드의 강경식 및 박경민, 필

라델피아의 김용식, 하트랜드의 김호원 및 정동학 (2명), 뉴욕의 윤정옥 평의원등이 참석을 통지해 왔다. 참석하지 못하는 대의원들은 평의원회의 의결권 행사자를 지명하는 위임장을 기재하여 6월12일까지 총동창회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있다.

이번 평의원회에는 그 30년만에 처음으로 지금까지 재미 총동창회 초창기에 뜻있는 독지가들의 헌신적으로 先導하는 조직에서, 각 지역 동창회는 다른 존재목표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동창회와의 협조체제를 재정비하는 데에 심포지움 발제자들의 총동창회와 지역 동창회를 이끈 경험들을 토대로 토론하며, 15일의 평의원회에서는 재미 총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한 목표 사업계획 설정등이 토론 결정될 것이다. 평의원회의 후의 만찬에서는 이번 기회에 특별 강연의 연사로 UIC 고병철 교수(법대 59졸)가 초빙되어 南北韓 관계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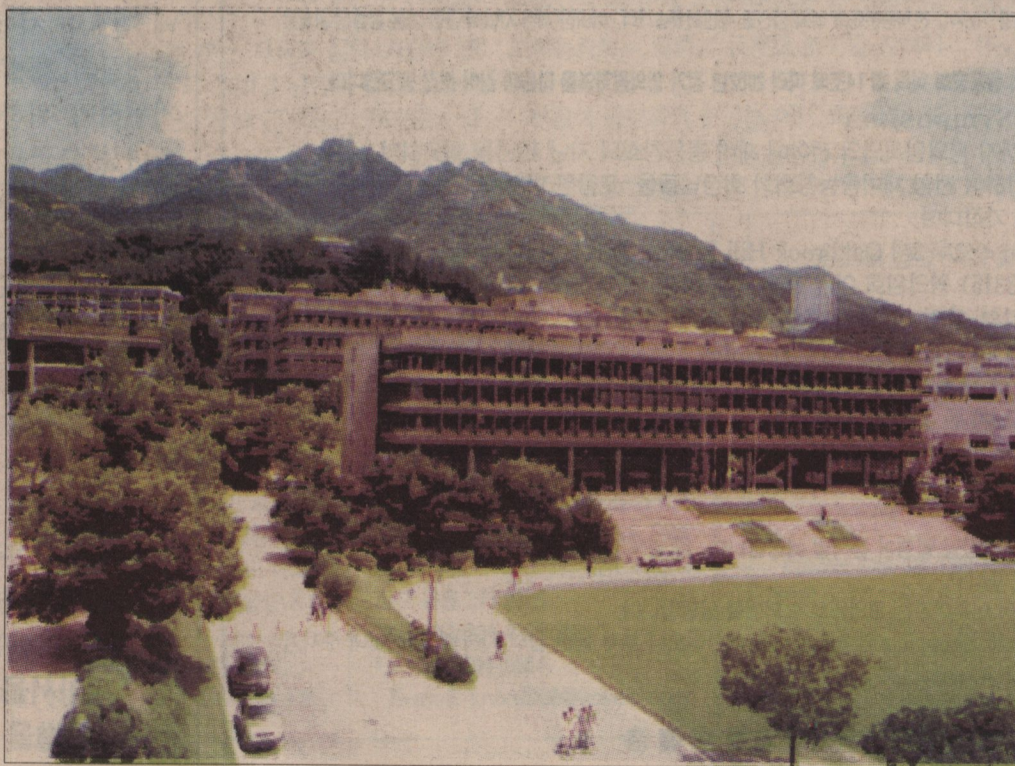
### 음악회 특별 후원금 회사 김향자 동문

샌디에고 지역에 거주하는 김향자 동문(약대 65년 졸)은母校 음대 연주단 미주 공연 소식을 듣고 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특별 기여금(\$220)을 보내왔다.

재미 총동창회는 이에 감사드립니다.

### 목차

- 제 1부 : 총동창회 소식
- 제 2부 : 문필과 논고 - 4면
- 제 3부 : 동문 및 지역동창회 소식 - 16면



### 5월은 스승의 달

母校에서 학문연구와 師道에 평생을 정진하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趙時豪 동문 관악후원회 종신이사회로 참여

(문리대 63년 졸, Charles Cho)

재미 총동창회는 우리 동문들의 萬人 燃燈의 誠心으로 재미 동창회보를 발간하여 友情의 架橋를 건설하며 재미 동문들의 자체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악후원회를 조직하여 그 필요 기금을 동문들의 성심 어린 出捐으로 모으고 있다.

이에 호응하여 텍사스 Sugar Land에 거주하는 趙時豪 동문이 관악후원회의 長期 積立 基金 확보를 위한 종신 이사회 참여를 위하여 회비 \$3,000을 보내왔다. 趙동문은 文理大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재학 중 맞이한 4.19 의거에 결연히 참여하였으며, St. Clayton University에서 사회학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Sugar Land에서 부인과 3자매의 家長으로서 부동산과 장의례 사업체인 Charles S. Cho Co., Inc.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조동문은 1990년도에 텍사스 지역동창회장을 역임하였고, 그 외 미 주류사회 및 한인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다. 재미 총동창회는 趙동문의 誠心 어린 出捐에 감사드립니다. <조시호 동문 연락처 : 281-491-6647 ; e-mail : gofh13430@aol.com >



### 6차 임원회 평의원회 준비점검

재미총동창회 집행부 제6차 임원회의가 임원들의 개인 일정과 중복되어, 동시모임이 어려웠음을 감안하여 5월14일과 5월 28일 화요일 두번에 걸쳐 오후6시부터 3시간 동안 동창회사무실에서 열려 다가오는 평의원회 준비사항을 점검하였다.

5월 14일 회의(이용락회장, 구경회사무총장, 송순영관악후원회 부회장, 장기남 섭의국장)이 참석하고 김정수 편집인 배석 전현일 재무국장, 정호 출판국장 불참)에서는 평의원회의, 관악후원회 및 본국순방단 초청, 만찬,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의 준비사항을 具사무총장의 주재하에 점검하였다. 이용락회장은 멀리서 오는 모국의 총동창회 순방단과 타주의 평의원들을 위하여, 시카고지역 동창회(회장 한재은)임원회의(9.20면 시카고 지역란 참조)에서 참석자 안내 및 골프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크고 작은 준비를 하여 총동창회본부를 지원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具사무총장은 아직도 전년도 평의원 회의 의사록이 뉴욕으로부터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원회의는 김용화 전임 사무총장에게 5월 31일까지 이를 보내주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하였다.

하였다. 모국순방단의 공항 출영 및 조찬·만찬준비상황은張섭의국장과 손재무국장 주관하에 준비를 진행하고 평의원회의장과 속소는 具총장이 점검하기로 하고 李會長은 10주년 기념 심포지움과 포상자 문제를 총동창회와 연락하여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회장은 이번에 기획된 평의원 관악후원회주관 만찬 중에 있는 특강의 연사로 UIC의 고병철교수가 초빙되었음을 보고하였다.

5월 24일 회의(李會長, 具사무총장, 손재무국장이 참석하고 한재은 시카고 지역동창회장이 참석자로 초청되고 편집인 배석)에서는 총동창회의 금년도 재정 현황을 점검하여 결산 보고서와 새해 예산서를 초안하였다.

또한 손재무국장은 同門들의 참여도의 척도가 되는 회원 구독료 납부 숫자(5월 24일까지 1,214명 납부)가 전년도의 수준을 달성하였음을 보고하였다. 具사무총장의 지금까지의 모교 측의 순방단원은 “학내사태”(서울동창회보 제 290호 23면, 2002. 5.15자 보도, www.snua.or.kr ; weekly.snu.ac.kr 참조)로 인하여 참석 연락이 아직까지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또 평의원 본 회의와 관련된 전체행사 일정을 확정하여 전체 평의원들에게 개별 통지하기로 하였다.

### 재미 서울大學校 총동창회 창설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공고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지난 10년간의 본 동창회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창립 10주년 기념 Symposium에 역대회장님들과 재미 총동창회의 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진 동문들을 페넬리스트로 모시고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이 심포지움에 주제 발표자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동문들은 재미 총동창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02년 6월 14일 (금요일) 오후 7:00 - 9:00
- 장소 : 평의원회의장 (Room number는 추후 발표)
- 주제 :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제언**
- 발표주제
  1. SNUAA-USA의 창립의 경과와 提言……초대 朴允洙 회장 [10분]
  2. 제 1차 정관 개정의 의의와 提言……제 2대 姜洙祥 회장 [10분]
  3. 동창회보의 귀속과 同門總攬 발간과 提言……제 3대 李丙俊 회장 [10분]
  4. 제 2차 정관개정과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관리위원회 독립과 미래의 提言……제 4, 5대 吳仁錫 회장 [10분]
  5. 활성화된 지역동창회와 재미총동창회 金好元(평의원)/ 추후 주제발표자 및 주제 추가 선정
- ◆의장 : 제 6대 회장
- ◆주제발표 후 참석자 전원이 참가하는 공개토론…… [40분]
- \*주제발표 원고를 6월 10일전까지 보내주시면 당일 배포 인쇄본을 준비하겠습니다.

**“일백만 달러 기금 운동에 대하여 어떤 것인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어떻게 발족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실어주시시오.”**

(고애자 동문의 설문서 집의사항)

<회답>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은 재미총동창회의 특별사업으로 모교를 世界的인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업과 우수한 후배학자, 재학생들의 특별연구교환사업 등을 특별 지원하기 위하여 재미총동창회는 우선 백만불 모금을 목표로 동문들의 성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모금과 관리를 위하여 2001년 6월에 열린 제10차 평의원회는 7인의 기금관리위원(위원장 吳仁錫, 위원 方恩鎬, 尹炔玉, 李丙俊, 金秉洙, 任洛均, 李龍洛)을 선정하여 동문들의 정성어린 出捐金을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적립이 확대되는대로 전미주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母校와 後進을 지원하는 뜻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재미서울대총동창회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委員會**

## 재미 총동창회 2002년 정기 평의원회(平議員會) 개최 공고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7,000여 동문회원들이 母校를 高揚하고 동문들의 상호발전을 위한 견인차가 되고자 하는 조직입니다. 우리 재미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제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오신 동문들과 이를 대표하는 전미주 19개 지역동창회의 평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미 총동창회 집행부는 재미 총동창회의 자체발전을 위한 관악후원회의 사업, 母校의 後進을 위한 基金 모금과 관리, 동문들간의 友情을 交流하는 場인 재미 동창회보의 질적 수준 향상, 새로운 동문들의 발굴과 각 지역 동창회간의 협력의 활성화를 기하여, 전체동문들의 복지 증진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업에 관한 기본 방침은 평의원회의 토론과 결의에 따라 수립됩니다.

2001년 평의원회의 결의와 서면 투표결과에 의거 재미 총동창회 회칙 제 14조에 따라 2002년 정기 평의원회의를 다음과 같이 소집 공고합니다.

#### 가. 재미 총동창회 창설 10주년 기념 Symposium

6월14일(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평의원회의의 전야에 재미 총동창회의 지난 10년을 회고하며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임 재미총동창회의 회장님들을 포함한 발제자와 전체 평의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가집니다.

#### 나. 평의원 회의 : 6월 15일(토) 아침 9시 - 오후 3시 Oakbrook Hill Resort Hotel, Oakbrook, Illinois

(전화번호: 800-445-3315) 평의원회 안건 추후 통보 예정

#### 다. 평의원, 본국 순방단, 제 시카고 지역 임원 및 관악 후원이사 초청 만찬

6월 15일(토) 오후 6시 - 오후 10시 Oakbrook Hill Resort Hotel  
고병철 교수(UIC 정치학과)의 南北韓 관계의 現황과 전망에 관한 특별강연 : 7시-8시

#### 라. 평의원 및 본국 순방단 초청 시카고 지부 동창회 골프대회 및 만찬

6월 16일(일) 오전 10시 - 오후 9시 Willow Crest Golf Course, Oakbrook Hill Resort Hotel

◇평의원회 정기총회는 이러한 재미 총동창회의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재미 총동창회의 제반 사업의 평가와 신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이번 평의원회에는 신임 임광수 본국 총동창회 회장님 일행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가하여 재미 동문들을 위하여 일부러 멀리서 오시는 본국 순방단을 환영하여 주시고

모교 및 동창회 발전을 위한 격의 없는 토론이 이루어지는 평의원회가 되기를 양망합니다.

◇평의원님 가족들을 위한 Chicago 시내 관광 및 Shopping 안내를 준비할 예정이오니 부부 동반 참석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평의원 회의 일정 및 안내는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재미 서울大學校 총동창회 會長 李龍洛**

# 김재순 총동창회 명예회장 연설문집 간행

서울대학  
총동창회는  
지난 8년간  
15, 16, 17,  
18대 회장을  
역임한 金在  
淳(상대  
'51년 졸)의



연설문집을 발간하였다. 이 연설문집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임광수, 공대 '52년 졸)가 지난 8년동안에 金 동문의 재임기간 중 50여개의 해외 동창회와 29개의 국내 지부를 강화하여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진력해온 김재순 동문을, 지난 3월 15일 제 34회 정기 총동창회 총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이어 그동안의 업적을 致賀하고 勞苦에 감사하기 위하여 그간 행한 각종 축사, 기념사, 대회사들을 담아 477면의 연설문집을 지난 4월 22일자로, 간행하였다.

이 연설문집의 발간사에서 임광수 총동창회장은 金동문의 "母校 사랑과 나라 사랑을 읽으며 서울대 총동창회의 역사를 되돌아 보는 史料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중에 金명예회장은 1994년 10월 23일에 있었던 관악산 등반 대회사에서 관악산 아래 자리잡은 母校가 앞으로 한국민족의 발전에 기여할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동문들과 母校의 긍지를 고취하였다. 그 구절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누가 祖國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 冠岳을 보게 하라"**

누가 祖國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 冠岳을 보게 하시다  
民族의 偉大한 相續者  
아, 길이 빛날 서울大學校  
타오르는 빛의 聖殿 에 있으니  
누가 길을 묻거든  
눈 들어 冠岳을 보게 하시다.

그런데 김재순 명예회장은 최근  
위중한 수술을 받고 치료중이다.  
재미 총동창회는 金동문의 靑유를  
기원합니다.

<김재순 명예회장 연락처> 샘터  
발행인,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  
의 115번지, 우편번호 110-809,  
<E-Mail> www.isamtoh.com

## 社 說

# 재미 총동창회 11주년과 회원들의 참여

서울대학교 재미 총동창회가 이번 6월로 11주년을 맞는다. 그간 총동창회의 사업의 근간인 이 회보도 年輪을 같이 하며 성장했다. 사람 나이 열 살이면 초급학생이지만 간행물의 연륜이 10년이면 내용으로나 발간자 원 면에서 자립할 연륜이다.

상업성 간행물의 경우 이토록 자금을 자급 자족하지 못한다면 적자 발행을 중단하고 폐간했을 10년이다. 그러나 동창회 간행물은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런 동문들"의 소식을 교환하여 유대를 다지고 동문 개인들의 발전을 통해 모국과 모교에 직접-간접으로 기여하는 매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립 초기부터 그간 조직을 이끌어 동창회보의 명맥을 이어온 것은 역대 임원단의 숨은 노고와 있었으므로 가능했다.

그러나 동창회보가 독지가들의 회사에 의존해서 유지되어야만 한다면 재력을 가진 동문들만이 총동창회장단을 맡을 수 있다는 현실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재미총동창회 지도부가 지도력이 있는 많은 동문들에게 재정부담 능력과는 관계없이 총동창회의 목표구현에 헌신할 기회를 개방하는 단체가 되려면, 총동창회장단의 주요 사업으로 재정 부담을 요하는 회보 발행이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기틀이 세워져야 한다. 이런 연유로 현재 동창회보 발행을 책임진 우리는 이미 많은 회사를 한 동문들에게 치하를 보내면서 동창회보 운영의 자급자족을 추구하려 한다.

사람의 삶에서 4년간의 대학생활은 비교적 짧은 것이다. 그 짧은 대학생활 중에서도 피차 이름과 얼굴을 알고 지냈고 수십년후 기억되는 동문은 수십명의 소속학과 동기동창들의 범위를 별로 넓지 못한다. 대학 동문의 유대는 4년간의 학창생활에서 씨앗이 심어질 뿐이며 그 유대의 성숙은 졸업 후에 새로 이루어지며 평생 동안 이어 간다.

중고등 학교 이전 동문의 유대나 동향인의 유대도 평생가지만 거기에는 친분과 정서적 유대 이상의 기능적 요소가 별로 없다. 대학 생활은 진리를 찾는 사색과 삶의 기술에 관한 학문적 추구, 그리고 낭만이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밀도 짙게 전개되고 기억되는 시

기이다.

대학 이후 사회진출로부터 우리의 삶은 짙은 수준으로 도약하며 대학 동문들의 유대가 그 채널이 될 수 있다. 그 채널은 동기동창을 넘어 전체 동문의 큰 유대 속에서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짙은 삶의 연속을 이 미주 땅에서도 가능케 하는 것이 지역 동창회들이며 그 단위들을 하나로 잇는 것이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이다.

동창회보의 기능을 이렇게 이상적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에 따르지 못한다.

그 첫째 이유는 많은 동문들이 동창회보도 무료로 배포되는 허다한 발간물의 하나로 치며 이 매체의 잠재적 기능을 충분히 탐색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동창회보를 자세히 보면 오래 전에 상아탑 아래에서 추구하던 것들이 현실 속에서 전개되는 것을 다른 차원에서 관측하고 감상할 수 있다. 모교의 소식과 국내외 여러 동문들의 근황, 그리고 동문들이 각 분야에서 성취한 빛나는 업적들은 우리들이 대학에서 추구하던 것의 연장선에 있음을 인지하게 한다.

물론 되돌릴 수 없이 많은 세월이 경과했으므로 서울대학 인연은 의미가 쇠진됐고 현실 삶의 요건들을 충족시키기에 분망하여 동문회나 회보에 신경을 배려할 여유가 없다고 실토할 동문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 동문들의 경우는 삶의 기회들 중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상실' 하지만 그 '결핍'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다. 직장의 유대, 신앙인들의 유대와 별개의 궤도에서 동문의 유대는 무렵까지 따라가는 서로 돕고 사랑하며 자랑하는 유대이다.

최근에 취창업으로 64세에 별세한 어느 동문은 25년간 시카고에 살면서 단 한번도 동문회에 참여한 일이 없었고 출신단과대학이나 지역 총동창회의 명단에 기재되지도 않았었다. 그는 생업과 종교적 목표 두 축을 맴돌다가 삶을 끝냈지만 그 유족은 장례식에 서울대학교 조기를 세우 줄 것을 청원했다. 동창회에 전혀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지역동창회는 화환과 동문회 조기를 장례식장에 보냈다.

서울대 동문회의 조기는 어느 화환들을 합

친 것보다 우뚝 서서 "이 사람은 우리 서울대인의 자랑스런 한 사람이었다"고 조문객들에게 無言의 응변을 하는 듯 하였다.

서울대 동창회보가 그 이상적인 기능을 다 구현하지 못하는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는 자금의 부족이다.

그간 동창회보를 창간하고 계속 발간하여 동문들에게 배포해온 일은 역대 회장단들과 실무자들 즉 소수 동문들의 응징된 노고와 재원 회사에 크게 의존해 왔다. 그간 회보의 내용 면에서는 희망했던 방향으로 꾸준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발간 재원은 계속 부족한 상태이다. 한때 7천부까지 인쇄했던 동창회보의 구독료 납부회원은 현재 1천 150명이다. 구독료 납부회원이 최소한 현재의 두 배로 늘어나야 동창회보는 재원의 압박 없이 발간을 지속하며 내용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그간 소수 독지가들의 회사와 임원들의 헌신에 크게 의존했던 부담의 구조가 바뀌어야 동창회보는 더 성장할 수 있다. 연간 구독료 50달러는 일반 월간 간행물에 비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케이블 TV 시청료 2개월 치에 불과하고 친지들과 한 차례 저녁 식사를 식당에서 즐기는데 비하면 동창회보 연간 구독료는 우리 동문 각자의 능력에 비추어 볼 때 큰 무리는 아니다.

사람이 자부심의 상징을 갖는데는 초급학교 반장을 하든, 동리 통반장을 하든 책무감도 따른다. 아무리 세계 유수 선진 대학의 서열에서 많이 뒤진다고 하는 모교이지만, 우리 동문 모두는 그 서울대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갖고 살며 무렵까지 그 긍지를 갖고 가려 한다.

그 어느 누구도 서울대 졸업장을 반납하겠다는 동문들은 없을 것이다. 재미 총동창회라는 우리 전 미주 동문들을 연결하는 큰 모임이 11주년을 맞는다는 이 사실은 미주에 있는 동문들은 그 자녀들의 생일이나 특별기념일에 못지 않게 한번 생각해 볼만한 일이 아닐까? 동창회 신문을 매달 발행하느라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동문들이 있는데 "나는 회보를 받으면서 내 뉘를 하는가"라고 우리는 한번쯤 自問해 보지 않을까?

### 공과대학 동문 주소록 재수집

工科大學 총동창회(회장 임광수)는 별도 주소록을 발간하기 위하여 개별 동문들의 자료를 모으고 있으니 자료를 아래 투고처로 보내주세요.

<자료투고처 주소 : 우편번호 120-70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동문주소록 발간실, 서울시 서대문구 미군동 267번지 임광빌딩내 임광토건 주식회사.  
FAX: 011-82-2-360-5099  
전화 : 011-82-2-360-5001 ~ 3

### "서울대 人名錄"

#### 발간자료를

#### 서울로 보내주시시오

<회원 인적사항 통보 및 문의처>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2002년 인명록 편집실 주소 : 100-273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8-5  
TEL: 02)704-8301(直)  
FAX: 02)704-8564,  
E-mail: snua2002@korea.com

### 吳仁錫 동문 대수술후 회복중

재미 총동창회 4.5대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재미 총동창회 명예회장겸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 위원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오인석동문(법대 58년 입)이 지난 4월중 미네소타의 마요 클리닉에서 뇌종양(Benign으로 판정) 수술을 받고 현재 Florida 자택에서 요양중이다. 다행히 수술결과가 좋으나 완전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미총동창회는 吳동문의 조속한 靑유를 기원합니다.

吳동문은 지난 3월 15일 재미 총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의 총동창회가 재정한 제4회 관악대상 참여상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吳동문 연락처 Mr. In-Suk Oh  
2601 Juniper Court, Palm City, FL 34990  
자택전화 561-336-1607

동문여러분,  
주소 변경시 꼭 동창회(주소회보 1면 상단)로 꼭 알려주십시오. 동창회보 배달은 Forwarding이 안됩니다.

이웃에 새로운 동문을 아시면 받지 못하신 동창회보가 있을 경우, 동창회로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 행복과 歡喜



이상봉  
<문리대 69졸,  
Ph.D>

행복(happiness) 환희 황홀감은 단지 부산물일 뿐이다.  
(Trance, happiness and bliss are by-products.)

그렇다! 황홀감 행복감은 직접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 위에 전적으로 몰두하게 될 때에, 부수적으로 얻어지게 되는, 단지 副産物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오직 그 행복 환희 황홀감만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보짓이고 또한 불가능한 일이다! 그대! 그대는 음악을 좋아 하는가?

그대가 제 아무리 음악에 조예가 깊고, 음악을 좋아 한다고 해도 그대가 느끼는 음악에서의 기쁨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 속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을 때에 느껴지게 되는 부산물일 뿐이지 음악에서 환희와 기쁨만을 붙잡으려고, 오직 환희만을 찾으려고 한다면? 환희는 고사하고, 사실상 음악조차도 들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오직 행복과 황홀감만을 찾으려는 그 욕심이 바로 큰 장애가 되어서, 직접 행복과 환희만을 잡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그대는 행복과 환희로 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대! 그대는 놀이(game)을 좋아 하는가?

사실상, 놀이 그 자체는 기쁨도 아니고, 행복도 아닌, 단지 놀이일 뿐이다! 그런데, 그 놀이 속에 그대가 몰두 하다 보면? 그 몰두 속에서 기쁨은 저절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그대가 얼마나 그 놀이 속에 몰두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만큼 그대의 재미와 기쁨은 저절로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대가 오직 결과에만 집착한다면? 기쁨은 결코 그대에게 다가 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다, 冥想을 하면, 황홀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저에게는 황홀감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저도 제법 열심히 명상법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단 한번도 깊은 황홀경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초조합니다. 제 체질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기는 있다. 그러나 그들은 딱 한가지를 잊어 버리고 있는 셈이다.

바로 황홀감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붙잡으려고만 하기에 즉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는 즐거움조차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행복 환희 황홀감 자체는 아예 잊어 버려라.

즉 결과는 잊어 버리고, 전적으로 놀이 경기 명상 등등의 세운 목표를 행하는데만 푹 빠져서 몰두해 보아라!

그러면, 자기 자신이 행하는 바로 그 行함의 몰두 속에서, 자기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바로 그 순간에, 그대는 저절로 황홀감 속으로 녹아들어 가게 되어있다! 오로지 그 무엇인가에 몰두 하는 그 몰두 속에서, 황홀감은 저절로 생기게 되는 단지 부산물일 뿐이다.

“야! 흐드러지게 피었다. 날씨 한번 화사하네. 캘리포니아의 봄날씨는 햇살만으로도 살찐다니까.” 토요일 아침은 포근하다. 한 잔의 차를 들고 현관앞에 앉아 활짝 핀 꽃들을 본다. 햇살이 유난히도 따사롭다. 오월은 싱그럽다. 언젠가 젊은 날처럼 생각나는 대로 읊어본다.

“오월은 어머니 품속, 오월은 사랑하는 그녀의 복숭아 빛 물, 오월은 따사롭고 풍요로운 계절,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이는 청춘...” 특히 캘리포니아의 오월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계절이다.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야생양귀비와 이름 모를 빨강, 파랑, 노랑, 보라 갖가지 색깔의 들꽃들. 올해는 뒤늦게야 비가 내려서 산들바람이 부드럽다. 아침에 포근한 아침잠이 피어오르는 남부주의 대지에 신의 자애로움이 흘러 넘친다. 오월에는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어진다. 한국의 산과 들만에 온갖 꽃들이 화려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으리라. 그림 도구를 챙겨 들고 들녘을 쏘다니다고 싶고, 향기로운 꽃속에 파묻혀 소설을 읽으며.... 사랑하고 싶다.

오월이 되면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서서, 변호사라는 직업에서, 오십대라는 나이에, 아버지라는 역할에서 모든 것을 훌훌 벗어 던지고 청춘의, 아니 소년시절로 되돌아가고 싶다. 그곳에는 꿈 많았던 화가 지망생이 있고, 많은 청중 앞에서 목청껏 노래 불렀던 한 젊은이가 있고, 사랑하는 이와 꽃길을 함께 걷던 내가 있기 때문이다.

아! 오월의 태양은 이렇게 따스한데.... 봄의 생명력은 저렇게 뛰어내네...도시의 아스팔트

# 5월의 햇빛

玉唯鎮

<공대 회공과 64 입, LA 이민법 전문변호사>

가 삭막하다고 하지만 집안 곳곳에 꽃을 가꾸고 나무를 기르며 사는 것도 하나의 재미이다. 봄별이 내리쬐는 마당에 한아름 꽃분홍빛 부끄러움이 부끄러운 촛색의 입술마냥 불그레 넉넉져 피어있고, 여기저기 흰색, 옅은 주황의 주레니움이 싱싱하게 뻗어난다. 그 옆의 카네이션은 한국에서 나의 방문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 같다. 어머니 날이 되어도 카네이션 한 송이 꽃아드리지 못하는 아들이 걱정되어 항상 몸조심하라고, 옷 잘 챙겨 같이 입고 감기들지 말라고 염려하시는 어머니. 하얀 켈달리리는 고귀한 처녀처럼 우아하게 고개를 쳐들고, 그 옆에 이젤리아가 시종처럼 납작하게 엎드려 있다. 새파랗게 쪽쪽 뻗어있는 서양란들의 잎사귀는 행진하는 군대 같다. 그 위에 핀 빨간 장미의 이름이 ‘아메리카 큐리’ 라나? 여인의 새빨간 입술마냥 선정적인, 정말 아름다운 진홍빛 장미꽃... “장미에 가시가 있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꽃이 피는 것을 감사히 여기라.” 던잔 저보그. 정말 그렇다. 사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남들은 불경기가 다 지나갔다 하는데 왜 나 한테만 지지리도 불경기가 계속 남아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짜증나고, “저 사람은 하는일 없이 빈둥빈둥 놀아도 잘만 사는데 난 이렇게 밤낮 뛰어도 왜 못먹고 사나?” 싶으면 화가 나지만, 나보다 더 못

한 사람을 보면 위로가 되는게 사람사는 거다. 세상도 장미마냥 가시속에 꽃이 핀 것을.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루하루 헤쳐나가는 것에 감사하고 희망을 가져야 힘이 솟아난다.

저 쪽에 핀 주레니움은 참으로 신기하다. 줄기를 푹 잘라다 심어 놓았는데 처음엔 비실비실 죽을듯하더니 언제 저렇게 싱싱하게 피어났는지, 꼭 우리 이민자들 같다. 처음 미국에서 말도 안 통하고 생활도 어지럽고, 모든게 어리둥절, 힘들어서 포기하고 돌아갈 것 같던 사람들도 일 년이 채 되지않아 아들 낳고 딸 낳고 아이들 학교에 보내며 잘도 살아간다. 가끔은 여행도 다니고 은근히 이민생활을 즐기며 살아가나... 그동안 삼십여년의 세월이 눈깜짝할 사이에 흘렀다. 나 역시 총각의 몸으로 몇권의 책과 웃가지, 성경을 가지고 올랐다. 학업을 마치고 미국에서 계속 살지, 한국으로 귀국할지 고민했으나 결국 망설임 없이 미국을 선택한 것도 무엇인가 이루어 내리라는 청춘의 포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되돌아보는 지난 세월에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그래도 변호사라도 되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님이 그러시면 우리 같은 사람은 더욱 심란하지요.” 라며 위로하지만, 내 마음속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 잠을 설칠 때가 많다. 화관 가득 물감도 채워 보고, 늦도록 앉아 글도 써본다. 어떠한 것이 진정한 내가 원하던 삶이었을까? 햇살 내리쬐는 정원에서 벌과 나비가 드나드는 꽃밭을 거닐며, 황혼으로 접어드는 인생을 찬란한 꽃빛으로 물들이고, 싱그러운 꽃향기로 베이게 할 길을 찾는다.

## 2부 文筆과 論考 목차

1. 행복과 환희, 이상봉	4
2. 5월의 햇빛, 옥유진	4
3. 제비 이야기, 노재욱	4
4. 바로크 음악, 지명식	5
5. 고국의 산하와 닮은 Sequim, 허유행	6
6. 美人 西施만은 못보고 돌아 왔다네, 김재순	6
7. 서울의 한자 호칭을 한성으로 바꾸는 문제, 노재원	10
8. First Name, 나의 실수有感, 고원석	10
9. 力道山, 日本의 현인신, 김일훈	11
10. 비스마르크가 부시대통령에 주는 교훈, 美國 時論	12
11. 母校 정년 퇴임 교수 프로필 소개, 서울동창회보	13
12. 知性인의 동창회보와 상업광고, 이윤모	14
13. 生命科學과 정보 기술의 만남, 장준근	15

5월 동창회보는 어인 그 99호가 된다. 우리 동창회보는 태평양을 건너 美 洲 대륙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는 재미 동문들의 때론 고국에서의 삶에 대한 回想과 美 洲 대륙의 삶의 경험들을 여러 동문들과 나누는 知性人들의 友誼의 架橋이다. 스승의 말을 맞아하여 재미 동문들은 교편을 지키며 學問과 스승의 道를 지켜오다 이제 정년 퇴직하신 母校의 교수님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또한 한국정치가 5.16 군사정권으로부터 文民 정부로 이행하는 정치시회의 격변기에 8년간 母校 총동창회를 이끌고 전체 동문들의 역량을 모아 母校 발전의 牽引車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는데 정열을 쏟은 김재순 명예회장의 中國紀行文은 오래 전에 쓴 글이지만, 自然人으로서의 그의 文學 青年의 꿈과 經綸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봉은 일상의 부주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환희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으며 옥유진은 이민법 전문변호사로서 바쁘게 일하면서도 5월을 觀察하고 있다.

노재욱은 이제 모두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우리 동문들이 祖孫들에게 들려 줄 수 있는 동화 “제비 이야기”, 지명식은 어지러운 現代 騷亂 속에서 서양의 古典 音樂인 Baroque Music을 설명한다. 허유행은 고국산하와 닮은 美 洲의 새로운 삶의 터전인 Sequim의 山을 이야기하고, 고석연은 미국생활을 시작할 때 누구나 한번은 겪는 우리 이름자 속의 行렬(行列) 개념과 “first name”에 대하여 말한다.

인간의 공격적인 동물성의 발산인 운동경기에 깔려 있는 “日本 神話”의 해나로서의 力道山의 이야기를 김일훈은 들려준다. 소련의 NATO 가입과 미국과의 핵무기의 획기적인 감축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명실공히 世界의 盟主로서 부상한 美國의 외교정책에 대한 구리파의 우려를 반영하는 時論을 소개하며, 이윤모는 지금까지 동문독지가들이 많은 부분을 부담해온 재미동창회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창회보 재원조달”을 위해 發想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의 장준근 동문은 현대 자연과학의 총아로 등장한 “생명공학”, “컴퓨터”의 정보기술의 교류에 관한 論考를 실었다.

우리동창회보의 다음 호는 100호가 된다. 많은 동문들께서 삶과 연구의 현장에서 우러나는 다양한 사색의 소산인 글을 우리 동문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보다 풍요로운 知性인의 論壇를 구성합시다.

# 童話 제비 이야기

노재욱 <의대 65년 졸>

〔筆者註〕

오래 전부터 한국에서는 제비는 특수한 조류로 자고로 모두에게 애호 받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즐겨읽는 “흥부와 놀부”에 중요한 조역 역할로 등장해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새이다. 봄이 오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당연지사, 제비가 보이면 봄이 왔다고 생각하게 되고 봄이 오면 제비가 보이려니 생각하게 된다. 자고로 제비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에 셋방살이를 하며 사람 주변을 감돌뿐만 아니라 곡식이나 사람에게 해가 되는 곤충과 벌레를 잡아먹는 바 우리에게 유익한 철새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특히 한국에서는 제비가 환경오염의 척도가 된다고 한다. 어느 생물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는 제비는 유달리 예민하게 받고 있어 지금 한국, 우리들의 고국에서는 강남갔다 돌아오는 제비 숫자가 점점 줄어지고 있다고 한다. 환경오염이 초래한 결과다. 과다하게 사용하는 化學肥料, 殺蟲劑, 除草劑 등으로 제비의 먹이가 되는 벌레가 전멸되다시피하고 그나마 살아서 제비의 먹이가 된 것은 이미 오염이 되어 있어 발생기의 난자나 새끼 제비가 해독을 받아 죽게되거나 약해져서 습사리 다른 짐승의 밥이 되거나 겨울을 지내려고 멀고 먼 강남을 가는 도중 낙오자가 되어 다른 짐승의 희생물이 된다고 한다.

제비는 한국에만 있는 새가 아니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다. 그럼 각각 다른 대륙에 살고 있는 제비가 날아가는 강남은 남미지역이고, 유럽에 살고 있는 제비들의 강남은 남아프리카라 한다. 정말로 먼 거리를 제비들은 겨

울을 지나려 여행을 하는 셈이다. 묘한 자연의 섭리에 따라 날씨가 싸늘해지면 때를 맞추어 한식구, 두식구 살던 집을 떠나 남으로 이동을 시작한다. 그 이동은 정말로 가관이다. 한 식구가 다른 식구와 합류하게 되고, 그 다음 또 다른 식구가 합류하고, ... 결국은 전 북미에 살고있는 제비떼들이 합쳐 부지기수로 한무리가 되어 이동을 하게 된다. 맑은 날을 日氣에 상관 없이 계속 날으며 밤에만 숲속 나무에 앉아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한다. 장거리 여행도중 약한자는 지쳐서 낙오자가 되어 죽거나 다른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필자가 이곳 미국에서 경험한 제비에 관한 한 에피소드를 여기에 소개하려한다. 장차 한국말에 미숙한 손자, 손녀(아직은 아무도 없지만)가 할아버지의 글을 읽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영어로 썼음을 양해해 주기를 필자는 바라는 바입니다.

### A story about swallows

Because my house locates next to man-made lake on one side and a vast area of forest preserve on the other side, I can enjoy all kinds of nature. Animals like deer, rabbit, raccoon, ground hog, squirrel, and weasels frequent my yard. Sometimes they are a nuisance because they mess up with my flower garden which I am very much fond of. With the benefit of a large lake, I can enjoy unusual birds that ordinarily we don't see around the house. They are ducks, geese, swallows,

and blue herons.

Early last spring, I noticed that a pair of swallows were building a nest on the wall next to my garage door. They brought mouthful clay and straw and laid little by little to build a half cone shaped nest which was wonderfully structured and skillfully attached to the wall. I told my wife that we are going to see baby swallows pretty soon.

Eventually, the female swallow finished laying eggs and sat quietly on them. After a few weeks passed, we heard chicks. We could see four chicks stretching their necks waiting for the mother swallow to bring food.

Since then, the mother swallow kept herself busy to bring food to the chicks. Meanwhile, the father swallow was making circles around their nest as if he was guarding them. When the mother swallow was not feeding chicks, both swallows sat on the edge of gutter and chat to each other.

We had to get out of our house quietly and quickly not to disturb them. If we had stayed a little longer than a brief moment outside, swallows were getting nervous and started swiftly

assistance and where they are coming from. I haven't seen them before. Since then this groupings and attacking gestures repeated whenever it was not sooner enough to clear from their view. Even we had a great curiosity to see how the baby chicks grow, we had to restrain ourselves. Only way to look the baby swallows was from inside through the window. We still managed to enjoy observing baby chicks getting bigger and the moment they could fly. We worried if they might fall to the ground but to our relief, they managed to fly all by themselves. When they flew away, I was wondering if they left forever. They came back in the evening and stayed in the nest. They repeated this for a few days but finally they have gone and then never returned. All the time both parent stayed and carefully watched if everybody left safely. Finally both parent left for

ained empty. And then the winter came. The swallows have not come back even after spring has sprung. I thought they would never return. One day we noticed some other kind of bird has occupied the nest and laid eggs. It was a purple finch. I thought that the finch is a shameless creature and steal someone else nest. Since an original legitimate owner is not around, it wouldn't matter whoever lives there. It would be better than left vacant. To my surprise, one day, the swallows have returned. I believe that the swallows must have been shocked to find that someone else is

occupying their nest. There was a brief quarrel and melee between them. I have observed that the swallow gave up and quietly left. I am sure they are much larger and stronger so that they could evict easily the illegitimate occupant if they wanted. They must have thought it is unethical or unkind to kick out someone who is having baby.

This event left me a profound thought. We can learn some lesson that the swallows showed us about the cooperation among their colleagues and yielding to someone needy. Nowadays it is a rare occurrence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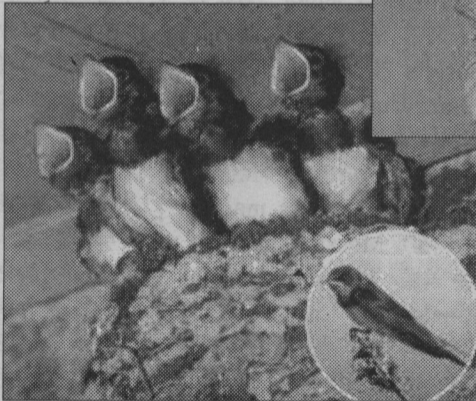
後生을 키우는 어미제비와 그의 자녀들.



the warmer place somewhere so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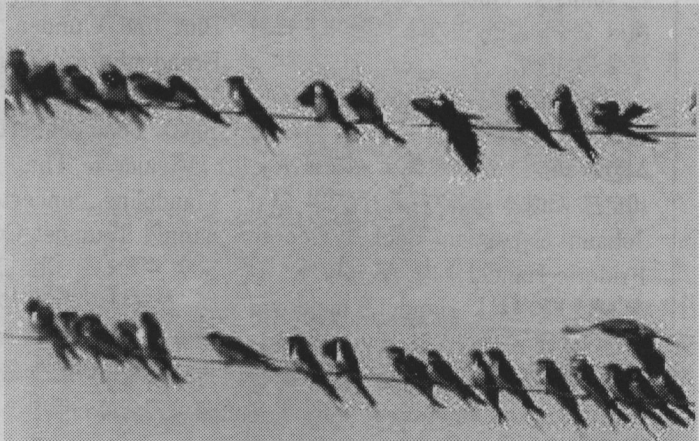
After all left, the nest re

our society to cooperate and yield. It would be nice to follow the exemplary gesture that the swallows have shown us.



처마밑에 동지를 튼 어미제비와4마리의 새끼.

flying and dashing to us as if they were trying to attack us. I thought that they were trying to protect their chicks. If we stay longer, we had to confront a troop of swallows. Suddenly, at least five or six more swallows join the pair and circle around us, making some noise. It amazed me how the pair send a signal to recruit



서로 돕고 사랑하는 관악산의 제비들.

## 산유화(山有花)

김소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 Baroque음악과 世界觀

池明植 <사대 65년 입학>



유럽사회는 16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르네상스, 종교개혁, 반 종교개혁이라는 반복의 시대를 경험하였다. 르네상스는 인간의 생활감정을 고양시켰고, 자연의 발견이라는 큰 공헌을 하였고,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신앙문제를 재형성하였고, 인문주의적 사고, 구텐베르크의 활자발명,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등은 새로운 세계관과 개인양심의 재정립을 이루게 하였다. 바로크 시대의 예술은 이러한 배경 속에 출발하게 되며, 전반적으로 볼 때 전통적이고 진보적인 힘의 등장과 충돌이 표면적인 긴장과 균형을 구하는 노력을 통해서 성격이워진 한 상황을 빚어냈다. 바로크 시대에는 국가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 기독교적인 것과 비기독교적인 것, 현세 쾌락적인 것과 현세 부정적인 것, 보수적인 것과 진보적인 경향들이 강하게 충돌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대립은 30년 전쟁(1618-1648)에서 최고조에 달하였다.

Baroque라는 어휘자체는 "기괴한, 이상한 그 무엇들"(something bizarre or badly made)의미했다고 한다. 그러나 음악적으로 볼 때 이 시대는 Bach, Handel, Vivaldi 등 위대한 작곡가들이 지나간 시기이었고, Mozart, Haydn의 등장을 예비한 시기이기도 하였으며, 음악사에 중요한 이정표들이 설정된 시기였다. 대부분의 음악 형식들이 이 시대에 태동하게 되었다. 소나타 주제와 변주곡(theme and variation), 조곡(suite), 回族曲(rond), 屯주곡(遁走曲, fugue), 협주곡(concerto), 가극(opera), 오라토리오, 칸타타 등의 형식들이 바로크 시대에 시작되어 발전되었으며, harpsichord를 위시한 많은 악기들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특히 opera는 1500년대에 이태리에서 시작되었고 1600년대까지 유럽의 여러나라로 전파되었다. 오페라에는 두개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text 또는 words 부분인 libretto와 music 부분인 score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연주로 바꾸려면 가수(singers), 지휘자(conductor), 또한 orchestra가 필요하게 된다. Oratorio는 soloists, chorus, orchestra에 의해서 연주되지만 연기나 복장이나 배경 무대 등이 없다.

Opera가 세속적인 반면 oratorio는 종교적인 특성을 지녔다. 이 두 가지 형식들이 바로크 시대에 처음 시작되었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들을 들자면 역시 Johann Sebastian Bach와 George Frideric Handel 이다. 두 음악가는 같은 해에 태어났다. Handel은 melody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던 반면, Bach는 melody들의 복잡성(complexity)을 추구하였다. 또한 Bach는 기악곡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Handel은

ratorio work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30년 전쟁의 결과 유럽인구의 1/3이 희생되었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30년 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큰 전쟁의 결과로 17-18세기 유럽사회는 염세관(Pessimism)과 죽음에 대한 불안(Todesangst)으로 가득 차 있었다. 따라서 그 시대에 제기되는 세계관은 兩極을 이룬다. 現世에 충실 할 것인가(Diseits), 來世에 희망을 걸고 살 것인가(Jenseits) 하는 문제는 그 당대 사람들의 世界觀(Lebensanschauung)에 중요한 물음이었다. 神의 벌을 받아 전쟁이 생기고, 모든 비극이 생겼으니 다시 神에게 귀의하여 저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遁世的 삶(Weltflucht)을 이끌어 간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 神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神이 존재했다면 인간이 이토록 비참하게 전쟁으로 고통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어차피 신에게 버림받고 죽을 수 밖에 없는 삶일진데 이승에서 강렬하게 生을 열망하고, 향락적으로 즐기고 추구하며(Weltsucht) 神을 잊어버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느 시대의 예술에도 양면성(Polarity)은 존재했으나 바로크 시대만큼 그 양면성이 확연했던 시기는 많지 않았다. 이 시대를 스쳐 지나간 예술가들은, 특히 음악가들은 이러한 양면성을 간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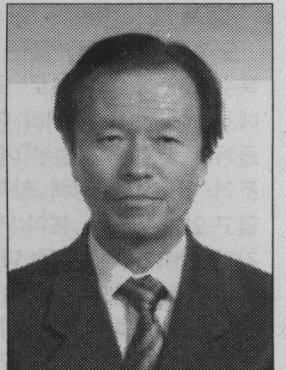
나는 Duke University Chapel에서 Pipe organ으로 연주된 Bach의 Toccata & Fugue in D minor (BWV 565) 를 들을 때면 세상을 등지고(welt flucht) Jenseits 가 되는 듯 느꼈다가도 Brandenburg Concerto의 Allegro 를 출근길에 차에서 들으면 이승살도 추구할 만하다고 생각도 해본다. Handel의 Xerxes(Act 1)중 Ombra mai fu (Largo로 알려짐) Messiah 중에서의 많은 아름다운 곡들, The water music 중 Air, Rinaldo 중 Lascia Chio Pianga(조수미 워싱턴 공연 CD 수록됨), Bach의 St Matthew Passion (BWV 244)중에서 O Haupt Voll Blut und Wunden (그 상한 머리), Brandenburg Concerto (BWV 1048) 4ir on the G-string(BWV 1068), oboe concerto in D.

Vivaldi의 The Four Seasons, Mandoline concerto in C, Telerann의 Trumpet Concerto in D등은 모두 주옥같은 바로크 시대의 작품들이다. 섬세함과 가려움이 있는가 하면, 장중함이 무겁게 내려 누르는 경외감이 바로크 음악, 바로크 음악을 듣노라면, 이승과 저승을 왕래하는 기분이 든다.

# 내고장 소개

## 故國의 山河와 답은 Sequim

許允行 <사대 57 입, 북가주동창회장>



온대우림 지역에 위치한 서북미 워싱턴주와 오레곤주는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가 고국것과 같은 것이 많고 산자수명한 모습이 도무지 낯설지가 않다.

겨울이면 비가 많이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가장적이어서 일찍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런곳에서도 예외가 있으니 최 서북단 태평양과 맞닿는 곳에 Sequim(스킴)이라고 하는 차분한 마을이 있는데 인구는 약 6000 여명으로 범죄 없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흑인 Community 가 없고 밤에 문을 열어 놓고 자도 도둑이 없으며 신기하게도 겨울에는 비나 눈이 내리지 않는 곳으로 온화한 기후를 자랑한다. 비나 눈이 내리지 않는 이유는 Olympic National Park 에 위치한 5개 이상의 6천~7천 피트 높이의 산들이 구름대를 막아 주고 있어 연중 San Francisco를 밀도는 강우량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Sunny Sequim 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사시사철 꽃이 피는 곳으로 이른 봄 수선화가 피기 시작하면 이어서 벚꽃, 개나리, 진달래류, 튜립, 아네모네 등이 피고 이어서 아카시아, 나리, 해바라기 등 여름 꽃이 피고 또 코스모스, 다알리아, 국화 등 가을 꽃으로 이어지며, 겨울에도 나무에서 꽃을 피우는 나무가 종종 있어 일년 내내 새가 와서 노래하고 사슴이나 산토끼가 어슬렁 거리며 마을 구경을 온다.

또 이 근처에는 Sol Duc 온천이라는 유황천이 있는데 수질도 좋거니와 가는길이 약 한시간 거리로 중간에 Lake Crescent 라는 환상적인 호수가 있어 이 호수 때문에 이곳에 살게 됐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보다 가까이에 여덟 노천 온천이 있는데 유황천으로 신경통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근처에는 American Indian 들을 위한 5개의 보호구역이 있으며 그들 모두 특유의 전통과 민속음악 또 몽골반점 등을 갖고 있어 우리와 일맥 상통하는 종족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그들의 민속음악은 우리 민요와 같은 것이 많고 그들의 생활습관, 말의 순서등 문법적으로 우리말과 매우 같다고 하니 누군가가 본격적으로 연구해 보자 하라. 용감한 이들은 고래 사냥을 전통적으로 해와 해마다 고래를 잡겠다고 하여 정부와 의견 충돌을 빚기도 한다.

이곳은 온화한 기후 탓인지 겨울에도 각종 구근류(튜립, 하야신스, 아네모네, 다알리아, 그라디올라스등)을 땅속에 그대로 두어도 얼어 죽지 않으며 오히려 꽃 색깔을 더 찬란하게 피운다니 게으른 사람이 농사 짓기 딱 좋은 곳이다.

그럼에 야생무(장다리)가 겨울을 나고 4~5월에는 한창 꽃을 피워 고향을 생각하게 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고사리, 산딸기, 민들레, 개나리, 목련등 고국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곳에서 한 시간반 정도 동북쪽으로 가면 Skagit Valley 라는 곳이 있는데 토질이 네델란드와 비슷하여 일찌기 Dutch 들이 정착하여 tulip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인구 천명도 안되는 이곳에 오는 관광객들이 뿌리는 돈이 연간 수 백만불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황금 알을 품은 땅이라고 하겠다.

Sequim 의 바다는 청정해역이어서 Dongennes 계라는 맛 좋은 게가 늦가을 부터 이른봄까지 잡히는데 한 마리면 두사람이 먹을 만큼 탐스럽다.

굴도 딸 수 있고 Port Townsend 에서 봄에서 늦여름 산란기 전까지는 천하일미의 구의덕을 쉽게 잡을수 있는 곳이 있다.

특히, Port Townsend 는 1,800 연대 Victoria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주택과 상가, 관공서등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영화 촬영이 계속되고 있다.

서북미 일대에는 소나무, 측백나무, 더글러스 휘등 상록수가 많으며 토질도 고국과 비슷한 것 같으니 땅을 좀 넓게 잡아서 가장자리에는 키 작은 개량 잣나무를 심고 중앙에는 매화를 심어 봄철에는 관광객을 부르고 가을에는 수확한 농산물을 출하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수 있겠다.

이곳 Olympic National Park 에는 Hurricane Ridge 라는 정상이 있어 여름에도 때로 눈을 만날 수 있고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는 스키장이 열리며 오가는 길목에서 시슴, 노루, 산토끼등을 만날 수 있다.

Sequim에서 20분 거리에 Port Angeles 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ferry를 타면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Canada Vancouver 섬의 Victoria 에 닿게 되고 그곳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훼류 식물원이 있으니 이름하여 Butchart Gardens 라 하며 1904년부터 Mrs. Butchart 가 세계 이곳 저곳에서 아름다운 꽃씨 또 꽃나무를 모아들여 조금씩 넓혀 나간 것이 오늘날 B.C에서 가장 세수를 많이 올리는 기업이 되어 지방 정부나 연방 정부 행사시 현재 외손자가 사장인데 항상 VIP 2인자석에서 예우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Sequim 에는 안전한 캠핑장, 카약, 연어 낚시, Biking, Hiking 타기, 탐조등이 아주 좋은 곳이다.

끝으로 이곳에는 3명의 동문이 있으며 서로 잘 협조하고 있다.







<8면에서 계속>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中國측 여러분의 환대로 예부터 딸을 낳으면 술을 빚어 땅에 묻었다가 시집갈 때면 내어준다는 紹興酒로 얼큰히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그 유명한 이곳의 美

人 西施 와 같은 美女의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이곳 杭州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꿈꿨던 생각건대 이 점에 관해서도 여러분의 심모원려(深謀遠慮)의 결과임을 느낄 수가 있었지요. 美女에의 미련을 남기고 떠나게 하시는 中國측 여러분의

마음씨, 정녕 감사합니다. 모처럼 즐거운 자리이니 만큼 얼큰한 취기가 가시기 전에 蘇東坡의 詩 한 수를 외워 봄으로서 美女를 만나지 못하고 杭州를 떠나가는 나의 心情을 달래 볼까합니다.

水光 艷晴方好

山色空濛雨亦奇  
欲把西湖比西子  
淡粧濃抹總相宜  
물빛은 넘치도록 퍼져 나가 맑은 경치는 더욱 좋구나  
산 색깔은 흐릿하여 비 내리는 경치도 또 안 좋은가  
만약에 西湖를 西子(西施)에 비

한다면  
얇은 화장이건 짙은 화장이건 어느 것도 다 좋지 않은가

杭州에 미련을 남긴 채, 上海를 向하는 2층 汽車에 올랐다. 정결하고 인락한 '火車'였다.  
(1994년4월22일~5월2일)

《書報》 서울대 총동창회 제15, 16, 17 및 18대 회장(1994년 04~2002년 03)을 역임한 김재순 동문과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



- 1- 제 26회 정기총회에서 제 15대 동창회장에 선출됨(1994. 3. 26)
- 2- 서울대 개교 50주년 기념식 후 해외동문과 함께 (1996. 10. 15)
- 3- 재미 총동창회 제 7차 평의회 회의(1998. 6. 6)
- 4- 제 1회 총동창회 관악대상 시상(1999. 3. 19)
- 5- 정기총회에서 관악대상 수상자와 함께 (2002. 3. 15)
- 6- 제 34회 정기총회에서 총동창회 명예회장에 추대됨 (2002. 3. 15)



김재순 명예회장님!  
母校와 同門들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재미서울대동창회

재미동창회보 투고 요청

재미동창회보는 미주 전역에서 각자 전문분야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여러 동문들의 사색의 소산인 玉稿들을 모아, 우리 동문들의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의 매체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보의 독자 여론 조사에서 동문들은 다음과 같은 주제의 글을 읽고 함께 토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1) 남북한 관계의 진전 상황 2) 미국의 외교정책 3) 한국 경제 4) 세계 경제
- 5) 한국의 교육 개혁 6) Nano 기술 7) 생명공학 8) 보건 의료 분야 9) 조세, 은퇴, 투자 방안
- 10) 동문들의 자전적 수상, 시와 사진을 함께 보내주세요.
- 11) 기타 동문들의 창의적인 글을 기다립니다.



# 서울의 한자 호칭, “漢城”을 바꾸는 문제

盧載源 (법대 55졸, 초대 駐中大使)

중국의 공문서와 언론보도는 서울을 한성(漢城)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습관에 따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서울은 西洋에서는 Seoul이라고 발음대로 표기하고있으나 중국어에는 서울을 발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없다. 그래서 훈독(訓讀)을 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서울을 한자로 표현한 예를 보면 조선시대에 서울에 처음 도읍을 설치 할 때부터 500년간 漢陽이라고 불렀다. 한양은 한강(漢江)의 북쪽이라는 뜻이며 地理的概念에서 나온 명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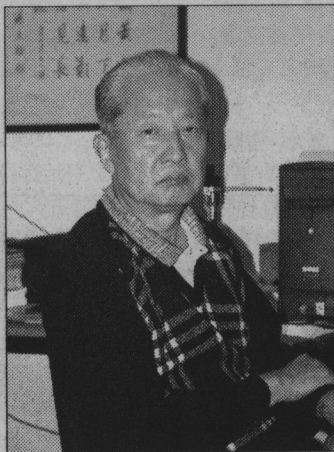
한말(韓末)에 와서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고치고 자주국가임을 선언하였으나, 우리나라를 여전히 속국(屬國)이라 여긴 청(淸)은 서울을 중국의 地方都市와 동격으로 漢陽을 漢城이라고 불렀다. 그 당시 우리조상들은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한 것 같이 보

이며 오히려 스스로 漢城日報나 漢城銀行과 같은 恥辱的인 명칭을 사용했다.

사대주의가 사람들의 골수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의 강점 후 서울은 경성(京城)이라고 불렀다. 해방이 되자 우리가 옛날부터 부르던 지리적 개념인 漢陽이란 호칭을 버리고 서울이라고 부른 이유는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의미를 내외에 강조하려는 주권의식의 표시라고 할 수 있으니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서울이 漢城이라고 불림으로서 중국의 지방도시의 위치를 감수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으로 중국에서 漢城이라고 부르는 것을 고치게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었다.

중국사람의 문자감각으로 보면, 漢城이나 平壤은 지방도시이지 나라의 수도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서울을 어떻게 표현하느냐하는 것은 우리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다. 우리정부가 정식으로 중국정부에 통고하면 중국정부와 언론은 우리가 지어준 이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침 Burma가 Myanmar로 국호를 바꾸고 수도 Rangoon을 Yangon으로 고칠때나 중국이 북경(北京)의 영어호칭을 국민당 정권 당시까지 쓰던 남부 광둥(廣東)식인 Peking에서 북경식 발음인 Beijing으로 고

칠때 모든나라가 이에 따라 호칭을 바꾼 전례가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게을리 하여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부끄러운 일이나, 필자가 대사로서 북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의 실패담을 소개한다. 한중수교 교섭이 1992년 4월부터 비밀리에 시작되었다. 교섭은 7월중에 타결되고 대외발표를 8월24일로 합의하고 그동안 한달반 동안은 서로의 국내절차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여러 가지 준비중의 하나로 필자의 관심사는 서울의 한자 표기문제였다. 이기회에 漢城을 버리고 다른 이름을 사용하게 하여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韓中양국의 공식문서는 역사에 남는 중요한 문건임으로 그 안에 대사관을 漢城과 北京에 설치한다는 식의 문서를 남기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이밖에도 체결해야 할 수많은 조약과 협정이 있었다. 우리는 외무부를 통하여 공보부와 문교부에 이 문제를 제기하여 조속히 새로운 서울의 한자표기 이름을 지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때 우리 대사관에서는 한경(韓京)이라는 이

름을 건의하였다. 정부에서는 주로 한학자(漢學者)와 역사학자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심의하였다. 심의과정은 알 수 없었으나 결국 갑논을박(甲論乙駁) 끝에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관계부처의 회답이었다. 우리의 입장은 8월24일 수교까지는 결정되어야 하는 조마조마한 심정이었으므로 그런 급한 사정을 모르는 정부의 느린 처사에 크게 실망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중수교자체가 극비사항(極秘事項)이어서 구체적인 목적은 숨긴 채 기한도 정하지 않고 빨리 결정하여 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였을 지도 모른다.

이문제는 우리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바로 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서울이 漢陽이건 韓京이건 또 다른 적절한 이름이 있으면 그것도 좋다. 그러나 중국의 속국을 상징하는 漢城을 우리 손으로 방치하는 것은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한글漢字문화, 1999년 11월호서)

# “FIRST NAME”, 나의 실수有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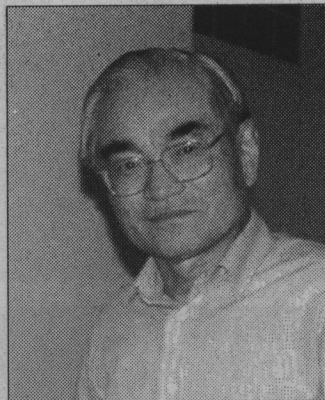
高錫源 (문리대 50년 입)

이곳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서류에 영어로 이름을 써야함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서류마다 이름 쓰는 란이 FIRST NAME, MIDDLE NAME or INITIAL, LAST NAME 3부분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姓)과 이름(名) 즉 성명은 2부분으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해준 여권(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이름을 영자로 표기한 원본일 것인데)에도 SURNAME과 GIVEN NAME, 2부분으로 되어 있다. 나의 경우 KO, SUK WON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30여 년 전 이곳에 오자마자 신청한 운전면허, 전화가입, 은행계정 개설 등등 서류마다 이름을 기입할 때, 무심코 FIRST NAME 란에 SUK, MIDDLE NAME 란에 WON, LAST NAME 란에 KO로 하여 제출했다. 이것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것으로, 미국 사람들의 이름제도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온 큰 실수였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영자로 옮겨 쓸 때, 성(姓)의 경우 동서양이 다같이 세대를 이어가며 온 가족이 같은 성을 사용하는 제도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그런데

서양사람의 FIRST NAME이란 우리말로 세례명이라고 번역하듯 태어나자 종교 식으로 세례를 받으며 지음 받는 각자의 고유한 이름이다. 한편 MIDDLE NAME 짓는 관례를 보면, 나라에 따라 또는 개인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니의 세례명을 따다던가, 종교상의 옛 성인 이름을 따다던가, 결혼한 여자가 자기 처녀 시절의 성을 선택한다던가, 혹은 각별한 애정이나 관계가 있는 친척 친지의 세례명을 따서 짓는 경우 등으로서 우리 식으로는 MIDDLE NAME에 해당하는 개념 또는 제도가 없다. 한국의 경우 서양과는 달리 항렬(돌림자)제도가 있어 성을 제외한 이름 두 글자 중 같은 세대끼리는 같은 항렬의 글자를 공통으로 갖으며 나머지 한글자만 따로 받게 된다. 나의 경우 “석”자 돌림으로 석도, 석진, 석구, 석채 등이다. 그러나 항렬자를 포함한 두 글자가 그 사람의 고유한 이름이 된다. 한편 이 돌림자도 이름의 두 글자 중 순서가 선 세대와 다른 세대간에 교대로 그 자리를 변경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즉 나의 아버지 세대에서 항렬자가 이름 두 자중 끝 자였다면 나의 세대는 두 자중 첫 자가 항렬자가 된다.



그 다음 나의 자식세대는 다시 두 자중 끝 자가 항렬자 순서가 된다. 그리고 그다음 세대인 나의 손자 세대는 다시 두 자중 첫 자가 항렬자이다. 이러므로서 세대를 구별해서 알아 볼 수 있고 또 같은 세대끼리의 친족감 친밀감을 주기도 한다. 매우 잘 된 제도인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항렬화 된 이름을 이곳에서 영자로 옮겨 쓸 때 내가 범한 실수처럼 하게되면 나의 형제, 사촌, 팔촌이 모두 같은 FIRST NAME을 갖게 된다. 즉 나의 경우 이름의 첫 자인 “석”이 항렬자인데 SUK 이 다 이들의 이름이 되 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동명이인이 한 집안에 생기는가? 이것은 큰 혼돈을 가져온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건 첫인사에 자기 이름을 소개하게 되고 특히 서양식으로는 FIRST NAME을 통명하는 관습이니 MY NAME IS SUK 이라고 하고 곧 이어서 내 옆의 형이 같게, 그리고 내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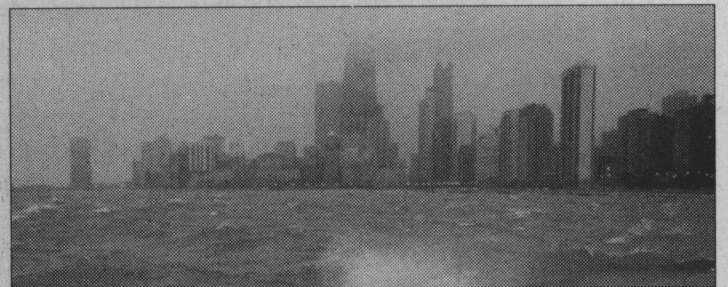
생이 또 같게 소개하고, 사촌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숫자가 몇 명이던 모두 같은 통 성명이 될 것이니 말이다.

나 자신 초면인사때마다 MY NAME IS SUK 하면서 어색한 느낌을 갖게된다. 왜냐하면 내 이름은 석이 아니라 석원이기 때문이다. 이점에 있어 우리나라(한국)는 영자이름 표식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듯 하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KIM DAE JUNG 보다는 KIM DAE-JUNG이 더 맞을 것 같다. 정녕 그의 항렬을 살려서 형제간에, 사촌간에 서로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면 KIM DAE-JUNG 식으로 중간에 하이픈(-)넣어서 쓰되 한단어로 묶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이런점에서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다. 江澤民을 JIANG JEMIN으로 하고 있고 小泉純一郎을 KOIZUMI JUNICHIRO 로 쓰고 있는 것 같이...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문교

부, 외무부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서양사람의 이름중 FIRST NAME과 MIDDLE NAME의 개념과 관례를 제대로 이해해서 국민의 이름을 영권에 또는 외국 언론에 표기할 때 착오없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같은 성 이씨가 영자로는 LEE, RHEE, RHI, YIE 등 제각기 다르게 표기함은 잘못 된 것 같으며 서양에서 보기에 전혀 다른 가문에서 온 사람들 처럼 생각하게되니 이 문제도 검토해 볼 대상인 것 같다. 한글의 통일 확정된 로마자 표기법이 절실하다. 내 이름을 “석”을 SUK 으로 한 것 보다는 SEOK으로 하는 것이 발음상 제소리에 더 가깝다고 느껴진다. 이리하여 나의 손자 세대의 작명은 예초 서양식 FIRST NAME을 아들과 며느리가 짓게 하고 MIDDLE NAME을 한국식 항렬을 따른 이름으로 나와 내 처가 지어 주었다.

동서문화의 融合(FUSION)이라고나 할까?



美州 同門들의 생활터로 한반도를 포용할수 있는 大湖 미시간의 5월초의 波浪.

# 力道山 日本의 현인신(現人神)

김 일 훈 <의대 57년졸>

## 일본의 3神은 한국인

작년(2001년) 12월 일본왕 아키히토는 68세 생일기념 기자회견에서, “간무(桓武)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武寧王)의 자손이라고 ‘속 일본서기’에 기록돼있는 사실에, 한국과의 연을 느낀다. 또 무령왕의 아들 성명왕은 일본에 불교를 전달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일본천황 선조에 조선족 피가 섞여있다는 사실은 일본학자들에 의해서 언급돼왔으나, 이번에 천황의 입을 통해서 직접 확인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일본인에게 일본천황은 “인간”이 아니라 현인신(現人神) 즉 살아있는 신(神)이라고 믿어져왔다. 그런데 신(神)이라 여겨온 일본천황 선조의 신성한 혈통 가운데 그들이 평소 멸시해온 조선인 피가 흐르고 있다는 국가적 선언에서 우리는 21세기의 한 울타리 지구촌시대의 변화를 느낀다.

일본의 국가와 민족의 기원에 대해 일반학계에서 가장 유력한 학설은 일본의 석학 에가미(江上波夫)씨의 “기마민족 정복국가”설이다. 즉 동북아시아의 기마민족이 조선반도를 경유하여 구주 북부에 들어와서, 차츰 일본본토로 진출하여 이전과 다른 계통의 사회문화를 이루었다는 학설이다.

천황황실을 상징한다는 소위 3종의 신기(三種의神器)는 천황즉 신의 자손이라는 상징으로, 한 세트의 칼과 거울과 옥(玉)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일제 때 일본의 저명한 다카가와 교수는 한국시골 무당꾼들이 3종의 신기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란바 있다고 했다. 즉 신(神)인 일본천황의 조상은 옛 조선반도의 종교인 샤머니즘(다신교)의 후예에 불과하며, 자칭 현인신(現人神)으로 국민에게 군림해왔던 것이다.

그러다가 2차 대전종전 후 연합군의 강요에 의해서 천황은 인간으로 돌아왔는데, 소위 히로히토의 “인간선언”에서, “나와 우리국민간의 유대는 어디까지나 신뢰와 경외로 결합된 것이며, 과거 잘못 알려진 것처럼 신화와 전설에 의해 생긴 것은 결코 아니다. 천황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나 일본국민이 타민족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할 운명이 주어졌다는 말은 한갓 가공적인 관념일 따름이다”고 했다. 이로서 일본의 살아있는 신은 없어졌다고 하겠다. 일본에서는 국민의 영웅이나 살아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죽으면 신(神)으로 받들어 신사(神社)에 모셔진다. 러일전쟁 때 노기(乃木)장군을 모신 노기신사와 도고(東郷)제독을 모신 도고신사가 그 예다.

그 뿐만 아니라 일본말 표현으로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초인적이라 생각되는 가장 유명한 능력 있는 인물을 가미사마(神)라 부르고 있다.

특히 스포츠, 예술, 그리고 기업계의 3대 분야에서 3대신(神)이 한국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 믿지 않을 것이다. 사실이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인이면 다 아는 세계프로레슬링 왕 역도산(좌고), 전년에 1명 나온다는 신의 목소리를 가진 가수 ‘미조라 히바리’ (좌고), 그리고 현대일본의 빌게이츠라 할



‘손정의’가 바로 3신(神)이다.

## 천황 다음으로 유명한 역도산

2차대전 후 천황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은 바로 역도산(力道山)이었다.

당시 일본은 점령군 미군지배하에 있었으며, 패전국 일본국민들은 위축된 사회에서 풀이 죽어있을 때였다. 이때 일본인에게 용기를 주게끔 해성처럼 나타난 국민의 영웅이 프로레슬러 역도산이었다. 대중의 인기스포츠 프로레슬러경기에서 미국점령군을 상징하는 거인 백인레슬러들을 그의 특기인 가라테 chop을 중흥무진으로 휘둘러 케이오(KO)시키는 장쾌함이 역도산 신화를 날게 했다. 전쟁에 진 일본남자는 모두가 성불구자 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니는 시기였고, 많은 일본여자들은 양공주가 되어 동족(일본)남자를 멸시했었다. 간혹 이상한 눈으로 양공주를 쳐다보는 남자들이 있으면 “너 이 전쟁에 진 것들이 무슨 말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강한 남자 미군을 좋아한다”고 쏘아 부치던 때였다.

이렇듯 일본남성들의 우울했던 시기에 거인 백인을 내리치고 후려갈기는 역도산의 모습은 당시 일본인을 대혹케 하고, 신나는 카타르시스를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역도산은 해방 후 돌도 없는 일본인의 우상이 되었다.

역도산을 하루아침에 전국민의 영웅으로 만든 것은 그가 활약하던 시기에 새로운 미디어가 본격적으로 태동한 시대덕분이다. 전쟁후 불과 10년 사이에, 전과를 타고 순식간에 온 세계에 정보를 전달하는 TV가 새로운 미디어의 주역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때 TV를 통해 매일 수천만 일본국민 앞에 나타나는 천하장사 역도산이 외국침략자를 무찌르듯 매도시키는 장쾌한 위용을 보는 일본인의 일과는, 그들에게 사는 보람을 주게 했다. 역도산의 모습은 당시 일본인에게 영웅이자 신(神)이었으며,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제공하여, 전후 일본부흥에 활력소가 됐다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앞에 언급한바와 같이 패전직후 천황은 현인신(現人神)에서 탈퇴 선언을 했는데, 역도산은 바로 그 자리를 대치한 새로운 신(神)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일본국적의 역도산은 사실은 한국태생의 한국인 김신락(金信洛)이었으며, 당시 일반일본국민은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 한국인 김신락(金信洛)

1922년 함경남도 흥원군의 촌락에서 풍수사(風水師)의 3남으로 훗날의 역도산 김신락이 태어났다. 고을 소학교를 졸업한 그는 중풍으로 누워있는 아버지간병을 맡고 있었으며, 가주는 지방의 씨름장수인 8세 위의 큰형이었다.

1938년 신락에게 때가 다가왔다. 단오 날 지방씨름대회에 16세 소년 신락은 큰형을 따라 출전했다. 이날 큰형은 황소 두 마리를 탄 1등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그리고 소년 신락은 3등에 입상되어 주변의 시선을 끌었다. 때마침 관객 중에 일본서 그 지방에 방문한 한 일본인이 신락의 열전을 관람하고 감동하게 되었다.

사실인즉 그 일본인 U씨는 일본의 수모(相撲, 일본씨름)계에 손이 닿는 인물이었다.

그가 김신락 소년을 일본에 데리고갈 것을 제안했으나, 큰형은 화를 내며 거절했다. 외병중의 아버지간호를 계속 담당해야했기 때문이었다. 다음해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신락의 일본행 기회가 왔으나, 3년상(喪)을 마칠 때까지는 고향을 떠나지 못한다고 했다. 그를 고향에 묶어두기 위해 같은 고을 몰래방아 집 딸과 결혼을 시켰다.

(註: 결혼의 유일한 소생인 딸 김영숙이 국위선양했다는 민족영웅에게 수여하는 훈장 “열사상. 烈士賞”을, 훗날 김일성한테서 아버지 역도산을 대신해서 받는다.) 그러나 신락은 다음해 가족과 고향을 버리고 일본행을 감행했다.

드디어 1940년 18세에 일본 수모의 말단선수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전쟁 중, 그리고 전후 그는 요코즈나(横綱, 수모-왕)를 향해 단련 또 단련을 거듭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스모협회에 대한 불만과 민족문제로 인한 고민도 있었다고 한다.

1950년 그는 크게 결심한바 있어 수모선수의 상징인 존마게(머리카락을 살아올린 것)를 끊어버리고 말했다. 수모를 버린 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프로레슬러에 입문했으며, 세기의 인물로 급속히 부상하게 되었다.

신(神)의 선물이었고만 믿어지는 가라테의 무기를 휘둘러 국민

의 카타르시스를 충족시킨 그는 일본인이 말하는 신(神)의 존재였다. 그는 거부(巨富)가 되고 영화가 뒤따랐다. 그러다가 1963년 아쿠자의 칼에 찔려 39세에 죽었다.

지금 일본에서 역도산 쇼가 방영되며, 역도산 붐이 일고 있다. 경제침체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인지도 모른다.

## 잊을 수 없는 고향신전

역도산에게도 고독한 순간이 자주 있었다고 전한다. 방안에서 혼자 있을 때면 문을 잠그고서 고국의 방송을 들으며, 아리랑 노래를 자주 불렀다고 한다.

강철의 몸을 가진 그도 외로울 때면 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술에 취하면 곧잘 불렀다는 노래는 “푸른산 저 너머로 멀리 보이는 새파란 고향하늘 그리운 하늘”이었으며, 전쟁과 동족상잔으로 분단되어 갈 수 없는 조국을 향하여 “언제나 고향길이 그리울 때면 저 산너머 하늘만 바라봅니다”고 했을 것이다.

그가 애창한 일본노래는 한국계 일본가수가 노래한 “울지 마라 여동생아”였다고 한다.

“울지 마라, 여동생아, 울지를 말라

울면은 어릴 적에 우리 둘이서 고향을 떠난 보람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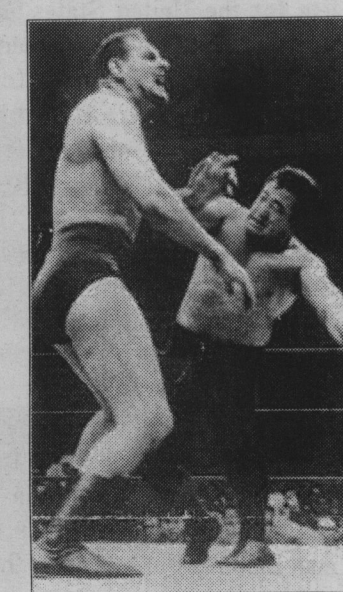
세계정상을 향해 훈련을 거듭하는 역도산이나, 일본 사회의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대다수 교포는 고향을 버리고 온 타향살이 신세였으며 “고향을 버리고 온, 보람이 있는 인생을 찾아서” 노력해야만 한다는 슬픈 사연을 안고 있는 점은 마찬가지였다.

남과 북에서는 그를 포섭하려고 했지만 그는 아무 쪽도 편들지 않고, 비난한 적도 없다.

죽기 1년 전인 1963년 1월 그는 비밀리에 한국방문을 했으며, 판문점에 돌렸다.

북풍 내리치는 추위에 그는 상의를 벗고 고향 땅을 향해 혼자말로 외쳤다고 전한다.

조국의 분단을 슬퍼하는 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 재미과학 기술자협회(KASEA)

### 제1회 全美洲 數學경시대회 개최

재미과학기술자협회(회장 성낙호 동문, 공대 60년 입)에서 주최한 제1회 全美洲 수학경시대회가 2002년 4월 20일 MIT를 비롯하여 미주 전역에서 열렸다.

4학년부터 11학년까지 참석한 이 경시대회에는 뉴잉글랜드를 비롯하여 LA, 샌디에고, 워싱턴, 시카고, 미네소타 등 8개 지역에서 천여명의 한인학생들이 참여하였다. 한편 MIT에서 열린 뉴잉글랜드 지부(지부장

김동환동문, 공대)의 경시대회에는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등 미동북부지역에서 까지 100여명의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서로의 수학실력을 겨루었다.

매년 높은 반응을 보인 이 경시대회는 뉴잉글랜드에서만 벌써 11번째 열렸으며, 올해에는 미주 전역으로 확대하여 전미 수학경시대회로 열렸다. 앞으로 많은 동문 자녀들의 참여가 있길 바란다.

(투고자 NE 변종원 동문)

추억의窓

신분증·시계는 술집과 식당에 맡기고 벽화처럼 다방에서 진중일 버티기도

吳京煥(63년 미대졸, 한국 종합예술학교 미술원장)

필자의 대학생활은 대학로에서의 시작과 끝이다. 요사이에도 미술전시나 연극을 보러 종종 그곳을 찾는다. 문리대 운동장이었던 장소이다. 공대, 상대, 농대를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은 이곳에서 체육을 했었고, 서울대 공식행사는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필자는 그곳에서 입학식을 했고, 졸업식 날에는 요행히 답사를 읽었다.

후배 여학생의 부친이셨던 문선생님이 체육교수이셨는데, 그분

혼자서 거의 모든 대학로 학생들의 체육과목을 담당하신 것 같다. 너무 많은 학생을 다 지도할실 수 없어 주로 공을 내주시고 학생끼리 놀게 하셨다. 또한 평가를 일일이 할 수 없어 면접으로 대신했다. 필자는 키가 크지않아 신체 발육 불량으로 C 학점을 통고 받고 아연했으나 이의 신청을 포기했다. 운동을 소홀히 해 키가 크지 않았다는데 할 말이 있겠는가?

종로통에는 두 개의 세노강이 있다. 연건도, 동송동을 가로질러

청계천으로 흐르는 지류와 한강으로 흐르는 북개이전의 청계천이다. 대학전이 젊음과 낭만의 대명사라면 청계천은 전쟁후의 가난과 남루의 상징 자체였다. 연건동 세노가 밝고 긍정적인 우리 생활의 8할이라면 후자는 음습한 2할이었다. 지난 3월 전시회에 그 당시의 청계천 소품을 내걸었는데, 동년배들의 인기폭발로 경매사태까지 갈 뻔했으나, 그 동네 살았던 사람이 가져가 버렸다. 많은 친구들이 그 그림을 보며 주로 어두웠던, 잊을 수 없던 추억을 이야기했다.

이상과 고뇌, 좌절을 청년시절 누구나 갖는 공용어다. 화가 루오, 뭉크, 뷔페나 철학자 사르트르, 까뮈등은 우리들의 司祭였다.

명동의 은성과 돌체가 OB 케빈, 르네상스로 이어지는 시대였다. 김승욱 소설처럼 虛妄했고, 김수영처럼 푸른 광기를 발했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하는 노래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신분증과 시계는 학교근처 술집 식당에 저장되었고, 학림, 문호동 다방에 가면 벽화처럼 진중일 버티기도 했다.

權玉淵, 金興洙선생님은 파리에 서 막 도착하시어 파리 전염병을 전파시켰다. 설악산을 그리는 선배 金宗學동문은 마치 오랫동안 파리에 살다운 사람처럼 파리의 골목 골목을 꿰뚫고 있었다. 李滿益동문은 청계천 娼街앞 개울시 궁창에 큰 캔버스를 펼치고, 여자

들의 환성과 야유를 받으며 열정적으로 그렸다. 교수 중 학생들의 인기를 온 몸에 받았던 故 張旭鎭 선생님은 산상수훈이 아닌 술상강의의 나날이었다.

여름방학, 남들은 대천으로 떠날 때 최초로 시작된 우리 ROTC 들은 수색사단에 가서 얼굴에 염전을 만들어 가며 땀을 흘려야 했다. 훈련 떠나는 우리를 배웅하는 여학생들의 안쓰러운 눈망울을 耳順이 넘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혼란스러웠으나 배고팠고, 슬프고, 아름답던 시절이었다.

서울동창회보(2002년 5월 15일 3면)

美/國/時/論

歐洲에서 보는 Bush의 外交政策

HAMBURG, Germany Europeans love to reach for the imagery of the B-movie Western when criticizing a new American president especially if he is a Republican from Texas. Accordingly, President Bush is portrayed as a dolt on a stallion, emptying his six-shooter every which way, mainly at peace and global understanding.

Never mind that in Hollywood Westerns the cowboy almost always protects the weak and punishes the willful, thus upholding the European knight's code of chivalry. What the caricature obscures is Mr. Bush's skill in designing a post-cold war diplomacy for the last remaining superpower. His strategy, in fact, owes much to the hub-and-spokes approach pioneered more than a century ago by one of Europe's greatest diplomats, Chancellor Otto von Bismarck of Germany.

What is the critical strategic problem for the United States, a nation that dwarfs all others in terms of "hard" (military) and "soft" (cultural-economic) power? It is how to prevent the rest of the world from unifying against No. 1. After unification in 1871, Bismarck's Germany found itself in a similar position in Europe: more powerful than any other country, yet threatened by the resentments of all.

The United States is Bismarck's Germany on a global scale. Its power is more overwhelming than that of any previous hegemon since the Roman Empire. For example, the entire

world spends about \$800 billion on defense; the United States accounts for about \$380 billion of the total, more than the spending of the next 14 nations combined. Its "soft" power is also unmatched; in industries as diverse as movies and airplanes, its products dominate the world, as do its universities.

In 1877, Bismarck decreed an "iron rule" for German foreign policy: to work out a "political situation in which all the powers need us and are kept as much as possible from forming coalitions against us." What is Mr. Bush doing? No pontificator he, but look at how his diplomacy is unfolding.

Start with Russia, where Mr. Bush celebrated his new friendship with President Vladimir Putin last weekend. For 40 years, Moscow and Washington haggled over every nuclear missile in their silos. Now, they are slashing their nuclear arsenals by almost two-thirds with a stroke of the pen. Still more important is the symbolism: Here is Mr. Bush pinning the badge of equal superpower status on Mr. Putin. Since Sept. 11,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have formed a close partnership.

The appropriate metaphor is that of the United States as the hub and all the other major players as spokes converging on Washington. President Bush is now assiduously polishing these spokes.

He has turned Russia into a key

ally. He has edged India into the American orbit even as he enlists the aid of Pakistan in America's war on terrorism. He has toned down the rhetoric against China with the result that Beijing is no longer throwing wrenches into the American works. Ditching an earlier policy of neglect, Washington has offered itself as indispensable mediator in the Middle East. Finally, Mr. Bush has begun mending fences with Europe by flattering France and Germany, the key players in the European Union, with well-choreographed visits to Berlin and Paris last week.

The name of this game is to have better relations with the spokes than they have with one another. Of course many of these countries have formed alliances of their own: the European Union is an example, as is Asean. But they have not allied themselves against the United States, nor has Russia or China created such an alliance.

What's missing in this strategy is a sense that the prescription is more than just self-serving. When Europeans berate Mr. Bush for his unilateralism, they are really asking the United States to become more responsive to their needs and concerns to be more a seeker of consensus than a builder of coalitions. Indeed, when they listen to Defense Secretary Donald Rumsfeld proclaim that the mission determines the coalition, and not the other way around, they hear: "Don't call us, we'll call you." This riles their souls, and rightly so.

So the Bush administration might think about adding a bit of Franklin Roosevelt, Truman and Eisenhower to its Bismarck formula. These three presided over the golden era of United States diplomacy. They took care of American interests by taking care of the interests of others. Above all, they built international institutions like the United Nations, NATO,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at embedded America's welfare in the well-being of the rest of the world. Today, however, the United States is more likely to rend than to mend the international fabric.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recently imposed punitive tariffs on steel imports for transparent domestic reasons. It also increased government farm subsidies by two-thirds over the next decade. Neither measure is good for international trade, but what's even more puzzling about both of them is that they run against the self-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he world's largest exporter.

So the best rule for an unchallenged No. 1 is this: Do good for the rest of the world in order to do well for yourself. This is not the counsel of woolly-headed sensitivity training, but of hard-nosed realism. Bismarck would undoubtedly approve.

(저자 ;Josef Joffe is editor of the German weekly Die Zeit and an associate at the Oli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at Harvard 이 월제는 'Bismarck's Lessons for Bush'이며 NYT 5-29-01에서 전재)

### 정년퇴임 교수 프로필

#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교에서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교수 23명이 지난 2월 28일 정년퇴임식을 가졌으며, 명예교수로 추대됐다.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高永根교수·국어국문학

61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현대 및 중세 국어의 형태론과 통사론 등 국어학 분야에서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어학 학술지 「형태론」의 편집 대표 등을 역임.



朴熙鎭교수·영어영문학

59년 師大卒. 미인디애나대학 문학박사 학위.

71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영미문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 「버지니아울프 연구」 등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한국아메리카학회 회장, 모교 여교수 협의회장 등을 역임.



崔淳鳳교수·독어독문학

59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독일문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기여. 「토마스 만 연구」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한국독어독문학회 이사, 모교 인문대 교무부차장 등을 역임.



鄭智榮교수·불어불문학

61년 文理大卒. 佛그르노블대학 문학박사 학위.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불어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 번역서 「피보가의 사람들」을 포함한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한국불어불문학회장 등을 역임.



李炫瓚교수·언어학

59년 文理大卒. 英런던대학 일반언어학 및 음성학박사 학위.

70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음성학 및 언어학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기여했으며, 대한음성학회 회장, 한국언어학회 회장, 남방문화연구회장, 모교 시청각교육관장 등을 역임.



吳謙錫교수·서양사학

59년 師大卒. 모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

70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서양사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 「독일현대사」 등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역사교육연구회장, 한국서양사학회 회장, 모교 인문대 문학연구소장 등을 역임.



金瓚東교수·사회학

59년 文理大卒. 美코넬대학 사회학박사 학위.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사회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사회학회 회장, 모교 사회과학연구소장,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상임이사 등을 역임.



金載周교수·통계학

60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 공학박사 학위.

68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통계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 「현대통계학」, 「신뢰성공학」 등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한국품질경영학회 회장, 한국신뢰성연구회장 등을 역임.



李敏浩교수·물리학

62년 文理大卒. 美미조리대학 물리학박사 학위.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물리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 「현대물리학」을 포함, 중고등학교 물리교과서 다수를 집필했으며, 육군기술연구소 물리연구원 등을 역임.



張浚成교수·물리학

59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 공학박사 학위.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물리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 「현대광학」 등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모교 자연대 교무학장보·물성과학연구소장, 한국광학회 회장 등을 역임.



權奉命교수·생명과학

60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 이학박사 학위.

67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식물생리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 「광합성」, 「식물생리학」, 「일반생물학」 등 다수의 대학교재를 집필했으며, 한국식물학회 회장 등을 역임.



朴龍安교수·지구환경과학

61년 文理大卒. 獨길대학 이학박사 학위.

67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해양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 「한국의 제4기 환경」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한국해양학회 회장, 모교 해양연구소장 등을 역임.



朴英一교수·농생명공학

59년 農大卒. 美아이오와주립대학 농학박사 학위.

66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동물육종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축산학회 회장,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 회장, 모교 실험목장장·축산과학기술연구소장 등을 역임.



禹建錫교수·농생명공학

59년 農大卒. 모교 대학원 농학박사 학위.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곤충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응용곤충학회 회장, 한국곤충학회 이사, 모교 농과대학 학생학장보·양봉과학연구소장 등을 역임.



尹明老교수·서양화

60년 美大卒. 美뉴욕프랫그래픽센터 관화전공 수료.

72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서양화 및 관화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 「모더니스트들의 도전과 환상」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한국현대관화가협회장 등을 역임.



李好琿교수·법학

58년 法大卒. 모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민법과 국제사법의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 「국제사법」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 모교 법학연구소장 등을 역임.



崔基元교수·법학

59년 商大卒. 獨본대학 법학박사 학위.

66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상법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 「회사법신론」 등 50여 권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한국경영연구원장, 상사법무연구회장 등을 역임.



林承權교수·교육학

60년 연세대 師大卒. 고려대학교 교육학석사 학위.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인간발달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학과장, 모교 교육종합연구원 특수교육연구부장 등을 역임.



朴承載교수·물리교육

59년 師大卒. 美북콜로라도대학교 교육학박사 학위.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물리 및 과학 교육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교과교육학회 창설회장, 서울시교육청 교육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



張楠基교수·생물교육

60년 師大卒. 日동북대학 농학박사 학위.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생태학·생물교육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생물교육학회 회장, 한국생태학회 회장, 한국과학교육학회 회장, 한국 행동생물학회 회장 등을 역임.



李殷芳교수·약학

59년 藥大卒. 日동경대학 약학박사 학위.

72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천연물의 약물학 및 그 성분학적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생약학회 회장, 한국응용약물학회 회장, 모교 천연물과 학연구소장을 역임.



李純炯교수·의학

62년 醫大卒. 모교 대학원 의학박사 학위.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인체기생충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풍토병연구소장, 모교 의과대학장, 대한기생충학회 회장,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장 등을 역임.



李鍾昕교수·치의학

61년 齒大卒. 모교 대학원 치의학박사 학위.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구강생리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대한구강생물학회 회장, 대한생리학회 회장, 모교 치과대학 치학연구소장·치과대학장 등을 역임.

# 知性人의 동창회보와 商業광고

## 광고가 있어야 동창회보가 산다



이윤모

<농대, 61년 졸업>

격조있는 매체의 절벽 끝 같이 인지하는 동문들도 있다. 한국의 정치파벌 경쟁에 연루된다고 하여 일체 정치성 광고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국의 정치무대를 주름 잡는 허다한 서울대 동문들을 동창회보에서 배제한다면 “동창회보는 모든 동문회원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강령’(mission statement)은 오류에 빠진다.

서울대 동문인 이회창 후보가 광고를 의뢰해 오면 당당히 게재해 주되 동시에 그의 라이벌인 노무현 후보에게도 광고 게재를 타진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동문 정치인이 활용하겠다는데 동창회보가 거부하는 것이 과연 동문을 돕고 사랑하는 일인가? 국립대학교 동문 매체이니까 어느 편을 들면 불공정하겠으니 “동등한 지면 크기와 위치에 같은 시기에 게재한다”(equal opportunity equal space size)는 원칙을 지키면 된다. 원칙도 살리고 실리적일 수도 있어 이는 “뽕 먹고 알도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에는 구독료 납부 회원명단이 매호마다 2페이지씩 게재된다. 그리고 또 미주 ‘관악후원회 후원금 납입서’와 ‘모교와 후진을 돕기 위한 1백만 달러 기금 납입서’는 별도로 게재된다. 신문제작 자금을 위해 고심해 온 역대 총동창회장들이나 현임 이용락 회장의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그런 모교 호소 지면에 드러난다.

열악한 조건에서 언론에 생애의 3분의 1을 보낸 나의 관점에서 보면 동창회보 발간 재원으로서는 잠재력이 큰 광고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 우선 광고를 동창회보에 게재하고 광고료를 낼 고객들이 있느냐가 의문이었지만 5천명 이상의 정기 구독자가 있는 한국어 매체는 지역 동포사회의 일간 신문이나 준비한 주간지들에 비하면 대등한 광고 매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창회보가 광고 재원을 거의 동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광고주가 전혀 없다는 외적 조건보다는 광고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동문들의 긍정적 인식이 약한

내부 조건이 더 문제인 듯 하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했거늘 그 뜻을 꺾는 내부 여건이 광고 활동을 저해하고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상아탑의 순수한 이상을 연장하는 매체이므로 상업성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동문들의 시각이 그런 것이다. 귀한 지면에 매달 별로 늘지도 않는 구독료 납부자 명단을 계속해 게재하기보다는 유료

광고를 짜 내는 구상을 하자고 시카고의 회보 제작팀 회의에서 거론된 일이 있다. 그런데 사정이 궁하더라도 동창회보의 체신을 지켜야 한다는 점잖은 이유가 많아서 별로 진전이 없었다. “양반은 물에 빠져 죽어도 개헤엄은 안 친다”는 잠재의식은 우리 한국적인 지식인들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 잠재 의식 때문에 미국인들 사이에서 일하는 나도 종종 손해를 본다. 그러나 신문사 기자로 출발

해서 편집인으로 퇴직하고 시카고 한국 케이블 TV 경영을 하기까지 21년 동안에 터득한 것은 광고 없는 언론 매체는 존립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 인



쇄 매체나 영상 매체, 그리고 그것들을 절충한 인터넷 매체 그 어느 것도 광고를 배제하고 존립하는 것은 없다. 단지 큰 재벌이나 재단의 간행물을 예외이지만... 세계적인 뉴욕 타임스나 시카고 트리뷴, LA 타임스 일요일 판을 보면 그 근엄한 ‘사실’의 논조 보다는 광고들이 위압하는 매체임을 실감하게 된다. 신문은 구독료 보다 광고료로 운영된다. 월간 잡지들도 그렇고 도시의 가판대에 설치되는 온갖 간행물들은 광고비 덕분에 대부분 무료로 배포된다. 광고를 보며 무료로 보는 주요 네트워크 TV들이 어떤가는 굳이 부연할 필요가 없다. “양반이 개 헤엄을 안 칠려면 개구리 헤엄이라도 배워서 살아야 한다”는 생존 원리가 언론 매체에서는 용서 없이 적용된다.

여하튼 동창회보에 ‘대 서울대학교의’ 체신을 구기는 광고는 아직 게재되지 않고 있지만 구독료 납부자 명단에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1년 열두 달 반복해서 나오는 것도 모양새가 좋은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기존 납부자 1천125명”이라는 단서 옆에 신규 납부자 명단만 내고 나머지 지면은 유료 광고를 내는 것이 합리적이다.

광고는 자금을 동원할 뿐 아니라 독자를 위한 정보 서비스의 연장이다. 동문 사업체나 모국과 미국 주류 사회의 사업 광고는 동창회보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실용 정보를 제공한다. 동문이 관여하고 있는 사업-회원들의 은퇴에 대비한 저축이나 투자사업, 은퇴 후에 영주할 주거지 부동산 개발 사업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체의 광고를 내면 (설혹 그 기업주나 재벌의 배경이 동문이 아니더라도) 동문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건강 관계 정보는 종교 신앙보다 더 긴요한 것이다. 병을 치러본 사람들은 더욱 그 사실을 실감한다. 그러나 이마의 주름을 펴는 ‘보타스’나 신경통을 다스리는 ‘셀레브렉스’ 광고를 주요 제약회사들이 내 준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다. 어느 동문이 동창회 아우회나 이사회 모임에 와서 ‘서양의학의 대안으로서 한방의학’(alternative medicine) 얘기를 하면 여러 사람들이 흠이 있게 듣는다. 그런데 그 동문이 한방사업 광고를 동창회보에 내겠다고 했을 때 그 신뢰도를 점검하고서도 거부할 것인가? “서울대 동문들 중에 다수인 의사들과 과학자들의 반발의 의

식하고 주저할 만하다. 그러나 명의들조차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실토할 때까지 끌고 가기 전에 ‘대안’이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정보를 알리는 것이 독자에 대한 봉사라고 나는 주장한다.

또한 전문가 집단의 규모와 명성에 차이가 있다 하여 소수 동문이 동창회보를 활용할 권리가 묵살된다면 그건 “서로 돕고 사랑하는 동창들의 모임”이라는 명분이 무색하게 된다. 또한 과학은 다수 지배의 민주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10만 분의 1 변수가 생명을 구하는 처방을 창출하기도 하고 의료 실수(malpractice)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과학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이탈한 변수를 추구함으로써 발전한다.

인간 사회 조직도 소수의 이 변수를 배제하기 보다는 권장함으로써 더 발전한다. 독자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정보의 베네프트를 인식하는 것이 구독료 납부 회원 명단을 매회 게재하고 회원간에 “돈내기” 장려 기사를 게재하는 것보다 더 떼떽하고 실리적이다.

또한 동문 정치인들의 홍보 내용을 동창회보에 게재하는 것을



먹는다”는 셈이다. 지금 대로 가면 “뽕은 커녕 알조차도 못 먹는” 형국이 될 것이다.

정치 기사나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는 나의 주장은 실리는 물론이고 그런 게재 의뢰를 받을 만한 매체로서의 사명과 긍지도 중요하다고 나는 본다.

우리 민족의 지성을 대표한다는 서울대의 동창회보(서울 본부의 회보를 포함)가 정치 파쟁에 도구로 전락할까 우려하여 논조를 펴거나 홍보를 하지 않으면서 고고한 자세만 지키면 세금으로 서울대를 뒷받침 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가슴마다 성스러운 이념을 품고, 이 세상에 사는 진리 찾는 오누이들... 이 나라와 이 겨레의 크나큰 보람”이 허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정치의 진흙탕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묘안을 내던가 피동적으로라도 그 길로 유도하는 매체로 기능하기를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이 명제는 간행물 자원 마련을 위한 구차한 방책이라기 보다는 동창회보의 사명과 기능을 정의하는 기본적 토의에 속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 조수미 초청음악회 실황 녹음 CD 판매 "Love from Washington"

소프라노 조수미(Sumi Jo) Washington, DC Concert (2001년 8월 25일)에서 실황 녹음하여 제작된 CD를 500개 한정판으로 우편 판매한다. 이 판매 대금은 관악후원회와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으로 사용된다.

가 격 : CD 1개당 \$15(송료는 첫 한 개에 \$3 복수 구입 시 개당 \$1 추가)  
구매수량(1인당): 제한 없으나 500개의 제한된 수량으로 선착순 주문 판매함(30면 상단에 주문서를 기입하여 가격과 우송료를 포함한 수표를 아래로 보내시기 바람).

주문처 :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사무국  
SNUAA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전화: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unaaua@anuaa.org

\* 수표는 Payble to SNUAAUSA로 작성 바람.

SNUA OPINION LEADER

# 생명과학과 정보기술의 만남

최근 바이오 미세 전자기계 시스템 기술을 이용해 별도의 기기 없이 인간의 DNA를 분리, 검사할 수 있는 초소형 마이크로칩이 나왔다. 이는 바이오 벤처기업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張교수와 그 연구진들이 개발한 것. 이 작은 칩 하나로 연구소나 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실험 및 검사과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용도, 모양 등으로 맞춤 설계 및 제작도 가능하다. 이에 張교수로부터 이러한 첨단 생명공학용 실험 기기들에 대해 들어보았다.

2001년의 가장 큰 바이오산업의 뉴스로 많은 사람들이 인간 유전자 지도의 완성과 줄기세포(stem cell)와 체세포의 복제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이용한 다양한 바이오산업이 출현하면서 암, AIDS와 같은 난치성 질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통한 인간 수명의 연장 과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질 높은 삶을 꿈꾸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적인 희망을 현실화시켜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술적인 진보가 필요함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인 진보는 단순히 생명과학 기술의 발달만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우리는 생명과학 연구실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유용한 정보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다 신뢰성 있고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하고, 이를 더욱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정보기술(IT)을 생명과학 기술(BT)에 접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 예로, 인간 유전자 지도의 완성을 살펴보면 이는 유전공학과 분자생물학의 발전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성과들을 다시 보게되면 우리는 금세 IT 기술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즉, 보다 많은 염기 서열의 순서를 동시 다발적으로 찾아 낼 수 있는 새로운 실험 장비의 출현이 있었기에 이러한 엄청난 성과가 가능했던 것이다. 생명과학 연구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수작업을 통해서 얻어 낼 수 있는 유전 정보를 새로운 첨단 기계들은 단 몇 분 안에 획득함으로써 우리는 엄청난 인간 유전 정보를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인간 유전자 지도를 완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생명과학 혹은 의학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초소형의 첨단 분석 기기, 진단 기기를 개발하는 기술을 바이오멤즈(BioMEMS: Bio 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이라고 한다. 이는 새로운 생명과학의 엄청난 발전과 연구 업적들을 이미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는 IT 산업에 연결함으로써 이러한 생명과학의 업적을 산업적으로 활용, 응용하는 데에 필요 불가결한 「도구(tool)」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더불어 새로운 생명과학의 연구와 발전, 치료법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장비와 진단기, 치료기 등의 도구(tool)로 보다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Genome Project를 통해서 확보된 인간 유전자에 대한 막대한 정보의 효율적인

## 생명과학·의학에 활용될 수 있는 초소형 첨단 분석기 「바이오멤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활용과 새로운 의료 및 생명공학 산업 환경을 위한 필수 핵심 기술로서 점차 중요성이 더욱 높게 부각되고 있다.

반도체 칩 제작 기술에 그 근간을 두고 있는 바이오멤즈 기술은 반도체의 메모리 칩 등에 이용되는 실리콘 웨이퍼, 플라스틱 등과 같은 재료의 미세 가공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검사, 치료, 처치 등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일련의 아주 작은 전기-기계-생물-화학 복합시스템, 그리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제반 기술을 말한다. 제작된 시스템의 크기는 주로 수 마이크로미터(1/100000 미터)에서 수 밀리미터 정도의 크기를 가지게 되며, 유전자 검사에 널리 이용되는 DNA칩(DNA Chip) 역시 이 기술의 한 응용으로 이해하면 된다.

최근에 이 기술은 더욱 발전해서 생명공학의 업적을 일반인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는데, DNA칩 등 일련의 바이오칩 실험 과정 자체를 소형의 플라스틱 칩 상에 구현하는 랩온어칩(LOC: 랩칩 혹은 마이크로플루이딕칩)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기술 선진국에서는 DNA 칩, 단백질 칩과 더불어 신약 개발, 독성 검사, 질환 진단 등에 널리 활용 할 수 있는 기술로서 랩온어칩 기술이 포괄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벤처기업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생명공학 실험실용 첨단 장비는 물론 휴대가 가능한 개인용 진단 분석기의 개발에 필요한 핵심 바이오멤즈 기술이 확보되고 있다.

특히 대표적 바이오멤즈 기술의 성과 중의 하나인 마이크로어레이칩은 DNA 나 단백질 등을 기관 위에 미세하게 배열해 고정하고, 분석 대상 검체와 반응시켜 특정 DNA 혹은 단백질의 유무에 따른 반응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유전질환 등의 각종 질병을 진단하는 것으로 국내외의 많은 업체들이 상품화를 완료 하였거나 준비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이크로어레이칩을 이용한 유전질환의 임상적 검사를 위해서는 바이오칩의 준비, 유전자 증폭 등의 분석 대상 시료에 대한 복잡한 전처리 과정, 반응의 유도 및 바이오인포매틱스(bio-informatics)를 이용한 데이터의 분석 등의 복잡한 과정이 필수적

이다. 또 이러한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숙달되고 잘 훈련된 전문가와 고가의 다양한 부가 장비가 요구되며 이러한 제한점이 유전자칩을 환자에 대한 질환 진단용으로 널리 쓰이는 데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실험자의 숙련도나 고가의 전용 장비의 유무에 관계없이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일련의 검사 과정 전체를 소형의 플라스틱 칩 상에 구현하는 랩온어칩 기술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수 나노리터에서 수십 마이크로리터의 시료를 정확하게 이송, 분배, 혼합하는 「극미량 유체제어 기술(마이크로플루이딕스, Microfluidics)」 기술과 극소형 일회용 플라스틱 미세 가공물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에 근간을 둔다.

랩온어칩(Lab-on-a-chip)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기술은 하나의 생물학 실험실, 혹은 임상검사실(lab-)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의 (-a-chip) 상에서 (-on-) 간단하게 구현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플라스틱 칩을 구동하고 분석하는 부가 장비의 소형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곧 실험실을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됨을 말하며, 이는 또한 실험 과정에서 시료의 분배 등을 위한 파이펫 등의 스포이드, 각종의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plastic ware)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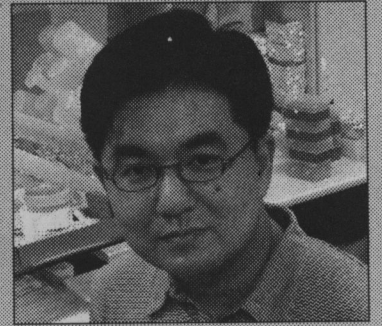
## 작은 진단 분석기를 개인이 가지고 다니며 질문과 건강여부를 확인하는 시대가 에고된다

을 이용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험 및 분석 과정을 작은 플라스틱 칩 상에서 구현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의학적, 생물학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이는 병원 및 실험실의 현장, 보건소, 학교, 전쟁터, 환경 조사 현장, 산업 현장 등 즉각적인 정보 획득의 수요가 있는 모든 곳에서 랩칩 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존의 유전자칩은 랩온어칩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며, 유전자칩을 검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고가의 장비와 고급 인력이 필요 없게 된다. 의사는 환자의 곁에서 유전질환 검사, 혈액 검사, 간기능 검사, 독성 검사 등 일련의 검사를 즉각적으로 수행하고 검사 결과를 획득할 수 있게 되며 임상검사실의 검사 결과 통보를 기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과 처치를 할 수 있다.

또한 랩온어칩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환자의 혈액이나 조직의 채취가 최소화 되어 환자의 고통이 줄어들며, 신생아나 소아와 같이 많은 양의 혈액 채취가 불가능한 환자에게도 보다 양질의 의료



張 準 根

- 1990년 모교 공대 졸업
- 1992년 모교 대학원 석사학위
- 1995년 모교 대학원 박사학위
- 1995~2000년 모교 정밀기계설계 공동연구소·의학연구원 의공학 연구소 특별연구원
- 현재 모교 공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 (주)디지털바이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WTO 체제 하에서의 병원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아울러 생명공학자들은 대형 공용 장비 없이도 고난이도의 연구, 신약 개발 및 스크리닝 등을 수행 할 수 있게 되어 연구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산업적, 사회적 파급 효과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IT 기술과 결합한 생명과학 기술은 병원의 임상 검사실과 같은 기능을 하는 작은 진단 분석기를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의 질환과 건강 여부를 확인하는 시대마저 예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21세기의 바이오산업은 개인화(personalized) 및 분산화(distributed)됨으로서 진정한 중흥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 기술을 산업적으로 이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BT 기술을 IT 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제조업과 연결해 새로운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새로운 생명공학적 발견을 위해서 우리는 보다 새롭고 정확한 분석기기와 정밀한 도구를 활용해야 하며, 이러한 첨단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新산업의 중심에서 있는 것이 바이오멤즈 기술인 것이다. 특히, 바이오멤즈 기술은 여러 가지 첨단기술의 융합 기술로 기술 진입 장벽이 높고 학제간의 공동 연구가 필수 불가결한 분야이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도 거의 없어 우리 나라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의 확산을 가능하게 했던 하드웨어 인프라로 모뎀, 광케이블을 든다면, 새로운 바이오산업의 중흥을 위한 인프라로 바이오멤즈를 응용한 첨단 생명공학용 실험 기기들이 새로운 「도구(tool)」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더 깊이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 남가주 소식

## 美大동문화 미국이민 100주년 기념전

남가주지역 미대 동문회에서는 미국 이민 100주년을 맞아 특별전 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시회는 5월 24일 부터 6월 2일까지 오전 11시 부터 오후 6시까지 LA 소재 Radio Korea, Do San Hall (626 S. Kingsley Dr., LA, CA)에서 열린다  
5월 24일 개막일 저녁(6시-9

시) 개최된 Reception에는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임낙균)를 비롯하여 상대(회장 심상은) 및 치대(회장 이장길) 동창회에서 화환을 보내오고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우의를 돋보이게 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연락처 : 김옥경 미대회장 (818) 242-7268)



사진 1-서울미대 이민 100주년 기념 전시장에서 작가들 기념촬영.  
좌로부터 김순진, 배맹자, 김경옥, 심혜자, 박다애, 김윤진, 백해란, 박혜숙, 손남수, 김옥경(미대회장), 김명숙, 아래 좌측부터 윤정숙, 김구자 동문.  
사진 2-서울미대 전시회; 작가와 임낙균 회장과 Mrs. 임낙균 박혜숙  
사진 3-Mr. 심상은(상대 54입)회장과 Mrs. 심상은  
사진 4-서울간 김헬렌 동문작품 앞에서 남편인 김원철(서울농대)동문.  
사진 5-미대 회장 김옥경(왼쪽)동문과 남가주 동창회 사업국장 백옥자 동문.  
사진 6-전시장 전경.

## 2002년 山岳축제

다음과 같이 등반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동문들의 참가를 바랍니다.

- ◇일 시 : 7월14일 일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Mt. Islip(편도 2.5마일 / 소요시간 2시간)
- ◇준비물 : 방한복, 스넥, 물 등 점심지참.
- ◇집합장소 : Mt. Islip Saddle Parking Lot에서 오전 10시
- ◇연락처 : 오희조 재미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전화 213-382-8205  
김동근 선임이사, 805-499-3191  
조경일 진행위원장, 714-703-2824  
남가주동창회 사무실, 213-365-9669(오후 4:30-7:30)
- ◇지도는 백옥자 사업국장에게 요청하여 참조.  
3700 Wilshire Blvd., Suite 960 LA, CA 90010  
Tel. 213-365-9669/ Fax. 213-365-1686  
\*참석여부를 7월5일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학천 동문 남가주 한인치과의사협회 차기회장으로 선출

김학천 동문(치대 71년 입)이 남가주 한인치과의사협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2004년부터 2005년이다.  
金 동문은 현재 Archibald

ental Office에서 General Practitioner로 근무하고 있으면 앞으로 한인사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봉사할 것을 다짐하였다.  
(연락처 전화: 909-923-6622, 팩스:909-923-3143)



##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단 모국 방문 모교 복싱팀 LA 방문 시합 예정

남가주 총동창회 임낙균 회장(약대 64년 입)과 김지영 총무(사대 69년 입)는 지난 5월 16일 모국을 방문하여 총동창회 신임 임광수 회장과 이기준 母校 총장을 내방하고, 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모교 재학중인 후배 복싱팀이 오는 8월 15일(목요일) LA를 방문 시합을 가질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추후 발표 예정이며 많은 동문들의 성원을 바란다.  
(연락처, 남가주 총동창회 사무실 213-365-9669)



## Hollywood Bowl "同窓 가족의 밤" 개최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임낙균, 약대 64 입)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8월 24일(토) Hollywood Bowl 에서 동문 및 그 가족들을 모시고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즐기며 동문들간의 친목을 나누고자 한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Picnic Time에는 각자 준비해온 음식물로 서로 환담을 즐기고, 저녁 8시 30분에 시작되는

"Tchaikovsky Spectacular"를 감상하게 된다. 입장권은 \$11.00 혹은 \$20.00이 될 예정이다. 입장권 예매를 위하여, 각 단과대학 회장은 6월 25일까지 참가자 명단을 남가주 총동창회로 알려주기 바란다.  
연락처: 이영혜동문 714-809-4481 혹은 4시이후 동창회 사무국 213-365-9669





### 하트랜드지역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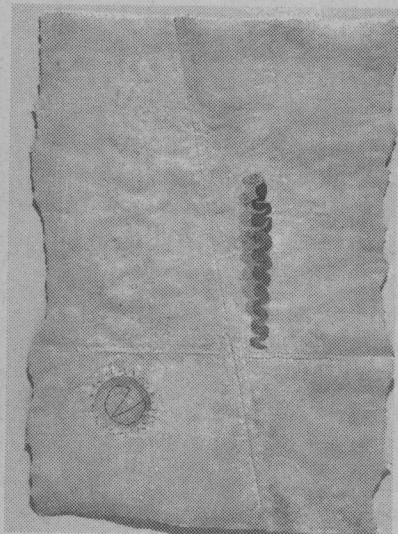
## 오계숙 동문 Paris 작품전

5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Kansas City에 거주하는 오계숙동문(미대 63년 졸)이 5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프랑스 파리, "Galerie Lefor Openo"에서 혼합재료 작품 20점을 전시하고 있다. (아래의 Artist statement 참조)

동 전시기간은 "Saint Germain Des Pres" 화랑街에서 연례 Art Fair를 하므로 100여 개의 화랑들이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5월 23일(목요일)에는 뭇동문을 위한 Opening Reception이 있었다. 유럽여행을 계획중인 동문들의 많은 참관이 있기를 바란다.

뭇동문은 회보 #94호(14면 2001. 12. 4)에 소개된 바와 같이 여성들이 일반가사에서 구할



수 있는 소재와 한국전통 창호지 (rice paper)등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해와 미 주류 언론에서도 좋은 평을 받고 있다. 또 뭇동문은 하트랜드 지부 이



교락 전임회장의 부인이며 오인석 재미 총동창회 명예회장의 여동생이기도 하다. <전시회장 주소 : Galerie Lefor Openo, 29 Rue Mazarine, 75006 Paris, France 전화/팩스 : 33 01 46 33 87 24

### <Artist statement>

This body of work represents research into my identity and into feminine aesthetics. Using tool and techniques from homemaking-- sewing, washing, ironing and gardening--the boundaries of drawing and painting are explored, merging artifacts from domestic life with art.

Sewn stitches and calligraphic strokes create storytelling symbols and images about the transformation of woman from my experiences as wife, mother and individual. I am a flower in the garden, waiting all winter long through many nights and bad weather, to grow and bloom under the sun.

I used rice paper or make handmade paper from worn-out lace dollies and egg cartons for my work. Images are made with stitching, calligraphy ink marker and pencil. Pigments are made with clay from the garden or calligraphy ink and mixed medium. Unwanted images are washed off with water; ironing is used to control the wrinkles. Sometimes several smaller works are sewn together in forms reminiscent of dish-towels, hand towels, blankets and other household items. Adopting techniques learned from homemaking has freed me to reveal my emotions and transform my ordinary everyday art form.

## 확대임원 이사회 개최

하트랜드 지부는 5월 11일(토)에 네브라스카주 링컨의 이상문 동문(상57)의 자택에서 확대임원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인 이상문 동문, 정동학 수석부회장, 김호원

이사장, 이교락 전회장 등을 비롯한 임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장학사업, News letter, 총회준비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논하였고 임원회에 앞서 Woodland Hills 골프클럽에서 친선을 다지는 골프대회를 가졌다.

## 이상문회장 母校 특강

하트랜드지부 회장인 이상문(상57) 동문은 Turfs의대를 졸업하는 차녀 Amy양의 졸업식 참석차 보스턴을 들린 뒤 고국을 방문하여 모교인 서울대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에 참여하여 "The Human Equation in the Networked e-Global

Age"라는 제목의 강연을 한 뒤 태국의 방콕을 방문하여 이동문이 회장으로 있는 Pan-Pacific Conference (PPC)를 주최하고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Global Competitiveness in a e-Global Age"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을 하며 PPC의 차기 개최지인 중국 상해의 Jiao Tong University (交通大)를 방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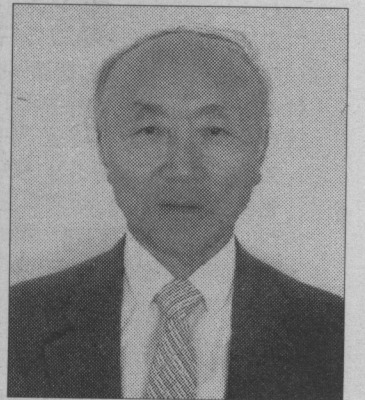


(투고자 장 명우)

### 아리조나지역 소식

## 신임회장 윤성수 동문(공대 59 졸, Ph.D)

신임 아리조나 동창회장 윤성수 박사는 59년 공대를 졸업하고 브라운대학에서 물리학박사를 받은 후 67년부터 2001년까지 오하이오대학에서 물리학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명예교수이다. 그는 또 IIT 및 Wright - Paterson Materials Lab, 일본 Chubu대학, GM 자동차, 보잉항공사의 객원연구원 및 자문과학자를 지냈다. 그리고 그는 재미과학자협회(KSEA)의 창립회원이며 75년 오하이오지부의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미국 물리학회 물리학과사협회 회원이기도 하다. 그의 연구업적으로는 45개이상의 물리학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고 또 많은 과학 기술관계학회, 학술 심포지움 등에서 발표하였다.



주소: Seung S. Yun  
15403 S. 13th Ave  
Phoenix, AZ 85045  
Tel: 480-283-9806  
e-mail : yunss @ cox.net

### 워싱턴지역 소식



오제트 호수 하이킹을 떠나기 전 세쿰 모텔에서 기념촬영한 시애틀의 서부 개척자 동문들.

## 올림픽 산맥과 오제트 호수 등반

지난달 4월 13일 14일에 양일간에 걸쳐 워싱턴주 동창회는 세쿰의 Red Ranch Inn(하유행 회장 경영)에서 첫 행사를 가졌다.

이 모임은 새해 첫 모임으로 윗놀이와 올림픽산 등반 그리고 오제트호수 하이킹 등의 일정으로 동문들간의 우호를 돈독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정의 첫 여정으로 동문들은 허리케인 리지의 올림픽 공원을 방문해 눈에 덮힌 웅장한 올림픽 산맥의 위용을 감상하였다.

이어 다음날 오제트 호수를 하이킹하며 태평양 해안의 미역을 채취하였다.

바닷가를 거니는 시슴떼와 엘크 무리들을 보며 아직도 태평양 연안에 이렇게 미 개발된 지역이 있는 것에 모두 찬탄을 금하지 못했다.

간간이 뿌리는 비를 맞으며 왕복 6마일의 등반 끝에 펼쳐지는 태평양 해안의 아름다움은 여독을 잊게 하였다.

동문들은 Strait of Juan de Fuca를 돌아 돌아오는 길 도처에 펼쳐지는 무지개의 아름다움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세쿰으로 와 새 첫 행사를 끝내었다.

(투고자 고희선동문)

### 뉴욕지구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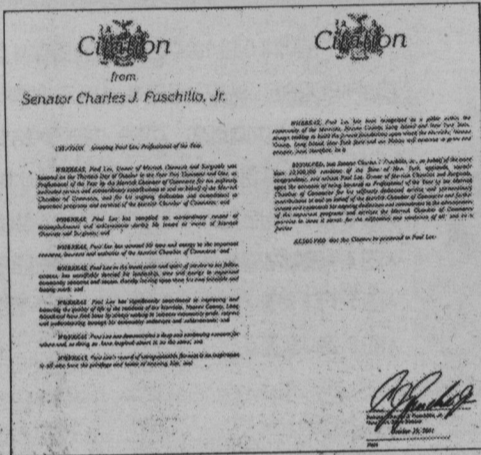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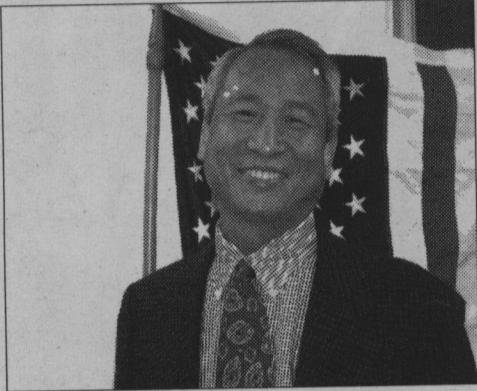


대뉴욕지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창회  
The Alumni Association of College of Pharmac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Greater New York  
136-73 41<sup>st</sup> Ave, Flushing, NY 11355  
Tel : (718) 358-3800 FAX : (718) 358-0835

### 李勝雨 동문(약대 67년 졸)

### 메릭 상공회의소 전문 직업인상 수상

뉴욕에 거주하는 李勝雨동문(약대 67년 졸)이 롱아일랜드 메릭 상공회의소(Merrick Chamber of Commerce)로부터 지난해 10월 30일 올해의 전문인상(Professional of the Year)을 수상하였다. 李동문은 1971년 모교 약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와 Brooklyn의 그리 포인트 병원에서 12년간 근무하고, 1983년부터 Merick 지역에 약국 "Merick Chemist"를 개업한 뒤 19년간 지역사회 고객들에게 친절과 성심으로 봉사해온 공로로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李(Paul Lee)동

문을 추천한 Carol Ball씨는 李 동문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전문 직업인의 모범이라고 칭송하고, 장애자인 자신의 아들이 많은 약품을 필요로 해 때로는 약값을 늦게 지불할 때도 있었으나 한번도 독촉한 적이 없으며 언제나 아들의 건강만을 염려하였다고 하였다. 또 미국인들이 9.11 참사 이후 많은 온정을 표하고 있지만, 李 동문은 그런 재난이 없더라도 항상 친절하다고 말하고, 李동문이 그간 지역사회 내 장애자들에게 보여준 인내심과 친절로 보아 그는 이 상을 수상할 적임자라고 하였다.

李동문은 수상소감에서 주민들이 자신을 선정해 줘서 감사하다고 하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다 행복하게 해 줄 기회가 온 것이며, 병자나 장애자들을 기꺼이 도우겠다고 말했다. 李동문의 부인은 Hofstra University 에서 노인학(Gerontology)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취재원: 중앙일보 뉴욕 2001년 11월 9일자, Merick Life 2001년 11월 1일자)

(투고자 성기로 동문, 뉴욕지구 약대 동창회장)

### 윤순철 동문(사범대 '44년 입)

###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20년간 뉴저지 한국학교에서 2세들의 교육에 기여

윤순철 동문(사범대 '44년 입)이 2001년도 유공동포 포상자로 선정되어 뉴욕총영사관(총영사 조원일)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 받았다.

윤동문은 지난 20여년간 뉴저지 한국학교에서 2세들의 교육을 위하여 힘써온 공로로 수상하게 되었다.

윤동문은 '78년 도미하여' 83년도부터 뉴저지 한국학교

한국어, 역사 교사로 활동하면서 2세 교육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후 교감(85-94), 교장(94-99)으로 재직하면서 뉴저지한국학교를 평균 재학생 4백여명의 모범적인 한국학교로 키우는데 힘써왔다.

윤동문은 은퇴를 훨씬 지난 나이임에도 지금도 "한국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한다.



수상자 윤동문(사진 왼쪽에서 3번째)

### 뉴욕지구 동창회 회원 명부 자료 모집

금년 8월에 간행 예정인 뉴욕지구 동창회 주소록자 개별 동문들의 자료내용-성명, 전공학과, 입학/졸업년도, 자료내용, 주소, 전화, 팩스와 이메일 주소-를 곧 뉴욕지구 총동창회(사무실 전화 212-594-0493, 팩스 212-643-047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자료마감 : 7월 말일까지).

### 공대동창회 골프대회 성황

뉴욕지역에서 단과대학 동창회 중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공대동창회(회장 관선섭)는 5월 4일 뉴저지주에 있는 팜스텝 골프 코스에서 2002년도 골프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여자 2명을 포함 25명이 참가한 이날 골프대회에서 공동 메달리스트에 각각 80타를 친 김태일 동문과 김문언 동문이 차지하였고 1등은 83타를 친 최병우동문, 2등은 구자영동문, 3등은 정도현동문에게 각각 돌아갔다. 여자 1등상은 김현기동문의 부인이 그리고 장타상에는 유우영동문, 근접상에는 방수진동문이 각각 차지하였다. 김현기전회장은 공대동창회장으로 작년까지 수고한 공로로 감사패를 관선섭 현회장으로 부터 받았다.

6월에 발간되는 워싱턴 DC 지부 동창회주소록 동문자료 보내주세요

문의: 전금섭, 워싱턴 DC 지부동창회장 (703-627-8050) 또는 김주희 부회장(703-416-4325)

### 투고요청

우리 모든 동문들은 재미동창회보의 取材記者입니다. 당신과 이웃 친구들의 각종 소식을 재미 동창회보사로 보내주시시오.

◇투고처 주소 : 1면 상단 참조

### 워싱턴 DC 소식

### 2002년 동창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2002년 동창회장배 골프대회가 화창한 봄 날씨 속에 37명의 동문들(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버지니아주 웨어팩스에 있는 Penderbrook 골프장에서 5월 4일(토) 11시30분 개최되었다.

전금섭 회장(약57입)의 개회사에 이어 시작된 골프대회에서 챔피언조 우승은 정태경 동문(사 61입)이, A 조 우승은 김국동문(농 75입)이 각각 차지하였다.

이 날 여성조에 4명이 출전, 4명이 모두 수상을 하는 진기록(?)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경기 후에는 중국식 뷔페 식당에서 시상을 겸한



저녁 모임이 있었으며 동문들은 경기 이야기를 주제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채점위원으로 이문종, 김기공 두 동문이 수고하였다. (투고자 김국 총무)



### 필라지역 소식

## 김미순 동문 독창회

### "Asian American Girls Choir" 창단 모금

### 필라동창회 2백불 지원

김미순동문(메조 소프라노, 음대 86년 입)의 아리아 독창회 "Arias of Love and Loss"가 지난 3월 15일 저녁 8시 필라델피아의 Trinity Center for Urban Life에서 The Asian American Music Society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김동문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메조소프라노이며 반주는 Curtis Institute of Music의 교수진(faculty member)인 Susan Nowicki가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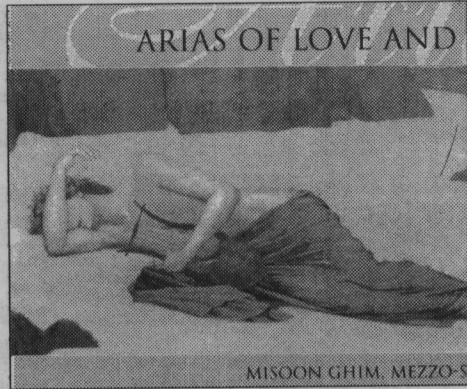
이날 김동문은 주제가 "Love and Loss"인 아리아들을 모아 열창하였으며, 특히 9.11 희생자 가족들에게 헌정하는 아리아 "Va, Laisse couler mes larmes" (Massenet)는 장내를 숙연하게 하였다.

김동문은 모교 음대를 졸업하고 Juillard 음대와 Curtis Institute of Music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에는 Metropoli-



tan Opera Educational Fund 장학금을 받았고, 현재 필라델피아에서 개인 성악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Asian American Music Society의 Director, 새로 결성될 Asian American Girls Choir 지휘자로 활약하고 있다.

이번 음악회는 2002년 아시아계 미국인의 음악, 시, 미술, 작곡가, 공연자들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결성된 Asian American Music Society가 "Asian American Girls Choir"를 창단하기 위한 기금조성이 목적이다.



Misoon Ghim's CD recording of Songs of Love and Loss, including many of tonight's arias, is available for sale in the lobby or by calling AAMS at 1-800-778-0089.

연령 6세-17세까지의 아시아계 미국인 소녀합창단이 이 합창단은 오는 9월 22일 "Full Moon Festival in Philly"란 제목으로 첫 공연을 계획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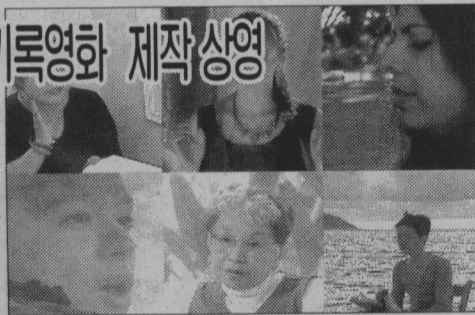
필라델피아 지역동창회에는 \$200을 기부하여 김동문의 독창회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현재 Audition이 진행중인 Asian American Girls Choir에 많은 동문 자녀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이 합창단의 지원서를 받기 위해서는 (800) 778-0089로 전화하거나

aams@mindspring.com로 e-mail을 보내면 된다.

## NY 흥운아 동문, 아시아 여류시인 기록영화 제작상영

뉴욕지역에서 Film/Video 제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흥운아 동문(미대 85년 졸)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필름 "Between the Lines: Asian American Women's Poetry"가 4월 17일 (수요일) Asian Society and Museum(Manhattan 725 Park Avenue 소재)에서 초연되었다. 이 행사는 The Asia Society, The Korea Society, The Asian American Writers Workshop 및 Women Meke Movies가 공동 후원했다. 이 작품은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여류시인 15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제작된

것으로 좀처럼 다루어지지 않는 아시아계 미국 작품의 여성 작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작품이라고 Asia Society의 Linden Chubin는 평하였다. 이 기록영화는 시 낭송과 실제 시집으로, 탁월한 재능있는 여성단체의 견해로 본성, 종족, 미학 및 창조적 선택 등에 대한 중후하고도 감동적인 증언을 보여준다. "Between The Lines"은 운문과 개인적의 reflection의 통해 Asian-American 역사와 문화를 i-



identity, 공연, 목소리 그리고 영상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시사회는 6시에 필름제작자인 흥운아동문이 참석하여 시작되었고 이어서 Between the Lines가 7시에 상영된 후, 참석하신 시인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연락처 : (212)677-8980  
e-mail:yhong@infohouse.com

## 訃告 金正洙 동문 별세

(1935년 8월 20일~2002년 5월 5일)

金正洙 동문(상대 53년 입)이 지난 5월 5일 Huntington Valley(PA) 자택에서 그간 투병해 오시다 별세하였다. 김동문은 1935년 8월 20일 함경북도 은성군에서 아버지 김병훈씨와 어머니 최련씨의 맏아들로 태어났으며, 1947년 서울중학교에 입학, 상대 상학과를 졸업하고 군복무 후 도미하여 U.C. L.A.에서 수학과를 졸업하였다. 졸업후 ARCO, Blue Shield Blue Cross에서 Systems Engineer로 근무하였고, 1990년부터는 보험업에 종사하였다. 역시 동문인 부인尹瓊淑(문리대 의외학과 63년 졸)과 1967년 결혼하여 슬하에 Jason, Arnold 두 아들을 두었고, 큰자제 Jason과 자부 Nora Lin은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유가족 전화 : 215-947-8741)

## 동창회 골프대회 및 교양강좌 및 만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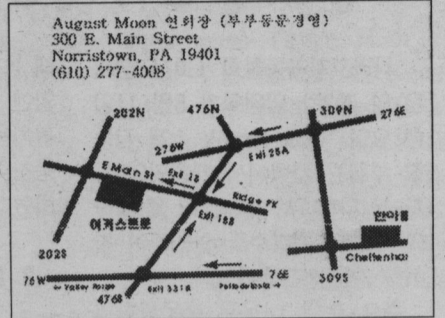
### 6월 8일(토요일) 오후 1시부터 교양강좌 오후 7시부터

필라 지역동창회(회장 강영배)는 금년도 첫 사업으로 동문들의 동문 친목 골프대회와 만찬 및 교양강좌를 개최한다.

오는 6월 8일(토요일) 오후 1시부터 Paxon Hollow Country Club (850 Paxon Hollow Road, Media, PA 19063, 전화 610-353-

0220)에서 동문 및 동문가족들을 대상으로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골프대회가 끝난 후 저녁 7시부터 August Moon 연회장(동문 부부 경영, 300 E. Main Street, Norristown, PA 19401)에서 저녁식사와 교양강좌를 가질 예정이다. 교양강좌의 연사는 송영록동문(약대, 66년 졸,



만찬장 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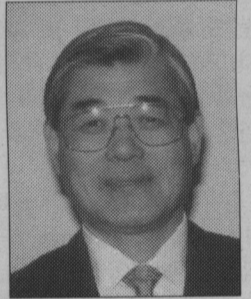
현재 Rite Aid Pharmacist 약사)이며, "生水와 천연소금과 건강"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일인당 \$30.00, 부부 \$50.00이며 RSVP는 6월 1일까지 강연배회장 (610-623-8560)이나 주기록총무(215-745-9030)에게 하면 된다.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 동창회 골프 및 교양강좌 개최 공고

친애하는 서울대학교 동문여러분  
마로니에 꽃피는 계절을 맞아 각 동문 가정에 안부를 드립니다.

금년도 첫 사업으로 교양강좌와 춘계 친목 Golf 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부부동반으로 부디 참석하시어 친목과 모교 발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2년 5월 10일  
<필라지부 동창회장 강 영 배 올림>

- 아래 -

### ◆DINNER 및 교양강좌

일 시: 2002년 6월 8일 (토요일) 저녁 7시  
장 소: August Moon 연회장 (부부동문 경영)  
300 E. Main Street  
Norristown, PA 19401  
(610) 277-4008  
\* 위 약도 참조

### 교양강좌 제목:

生水와 천연소금과 건강 - 현 Rite Aid Pharmacist  
참가비: 1인당 30불; 부부 50불  
RSVP: 6월 1일까지 주기록총무 (215) 745-9030나  
강연배회장 (610) 623-8560에 연락바람.

### ◆동문 친목 GOLF 대회

일 시: 2002년 6월 8일(토요일) 오후 1시 Tee Off  
대회장소: Paxon Hollow Country Club  
850 Paxon Hollow Road  
Media, PA 19063  
http://marple.net/paxongolf/golf.html  
참가대상: 동문 및 동문 가족  
RSVP: 6월 1일까지 강연배회장 (610)623-8560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이사회이자 다음 회기의 준비 모임이오니 아시는 동문들에게 연락하시어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시카고 소식

## 제 2차 임원회(5월11일)회의록

시카고지역동창회(회장 한재은)의 제2차 임원회가 5월 11일(토요일) Oak Brook 소재 김동희 부회장 자택에서 개최되었다. 저녁식사후 7시 10분부터 韓 회장의 주제로 대다수의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요 토의 내용은 총동창회의 11차 평의원회 준비사항, 2002년도 하계 आयु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 계획이 진지하게 토의되었다. 항목별 토의 및 결정 안건은 아래와 같다.

### 1. 제 11차 총동창회 평의원회 준비사항

제 11차 총동창회 평의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이용낙 총동창회장의 요청으로 지역동창회에서는 오늘 14일(금요일) 창립 10주년 기념 Symposium 참가자 영접을 비롯하여 평의원회 기간 중 각종 지원사항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14일(금요일) 저녁 Symposium의 Panelist로 초대된 재미총동창회 전임회장 및 지원 발제자, 각 지역동창회의 평의원과 서울의 총동창회장단 일행을 환영, 안내 하기 위한 Table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호텔 내에 3일 동안 Hospitality Room을 마련하여 참가자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재은 회장부부를 비롯하여 박영규 고문, 황치용 부회장, 전현일 감사 등이 부부동반으로 봉사하기로 하며 또 이소정, 김선영 음대회장 등 젊은 동문들도 같이 참석하여 안내물 package와 명찰등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15일(토요일) 만찬에는 음대동문들이 특별 연주순서를 부탁하였으며, 음대 동창회에서는 흔쾌히 수락하였다.

16일(일요일)에 있을 합동 골프대회는 장기남 수석 부회장의 주선 하에 선물(골프공), 상품(서울

대 동창회장배 등)을 준비하고 당일엔 최순정(공대) 강영국(농대) 황치용(문리대) 동문이 의과대학 동창회대표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였다.

### 2. 2002년 하계 आयु회 개최

오는 6월 22일(토요일)에 개최될 하계 आयु회는 작년에도 수고해 주신 최순분 특별간사의 총책임 하에 모든 음식, 과일, 음료수 등을 분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다. 특히 오락 순서에는 보다 안정성이 있고 쉬운 게임을 준비하자는 한재은 회장의 제의가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져 dodge-ball, putting 등을 황치용 부회장이 준비하도록 하였다.

많은 동문들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하여 광고를 크게 재미총동창회보에 신기호 하고 곧 이어 각 개별 동문에게 우편으로 약도가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기로 결정하고, 발송될 안내물은 이승자 총무가 맡기로 하였다.

### 3. 학생동문 환영좌담회 및 장학생 선발

학생 동문들을 위한 환영좌담회를 오는 9월 7일, 임원회와 겸하여 장기남 수석부회장 댁에서 갖기로 하였다. 동 좌담회는 조철원 간사의 주관하에 학생간사들(김소영, 이대기, 정현용)이 수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02년 동 장학생 선발요강은 이미 성문화 되어 있는 규정에 따르면 하고 모든 준비는 장학생 선발 위원회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2002년도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유임위원 : 서승환(치), 설상수(문), 진관보(의), 임이섭(미), 이강업(문) 동문

신임위원 : 김광제(문), 이소정(음), 양홍미(약), 최호승(사),

한의일(공) 동문

### 4.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시카고 노인복지 센터에서 약 80-100여명의 연장자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案이 제의되어 차기 임원회까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여 보고하기로 하였다.

### 5. 10월 5일 제2차 이사회 개최

제2차 이사회는 10월 5일 Oak Brook Hills Hotel에서 갖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해 전현일 감사가 장소예약 및 음식 계약등 기타 세부사항을 차기 임원회때 보고하기로 하였다.

### 6. 신수정 교수 음악회 후원

오는 10월 20일 시카고 한인회는 모교의 바이올리스트 신수정 음대 교수를 초청하여 "시카고한인회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소정 음대 간사에게 공동후원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동창회는 잠정적으로 후원할 것으로 결정하고 장기남 수석 부회장이 한인회측의 마주해씨와 협의하여 세부사항을 한재은 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다.

### 7. 모교 음대생 미국순회 연주회 시카고 개최

재미총동창회(회장 이용락)는 모교 음대생 미국순회 연주단의 시카고 공연 협조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대하여 개최 및 후원에 대하여 많은 토의가 있는 후, 시카고지역 동창회 임원진은 이를 후원 찬조기로 결정하였다.

한재은 회장이 연주회 개최 희망일자를 총동창회측에 전하고 그 결과를 총동창회측으로부터 통보받는 절차를 각각 서면으로 하기로 하였다.

한 회장은 준비 시기가 촉박하므로 공연장소 확보 및 연주단의 숙식계획등을 조속히 세워줄 것을 당부하고, 준비위원으로 이수인 감사(위원장), 박영규, 김선영 및 이소정 동문을 위임하였다.

## 시카고 지역 동창회(회장 한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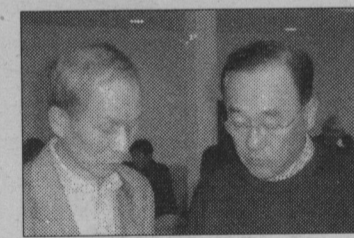
# 2002년도 행사 계획



- ◇1월 12일(토)제 1차 임원회한재은 회장댁
- ◇3월 23일(토)제 1차 이사회Raddison Hotel, Lincolnwood
- ◇5월 11일(토)제 2차 임원회김동희 부회장댁
- ◆6월 14일 -16일미주 총동창회 평의원회
- ◆6월 16일(일)춘계 Golf Outing
- ◆6월 22일(토)PicnicBusse Grove #12
- ◇9월 7일(토)학생 동문 환영회
- ◇9월 7일(토)제 3차 임원회, 장기남 수석 부회장댁
- ◇9월 일차미정지역사회 봉사활동
- ◇9월 21일(토)추계 Golf Outing
- ◇10월 5일(토)제 2차 이사회
- ◇11월 2일(토)제 4차 임원회, 황치용 부회장댁
- ◇11월 30일(토)총회 및 연말 Party



시카고지역 동창회 수뇌부 뒷줄 왼쪽부터, 조대현(전회장), 조영환, 이대기(UC 학생대표), 강수상(고문), 장기남(수석 부회장), 김동희(부회장), 황치용(부회장), 이수인(감사), 가운데줄 왼쪽부터, 최순분(이사), 이승자(총무), 한재은(회장), 문병훈(고문), 송재현(고문), 앞줄, 전현일(감사), 왼쪽부터, 장기남, 이용락(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 조대현, 이수인



전임 조대현 회장과 한재은 회장 密談 ? / 음대순회연주단 공연과 총동창회 평의원회 준비와 관련하여 구수회의를 하고 있는 한재은 회장과 이소정(음대총무) 동문.



사진 좌로부터 횡단중인 차기회장 장기남 동문, 이용락 재미총동창회장, 전임 조대현 회장, 이수인 감사.

## 박종희 동문(의대 75년졸) 강연 사례금 자선사업 기부

박종희 동문(Dr. Lucy Park, 의대 75년졸)은 GlaxoSmithKlinic 제약회사로부터 강연 사례금으로 받은 \$1,500을 의과대학 동창회에 기증하였다.

의대 동창회에서는 이 기부금을 모국의 전남 여천에 있는 애양원에 \$1,000, Oak Brook의 Stephen Kang Scholarship Fund에 \$250을 또 나머지 \$250을 시카고의 Korean American Senior Center에 각각 전달하였다.

## 재미총동창회 시카고지역 평의원 명단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평의원 임기는 3년이 아니고 2년이며, 시카고 지역동창회를 대표하는 평의원들의 임기를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 7/01/2001 - 6/30/2003 한재은 (회장 당연직)
- 1/01/2002 - 12/31/2003 장기남(수석부회장 당연직)
- 7/01/2000 - 6/30/2002 소진문 (치)
- 7/01/2001 - 6/30/2003 송재현 (의)
- 7/01/2000 - 6/30/2002 채일주 (공)
- 7/01/2002 - 6/30/2004 강화영 (문)

### 시카고지역 동창회 2002년 하계 आय회 개최

동문여러분,

예년과 같이 푸짐한 음식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동문 여러분들은 물론 가족 친지 분들을 초대합니다. 꼭 시간을 내시어 흥겨운 하루를 싱그러운 आय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생 동문 및 가족들을 대 환영합니다.

일시 : 2002년 6월 22일(토요일) 오전 11시

장소 : Busse South Forest Preserve  
Grove No. 12 Elk Grove Village, IL  
(약도 참조, 입구는 Higgins 상에 있음)

연락처 : 한재은 (847-428-4929)

최순분 (847-390-9700)

이대기 (773-548-1239, U of Chicago)

정현영 (708-488-0744, UIC)

김소영 (847-332-7332, Northwestern U)

◆ 음식과 음료수 일체는 동창회에서 준비 제공합니다.

### 시카고 지역동창회장 한재은



### 서울 대학교 2002년도 하계 आय회

예년과 같이 푸짐한 음식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동문 여러분들은 물론 가족 친지 분들을 초대합니다. 꼭 시간을 내시어 흥겨운 하루를 싱그러운 आय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생동문 및 가족들을 대 환영합니다.

일시 : 2002년 6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 : Busse South Forest Preserve  
Grove No. 12  
Elk Grove Village, IL  
(약도 참조, 입구는 Higgins 상에 있음)

연락처 : 한재은 (847-428-4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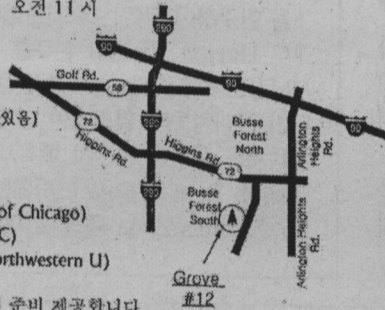
최순분 (847-390-9700)

이대기 (773-548-1239, U of Chicago)

정현영 (708-488-0744, UIC)

김소영 (847-332-7332, Northwestern U)

◆ 음식과 음료수 일체는 동창회에서 준비 제공합니다.



### 訃告

### 李在寅 동문 別世

문리대 물리학과를 1960년에 졸업한 이재인 동문이 64세를 일기로 5월 3일 (금) 시카고 스웨디쉬 카비넷 병원에서 타계했다.

이재인 동문은 지난해 9월 급성 췌장암으로 수술을 했으나 병이 재발해 다시 입원하여 치료 중에 타계했다.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이재인 동문은 서울 중동고등학교 물리교사를 거쳐 1965년 경향신문사 기자로 입사하여 1978년 사회부 차장으로 퇴직한 후 시카고로 가족과 함께 이민했다.

1978년 Lucent Technology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입사하여 1999년 퇴직한 후 시카고 한인 빈야드 교회 담임 목사로 시무중 병이 발견되었으나, 회생하지 못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정혜씨와 성연한 남매가 있다.

유가족 연락처 : (847) 729-4539

### 2002년 휴스턴 춘계 골프

휴스턴 지부 동창회는 4월 27일(토) 휴스턴 소재 Greatwood Golf Club에서 춘계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골프대회는 동문들과 친지들이 약 50명 가량 참석하여 서로간의 우애를 다지는 친교의 장이 되었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아시아나 가든으로 자리를 옮겨 저녁 식사와 시상식을 가졌

다. 금년 대회의 Champion은 박태우 동문(공대 64년 입), Medalist는 이종준 동문(의대 64년 입)에게 돌아갔다. 특히 김대준 동문(공대 81년 입)은 1등상과 Longest Drive상을 모두 타는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였다. 2등은 김의신 동문(의대 60년 입), Closest to the Pin상은 김충열 동문(의대 57년 입) 그리고 Guest상은 이용환 동문(의대 62년 입)의 부인에게 돌아갔다.

### 휴스턴 소식

### 2002년 동창회 장학금 시상식

휴스턴지부 동창회는 5월 4일(토) 오후 6시 휴스턴 소재 아시아나 가든에서 2002년 장학금 수여자들과 그 가족들을 초대, 저녁식사와 함께 시상식을 가졌다.

휴스턴 지부는 매년 Texas 서남부지역에 속한 고등학교를 해당 년에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장학금 대상자는 다섯 분야에서 선정되는데, PSAT, SAT 또는 학교 졸업 성적이 뛰어난 자(Acaemic Scholarship), 학생회장, 학생회임원 또는 학교를 대표하는 Girl State or Boy State 등에 뽑힌 자(Leadership Scholarship), 영어에 특출한 자(고 임성주 추모 장학금), 텍사스주 안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자(ANACON 장학금) 등으로 구성된다.

금년도 수상자로는 Academic Scholarship에 Kim, Jae Hoon(William Clements High School)과 Oak, Tina Sangmi Memorial

igh School), Leadership Scholarship에는 Won, John Yun(James Taylor High School), 고 임성주 추모 장학금에는 Kong, Peter Bansuk(Leander High School), ANACON 장학금에는 Seo, Kyung Min(Memorian Sr. High School)과 Chun, Sae-Ryoon(Mayde Creek High School)이 각각 선정되었고, 이들에게는 일인당 500달러씩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예체능계 장학금에는 지원자가 없었다.

저녁식사와 시상식은 시종 일관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시상식이 끝난 후 수상자들과 부모님들의 수상소감이 이어졌다. 이들은 이 장학금이 단지 동문 자녀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 한인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이런 장학금 수여가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금년도 장학금 수상자와 임원들 기념촬영 뒷줄 왼쪽부터 Chun, Sae-Ryoon: 김영창 동문(공대 64년 입) -휴스턴지부 동창회장; Won, John Yun; Kim, Jae Hoon; 윤복수(공대 69년 입) - 장학위원, 앞줄 왼쪽부터 Seo, Kyung Min; Oak, Tina Sangmi; 탁순덕(사대 57년 입) 고 임성주 추모 장학금 출연자; 이규진(약대 60년 입) -ANACON 장학금 출연자



### 2002년 장학금 수상자 기념촬영

-뒷줄 왼쪽부터 Chun, Sae-Ryoon (ANACON 장학금); Won, John Yun (Leadership Scholarship); Kim, Jae Hoon (Academic Scholarship) -앞줄 왼쪽부터 Seo, Kyung Min (ANACON 장학금); Oak, Tina Sangmi (Academic Scholarship)

### 뉴잉글랜드 소식

## 동창회 자선 음악회 성황

뉴잉글랜드지부 동창회(회장: 이재신 공대 57년 입)는 지난 5월 1일 저녁 7시 30분 Brookline에 있는 St. Paul's Episcopal Church에서 자선 음악회를 가졌다.

뉴잉글랜드의 각 지역에서 150여명의 청중이 모인 이 음악회에서는 바이올린에 보스턴 심포니에서 활약하는 황보엽 동문(음대 65년 입), 피아노에 변화경 동문(음대 66년 입)과 강주연 동문, 첼로에 NEC대학의 교수 김이선,

소프라노에는 뉴욕에서 찬조 출연한 그레이스 조 동문 등이 출연하여 "명실공히 한인 최고 수준의 음악회였다"는 격찬을 받



그레이스 조



변화경



강주연



황보엽

았다. 매년 열리고 있는 본 음악회는 이번이 제 4회로써 그 취지는 뉴잉글랜드 지역 교민에게 격조높은 음악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특히 수익금 전액은 한인단체를 돕기 위한 자선기금으로 쓰여지고 있다. (투고자 변종원 동문)

### 자랑스런 우리 동문

### Flutist

## 남혜정 동문(음대 91입)



현재 Boston University에서 (Flute) Artist Diploma를 전공하고 있는 남혜정동문(음대91입)은 지난 5월12일, 동대학의 Concert Hall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검은 회색의 체크무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우아한 의상을 입은 남혜정 동문은 「Sonata in G Minor for Flute and Continuo」, 「Sonatine」, 「Trockne Blumen」, 「D802」를 제1막에서 연주하였는데 그 기교와 묘사는 마치 이른봄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여울의 물소리처럼 감미롭고 또는 봄의 아지랑이가 가득 찬 창공에서 한 마리의 종달새가 아름답게 노래하며 메아리를 치는 듯 고요하면서도 포근한 행복감을 주었으며 이어서는 마치 한 줄기의 강렬한 빛살이 어두움을 걷우고서 찬란한 광채를 온누리에 비쳐주듯이 그리하여 아침의 이슬을 말리우고 또는 갑자기 나타난 수 천 마리의 종달새떼들이 다함께 노래를 하는 듯한 아름다운 요란함을 표현하여 주었다. Intermission후의 제2막에서는 Viola와 Harp와의 3중주에서 「And Then I Knew 't was wind」, 「Sonata Op.23」을 연주하여 주었는데 시종일관 차분하면서도 지극히 세련된 기교로 Harp와 Viola의 연주를 이끌어가면서 어떤 때는 고요해진 저녁강변이나 해변가를 거니는 듯 또 어떤 때는 성난바람과 거센파도가 몰아치듯이 열정적인 연주를 하여 주어서 Concert Hall을 가득채운 청중을 완전히 매혹시켜주었다. 남혜정동문을 작년에서 Boston Pops와 Solo 연주협연을 한바있으며 현재Marya Martin, Jacques Zoon 등의 지도를 받고 있다. (윤상래 특파원)

## 보스톤 노인회원들 '한국의 날' 제정 요청 서명운동

### 보스톤 노인대학 제18회 강좌개최

박경민 동문(의대 53년 입)이 학장으로 있는 보스톤 노인 대학 회원들은 한인 이민 백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날" 제정을 요청하는 편지에 서명운동을 벌였다.

박 동문은 지난 5월 11일 보스톤 장로교회(담임 전덕영 목사)에서 열린 제 18회 노인대학강좌에 참석한 회원들이 뜻을 모아 메사추세츠지역의 상원의원들에게 "한국의 날"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서명해 이를 전달하기로 했다.

박경민 노인대학장과 주봉갑 노인회장의 인사로 시작된 이날 강좌에서 17번째 보스톤 장로교회 담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전덕영 목사가 "기독교에서보는 성과 사랑과 결혼"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전목사는 한국의 유교적 관습에 의해 초대 한국교회에서는 성경을 오해하여 마치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영적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처럼 해석했으며 결혼을 죄악시할

뿐 아니라 성을 터부시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남녀의 결합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것이며 성생활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이므로 부부생활은 당연하며 비록 연로할지라도 부부생활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강연 후 로맨스 그레이라는 제목의 SBS 특별 기획물을 보면서 한국 노인들의 성과 사랑과 결혼에 대한 진지한 모습들을 잘 알 수 있었고, 곧이어 뉴잉글랜드 이민 백주년 기념 사업회에서 준비한 "양할머니의 아리랑"이 상연되어 수강생들의 갈채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꽃 달아 드리기와 만찬이 있었다.

또 참석회원들은 페루선교를 위한 모금을 보스톤 한인교회 강길원 장로에게 전하도록 하고 제18회 노인대학 강좌를 끝마쳤다.

(취재원: 뉴잉글랜드 한인회보 2002년 5월 17일자)

### 건강상식

## 퇴행성 관절염, 체중을 줄여야

趙成洙 (의대 76년 졸, 반도체정형외과 과장)

55세 이상의 약 80%, 75세 이상의 거의 모든 사람이 갖게 되는 퇴행성 관절염은 다른 말로 노인성 관절염이라고도 불리며, 그 원인은 불확실하나 노쇠현상 및 과대한 체중과 관계가 깊다.

그 외에 나이와는 별 관계없이 이차적으로 선천성 기형이나 외상의 병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생화학적 이상이 동반된 경우에도 그 병이 올 수 있다.

초기 증상으로는 가벼운 통증이 나타나며 쭈거나 습기가 많은 날씨에 악화되기도 한다. 또 쉽게 피로감을 느끼며 관절의 운동장애나 종창 및 관절 주위의 압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병의 진행에 따라 관절 면이 불규칙해지면 관절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며, 관절 내에 유리체가 떠다닐 경우 이러한 물체가 더욱 병의 진행을 가속화시키기도 한다.

임상적 경과를 서서히 진행되거나 간혹 어느 정도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간헐적인 경과를 취하기도 한다.

그 외에 손에서는 손가락 끝 마디가 튀어나오기도 하며 환자는 대개 여러 군데의 증세를 한꺼번에 호소하게 된다.

치료로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대별되며 보존적 치료에는 주사, 경구투약, 물리치료, 스테로이드 제제의 국소적 주입이 있다.

이상의 여러 방법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복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어떤 치료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식의 금기는 없다.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치료로 환자의 증세를 다소러 나가야 하며, 환자의 나이, 건강상태에 따라 치료의 목표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히알루론산 나트륨을 소재로 한 관절강 내 주사요법과 연골재생에 도움이 되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장기 복용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

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 계획적인 치료로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그리고 5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 때부터 체중조절과 함께 전문의사의 정기적 관찰과 지시에 따라 계획적인 치료를 하면 많은 수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너무 많은 관절의 변화로 수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과감히 수술을 받아 필요 없이 고생하며 가족들까지 고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장 침범이 심한 무릎 관절의 경우 인공관절 대체술의 결과가 상당히 좋아 과감히 환자에게 권할 수 있는 수술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결혼을 바라보는 비교적 젊은 나이로 할지라도 증세가 있는 경우는 정기적 진찰과 적절한 치료, 체중 및 팔감소증 예방 등으로 관리해야 한다.

(연락처 : 서울 - 042-631-0091)

# 모교소식

## 국제 학술지 게재 과학논문

### 모교 세계 40위 도약

지난 4월 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1년 국제 과학논문 인용색인(SCI) 지수」에 따르면 국내 1위인 모교가 2천5백89편의 논문을 SCI 등재 학술지에 실어 세계 55위(2000년)에서 40위로 도약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8만3천9백96편(1위)이며, 일본은 7만1천9백62편(2위), 영국은 7만1천6백15편(3위), 독일은 6만5천8백2편(4위), 프랑스는 4만6천1백88편(5위)이며, 우리나라는 1만4천1백62편(14위)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주요대학별로는 미국

하버드대 9천2백18편(1위), 일본 도쿄대 6천4백39편(2위), 미국 스탠포드대 4천5백67편(8위), 영국 캠브리지대 3천8백10편(17위), 미국 MIT대 3천1백55편(29위), 모교 2천5백89편(40위), 중국 칭화대 1천4백5편(133위) 등이었으며, 교수 1인당 논문수는 하버드대 4.5편으로 모교에 비해 논문수와 교수 1인당 논문수에서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별로는 모교가 우리나라 발표 논문수의 18.3%를 차지했으며 KAIST 1천1백78편(8.3%), 연세대 1천1백51편

(8.1%), 고려대 7백57편(5.3%), 포항공대 7백50편(5.3%)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교를 세계 주요대학과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98년도 1천6백71편(94위), 99년도 1천9백24편(73위), 2000년도 2천2백2편(55위), 2001년도 2천5백89편(40위)으로 나타났으며, 모교 연구비의 연도별 수주액(98년도 1천20억원, 99년도 1천2백84억원, 2000년도 1천4백85억원, 2001년도 1천7백62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발표 논문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의 BK21사업, 학술연구진흥사업,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 등을 통한 국가적 연구사업 투자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세계 주요 대학별 논문수 (2001년)

순위	대학명	논문수	순위	대학명	논문수
1	하버드	9,218	26	UC DAVIS	3,276
2	도쿄 (東京)	6,439	27	텍사스 오스틴	3,194
3	UCLA	5,343	28	플로리다	3,184
4	워싱턴주립	5,054	29	MIT	3,155
5	미시간	4,814	30	콜롬비아	3,094
6	토론토	4,633	31	펜실베이니아주립	3,076
7	존스홉킨스	4,587	32	노스웨스턴	3,041
8	스탠포드	4,567	33	오하이오주립	3,023
9	교토 (京都)	4,506	34	맥길	2,866
10	펜실베이니아	4,367	35	런던 임페리얼	2,832
11	위스콘신	4,285	36	알라바마	2,753
12	미네소타	4,185	37	윈헨	2,718
13	UC 버클리	4,169	38	일리노이 어바나	2,718
14	UC 샌디에고	4,126	39	비엔나	2,634
15	오사카 (大阪)	4,039	40	서울대	2,589
16	UC 샌프란시스코	3,990	41	아리조나	2,582
17	캠브리지	3,810	42	나고야 (名古屋)	2,544
18	코넬	3,752	43	브리티쉬 콜롬비아	2,515
19	토후쿠 (東北)	3,647	44	컬리지 런던	2,510
20	피츠버그	3,527	45	베일러 의과대학	2,475
21	듀크	3,484	46	에모리	2,470
22	예일	3,433	47	텍사스 휴스턴	2,445
23	옥스포드	3,415	48	헬싱키	2,439
24	노스 캐롤리나	3,337	49	모스크바국립	2,437
25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3,282	50	인디애나	2,425

### 합춘후원회

#### 불우환자돕기 바자회 개최



불우환자 지원을 위해 결성된 모교 병원 교직원 모임인 합춘후원회(회장 : 宋仁誠교수)는 지난 4월 23~24일 이틀동안 병원 앞 시계탑 주차장에서 제10회 불우환자돕기 바자회를 개최했다.

의료사회사업실 직원 및 모교 병원 자원봉사자 약 2백30명이

판매자로 나선 이번 바자회에서는 1백여 명의 교직원과 제약회사 등 80여 개의 기업체에서 기증한 옷, 어린이용품, 생필품, 서류, 생활용품, 음식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됐다.

합춘후원회 측은 『이틀동안 외부 기부금 3천만원을 포함 약 9천만원의 수익금을 모았으며

전액 불우환자를 위해 쓰여질 것』이라고 전했다.

합춘후원회는 1992년 발족, 현재 교직원 1천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불우환자 지원을 위해 회비 모금을 비롯해 바자회, 일일차집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모교 金石鉉교수팀

##### 우수논문상 수상

모교 병원 산부인과학교실 金石鉉(81년 醫大卒)교수팀(구승엽, 김정구, 문신용, 서창석, 이진용, 지병철, 최영민)이 지난 4월 26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한 제12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논문제목은 대한초음파의학회지(2001년)에 게재된 「난소 기질내 동맥의 도플러 지수: 체외 수정시술을 위한 과배란유도시 난소 반응과 임신 예측인자로서의 임상적 유용성」이다.

### 환경대학원

#### 신임 원장에 金丁勳교수 취임

지난 4월 4일부터 환경대학원에 환경계획학과 金丁勳교수(사진)가 취임했다.

신임 金원장은 68년 공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Rhode Island에서 석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2년 모교에 부임해 환경대학



원 환경계획학과장, 환경대학원장보 등을 역임했다.

### 의과대학

#### 합춘대상·유공동문 등 시상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吉女)는 지난 3월 26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동문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제3회 합춘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李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잘하든 잘못하든, 늘 자녀의 내일을 위해 용기를 북돋우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온 모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모교가 시세를 탐하지 않고 이 나라 의료를 지켜나가는 훌륭한 후배를 길러내고 이들이 의료의 지도자로서,

모교 사랑의 실천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시상하게 되는 합춘대상이 우리 나라 건강보건의 증진과 인류사회의 평화를 위한 역사적 금자탑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차容眩병원장은 『더 많은 환자들이 편리하게 병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맥킨지사의 컨설팅을 받아 좋은 반응을



좌로부터 朴容眩병원장, 鄭求榮동문 부부, 李희장, 朱權源동문 부부, 韓相泰동문, 李鍾郁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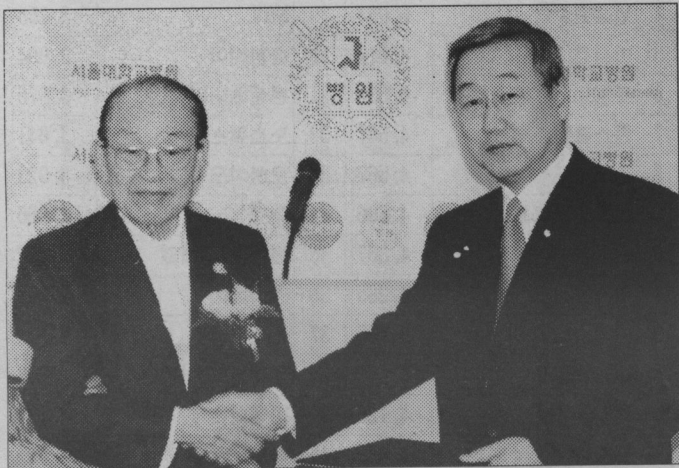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합춘대상 시상식에서 심장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鄭求榮(57년 醫大卒·美제퍼슨의대 명예교수)동문이 학술연구부문상을, 서울대병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 나라 의료의 근대화를 이끈 朱權源(43년 醫大卒·모교 명예교수)동문이 의료봉사부문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소아마비 박멸에 큰 공적을 세우며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데 공

헌한 韓相泰(55년 醫大卒·WHO 서태평양지역 명예사무처장)동문이 사회공헌부문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金三壽·李奎恒·池三峰·金鳳泰·李珍鏞·朴永寬·成相哲·洪正龍·金辰圭·金承陸동문과 서울시 광진구지회를 비롯한 8개 우수 지회와 21·35·37회 등 우수 동기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 국내 정신의학 태두 俞碩鎭박사 평생 모은 장서 1만5천권 기증



사이코드라마와 음악요법을 정신과 환자 치료에 국내 최초로 접목하는 등 국내 정신의학의 태두로 불리는 曠山 俞碩鎭박사(사진 左)가 정신과 의사로서 평생 모아온 장서 1만5천권을 지난 4월 17일 모교 병원의 학박물관에 기증했다.

이날 오후 3시 모교 병원 회의실에서 열린 기증식에는 俞碩鎭박사와 부인 金明係여사를 비롯한 가족과 모교 병원 차容眩원장, 鄭道彦의학박물관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의학박물관 1층에 새로 마련된 「효산 의학사료실」 개소식과 俞碩鎭박사 흉상 제막식을 참관했으며, 이어 의학박물관 2층에 마련된 기증품 특별전을 둘러 보았다.

부인 金明係여사는 「60여 년간 정신의학계에 몸담으며 보관해온 소장품을 후학들이 정신의학을 연구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의학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차容眩병원장은 「평생 모은 장서를 기증하신 높은 뜻이 정신의학계 뿐 아니라 醫學史를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잘 보존하고 계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정신과 교수인 鄭道彦의학박물관장은 「俞碩鎭박사님이 기증한 장서 중에는 1950년대 어린이 정신의학 관련 서적과 1962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발행한 신경정신의학 장간호를 비롯해 초창기 국내 정신의학계의 중요 단행본 및 간행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1920년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난 俞碩鎭박사는 1944년 모교 의대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 1949년부터 53년까지 서울의대 교수로 재직했다. 1955년에는 지난해 초까지 환자를 진료했던 베드루신경정신과의원(성북동)을 열었는데, 俞碩鎭박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경정신과 단독 개원의로 기록되고 있다.

1960년에는 한국전쟁으로 유명무실화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재건 창립하며 회장을 역임했고, 재임시 세계정신의학회에 가입하는 등 국내 정신의학을 개척한 공으로 정신의학의 태두

로 불리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정신건강 및 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후에도 대한사회정신의학회장, 한국임상예술학회장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정신과 의사로서 俞碩鎭박사는 당시 어느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사회현장치료법」을 처음 시도했다. 이 치료법은 병원에서 약물과 심리치료에만 의존해온 정신과 환자들을 시장이나 음식점 등에서 의사의 보호하에 사회현실을 직접 대면하는 치료를 병행하는 것. 또 그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정신질환자 유병률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는 등 많은 업적을 학계에 내놓았다.

특히 음악·영화·연극 등 다양한 예술분야에 대한 재능과 관심을 바탕으로, 1982년 임상예술학회를 창립해 일본, 미국의 임상예술학회와 교류하면서 국내 최초로 사이코드라마와 음악요법을 환자진료에 접목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공으로 俞碩鎭박사 부부는 1987년 일본에 솔로법학회상을 수상했다. 부인 金明係여사는 1955년 모교 음대를 졸업해 성악가로 활동하면서 俞碩鎭박사가 음악요법을 접목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 상진기업 鄭祥根사장

### 기계공학과 장학금 5억원 출연

상진기업 鄭祥根(54년工大卒)사장(사진)이 최근 모교 기계공학과 장학기금으로 써달라며 재단법인 서울대 발전기금에 5억원을 출연했다.

건설기자재 제조회사인 상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鄭동문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이자 후배 공학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 “그날의 뜻을 기리자”

### 4·19 기념물 두레문예관 앞으로 이전

4·19혁명 42주년을 맞아 지난 4월 19일 관악캠퍼스내 규장각과 두레문예관 사이 동산에서 4·19혁명의 뜻을 기리고 선열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모교 李基俊총장, 李鉉求부총장, 鄭正偉대학원장을 비롯해 각 단과대학 학장과 학생회장, 유족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4·19 희생자인 고순자(회화 2년), 안승준(경제 3년), 박동훈(법학 2년), 김치호(수학 3년), 손중근(국어교육 4년), 유채식(체육교육 2년)동문을 기리는 마음으로 헌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4·19회 尹埴(64년文理大卒)회장은 4·19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동문이나 재학생 모두 항상 4·19를 생각하고 모교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4·19 기념물은 4·19의거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으로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하나의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물의 위치가 캠퍼스의 외진 곳에 있어 의거의 숭고한 의미가 퇴색됐다는 여론이 나오면서, 지난 2001년 5월부터 학내 의견수렴과 심의과정을 거쳐 규장각과 두레문예관 사이의 동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됐다.

두레문예관과 후생관 사이 서측 동산에 2,000㎡의 부지로 위치를 옮기는 이번 4·19기념물 이전 1단계 공사에서는 기념탑 및 4·19관련 기념비 이설, 기존 수목 이식, 진입로 설치, 잔디 식재 등이 시행됐다.

이번에 이전된 5개의 주요 기념물은 「4월 학생혁명기념탑(문리대)」, 「4·19의 녀(미대)」, 「4·19 기념등상(사대)」, 「고 박동훈 기념비(법대)」, 「고 안승준 순국기념비(사회대)」 등이다. (雙)

### 의종은 「정치69」 동기생들



앞줄 좌로부터 金在洪(경기대 교수), 필자, 李洪九(중앙일보 고문), 金仁燮(前국정원 차장), 金仁圭(KBS 뉴미디어본부장), 뒷줄 좌로부터 趙煥鎭(한국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李元根(경찰대 교수), 李瑞恒(외교안보연구원 교수), 趙重衡(자민련 송파을지구당 위원장), 高永才(한겨레신문 광고국장), 張光(지산인터넷서널 대표), 金宅坤(MBC 보도국장).

정치학과 69학번 동기생 18명은 어려운 격동기에 학창생활을 함께 해서 그러지 30년이 넘도록 의종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어, 다른 학과나 선후배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한 두 달에 한번씩은 꼭 모임을 갖는데, 금년들어 세 번째 모임으로 지난 3월 7일 입학동기(?)이신 李洪九선생님을 모시고 동기생 11명이 입학 33주년 기념오찬을 함께 했다.

李선생님께서 첫 강의를 우리 신입생 때부터 시작해서 졸업 때까지 8학기에 걸쳐 「정치사상사」의 흐름을 일깨워 주셨기에 「입학동기」라고 우리끼리 농담을 한다.

이젠 우리도 50대 중반의 중

년이 되어 세속의 부질없는 욕망으로부터 꼭 자유로워진 분위기가 엿보인다. 그래도 지난번에 YTN-TV 대선 지망생들의 그룹토론 생방송을 진행했던 金在洪교수가 「대권야말로 정치학도의 뉘엿뉘 토론진행을 하면서 어쩐지 주객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하자, 누군가가 우리 모두 입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 대권야망을 포기한 적이 있는냐고 웃기는 바람에 다들 폭소하기도 했다. (글: 朴聖勳 청와대 통일비서관)



▲李秀洪(59년) 文理大卒·전국 문화원연합회장)=지난 2월 22일 향토문화 연구 및 장단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정신문화 연구원으로부터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받음.

▲李相禹(61년) 法大卒·서강대 교수·신아세아 질서연구회장)=지난 2월 27일 서울클럽 지리산룸에서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 金亨俊부소장을 초청, 「2002년 대선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4차 교양문화강좌를 개최함.

▲張潤宇(62년) 美大卒·성신여대 박물관장·한국공예문화진흥원 이사장)=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6일까지 성신여대 수정관 대전실에서 「전통의 일상적 향유」라는 주제로 박물관 문화상품전을 개최함.

▲徐丙喆(63년) 文理大卒·통일연구원장)=지난 2월 18일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한반

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10주년 기념 국내학술회의를 가짐.

▲林頌羲(63년) 美大卒·덕성여대 교수)=지난 2월 28일 중국南京사범대학미술학원에서 「남경박물관 초대전」을 가짐.

▲鄭武雄(64년) 商大卒·KORINDO그룹 부사장·인도네시아 지부 부회장)=지난 2월 25일 본국 출장길에 본회를 방문, 지부 분담금 5백불을 전달하고 해외지부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눔.

▲崔圭鶴(65년) 行大院卒·한국 소비자보호원장)=지난 2월 22일 우리 나라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불대에서 명예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음.

▲金明子(66년) 文理大卒·환경부 장관)=지난 3월 7~8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세계 여성지도자와 환경회의」에

참석,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기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유전자원의 이익공유」의제에 대한 지정토론을 함.

▲全玲惠(67년) 音大卒·경희대 교수·피아니스트)=지난 2월 7일 우크라이나 문화부 초청을 받아 키예프에서 열린 한국·우크라이나 수교 10주년 기념 음악회에 참석, 우크라이나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함.

▲曹相鎬(67년) 行大院卒·장조장학회 이사장)=지난 2월 23일 서울 강북 대성학원 소강당에서 2002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가짐.

▲羅素善(71년) 藥大卒·울산의대 교수·여성 생명과학기술포럼 회장)=지난 1월 29일 한국학술진흥재단 강당에서 제1회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심포지엄을 개최, 여성 과학자의 경력개발 등에 대해 토론함.

▲徐廷琪(73년) 醫大卒·모교 소아과학교실 교수·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회장)=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태국 방콕 국제무역전시센터에서 열린 국제

위장병학회에 참석, 강연을 함. ▲朴利善(76년) 美大卒·한국화가)=지난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不二」라는 주제로 제6회 개인전을 가짐.

▲朴明潤(76년) 保大院卒·한국 파인트리클럽 총재·冠岳會理事)=지난 1월 24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한국파인트리클럽 창립 44주년 기념식을 가짐.

▲曹秀美(81년) 音大入·성악가)=지난 3월 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한국인 성악가로는 처음으로 모스크바 크렘린궁의 신년 음악회에 출연함.

▲朴蘭姬(88년) 音大卒)=오는 4월 13일 성락교회에서 리스트의 피아노곡인 헝가리 감시곡을 편곡한 작품과 헨델의 오르간 협주곡 등으로 파이프오르간 독주회를 갖는다.

▲金明圭(24기 AMP·한국가스

공사 사장)=지난 2월 15일 한국산업기술대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함. 또 20일 분당 본사 접견실에서 호주 ALNG社 크래그 픽스 부사장과 제프 펠럼 부사장의 예방을 받고 천연가스 프로젝트 등과 관련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함. (정리=安興燮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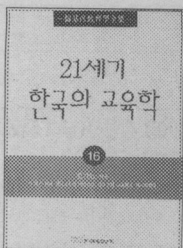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 \*신윤석(95년 工大卒)군·손승희(98년 看護大卒)양=3월 16일 14시.
- \*이용우(95년 工大卒)군·김미경 양=3월 23일 12시 30분.
- \*양영석(00년 社會大卒)군·김희주 양=3월 23일 14시.
- \*유지원(90년 人文大卒)군·배선경 양=4월 13일 14시.
- \*김용철(96년 自然大卒)군·정경숙 양=4월 14일 12시 30분.

**新刊**

**21세기 한국의 교육학**  
—韓基彥 著



모교 교육학과 韓基彥(49년 師大卒·기초주의 연구원장) 명예교수가 미래 한국교육의 대안으로 기초주의 교육학을 제시했다.

韓교수는 이 책에서 미래 사회는 교육의 세기가 되어야 하고 교육학이 만인의 교양으로서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나라 이 세계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교육국가의 건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학술정보판·값20,000원)

**그 아름답던 계절이여!**  
—曹祥鉉 著



한국슈베르트협회 曹祥鉉(51년 音大卒·성악가) 회장이 「나는 나무입니다」·「욕심 많은 아빠의 항변」에 이은 세 번째 시

집을 펴냈다. 이번 시집은 음악계의 원로로서, 교육자로서, 피아노 트리오 「조 트리오(조영방, 조영미, 조영창)」의 아버지로서 살아온 曹회장 인생의 진모습을 보여준다.

지난해 마지막 독창회를 열 정도로 끊이지 않는 음악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다. (詳音刊·값5,000원)

**한국사람이 미국사람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  
—金日勳 著



재미 내과 전문의 金日勳(57년 醫大卒)박사가 한국인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지를 미국과 일본의 예를 비교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책을 출간했다.

현대인의 건강에 가장 위협적인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생활 습관을 익혀야 하며, 또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음식은 무엇인지를 미국암학회의 가이드라인 등을 예로 들면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이슈투데이판·값9,500원)

**氣골프 건강법**  
—鄭冀人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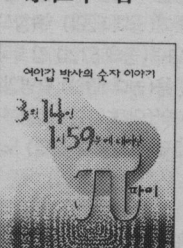


氣수련과 골프로 고엽제후유증을 고치고 환갑에 싱글골프까지 된 한양대 디지털 경영학부 鄭

冀人(64년 文理大卒)교수가 쓴 육필 경험담.

氣란 무엇인가?, 살살 치면 멀리 가는 진짜 이유, 내기 골퍼는 포커 페이스여야, 골프 색스 건강 그리고 기, 골프의 요체는 하체, 5개월 만에 싱글 된 이야기, 근육은 제2의 심장, 단전호흡의 위력과 기 골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선일보사판·값8,500원)

**3월 14일 1시 59분에 태어난 π 파이**  
—余仁甲 著



정보처리 전문가협회장을 맡고 있는 余仁甲(68년 工大卒·시스코프 대표)동문이 우리 생활과 관계 있는 숫자와 관련된 이야기, 숫자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담은 책.

무리수, 초월함수 등과 확률, 무한집합, 프랙탈, 카오스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수학을 쉽게 풀이했다. (문원출판·값7,800원)

**물질과 유신**  
—文永克 著



관세사로 활동하고 있는 文永克(69년 法大卒) 동문이 철학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담은 책을 펴냈다.

삶 그 자체가 철학적인 문제들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진정한 의미에서 「철학 하는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철학은 만인의 학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이코판·값8,500원)

**서양음악사 100장면(1)**  
—朴乙美 著



부산대 朴乙美(78년 音大卒)교수가 전 2권으로 완간할 예정인 「서양음악사」 중 이번엔 1권을 집필했다. 이 책은 서양음악의 기원으로

부터 시작해 바로크 시대까지의 음악사를 살펴보았다.

이 책을 통해 한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환경이 그 시대의 음악 흐름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는지, 또한 특정 양식과 장르가 왜 발달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가람기획·값18,000원)

**公演**

**李知恩 첼로 독주회**  
—3월 21일 예술의 전당

완벽한 테크닉과 세련된 음악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첼리스트 李知恩(93년 音大卒·서울바로크합주단 단원)동문이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李동문은 이번 연주회에서 姜炫朱(93년 音大卒)동문의 피아노반주로 베토벤, 차이코프스키, 쇼스타코비치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조이클래식 2263-3620)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명 단
05	시카고(IL, IN, WI, MO, MI, OH)	185
06	워싱턴 DC (MD, VA)	101
07	워싱턴주 (WA)	26
08	휴스턴 (HOUSTON)	31
09	달라스 (DOLLAS)	6
10	미네소타 (MN)	18
11	조지아 (GA)	22
12	아리조나(AZ)	7
13	유타 (UT)	5
14	하와이 (HI)	15
15	오레곤 (OR)	12
16	기타 (서부)	9
17	기타 (중부)	3
18	기타 (동부 & 캐나다)	15
19	플라델피아(PA)	49
20	뉴잉글랜드(MA)	37
21	하트랜드	24
22	펜실베이니아	5
<p>특별기부금 2 (고) 전시료 동문의 미망인 \$ 50, Mrs. 안광원 \$ 82</p> <p>계 1,214 62,082</p>		

# 미주관악후원회 이사회비 납부 현황

##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계
01	남가주	임낙균(200) 김성복(200) 심영춘(200) 오재인(200) 김종표(200) 한홍택(\$3,000) 이명상(200) 이병준(3,000) 전희택(3,000) 이정광(1,500) 김동선(200) 김성희(200) 서동영(200) 조만연(300) 정인환(200) 오길평(200)	17	13,000
02		김향자(220) 박성민(200) 김향자(200)	3	620
03	샌프란시스코			
04	뉴욕(NY, NJ, PA 일부 CT)	이운순(\$200) 윤정옥(\$3,000) 뉴욕약대동창회 \$1,000 김용재(200) 최수용(500) 오태희(250) 방준재(250) 이준행(500) 한광섭(200) 이운순(200) 이기영(200) 김상각(500) 이기형(200) 이명희(200) 이대영(200) 김영덕(200) 조대영(200) 최영태(200) 김용학(200) 이문휘(200) 이재원(200) 이재덕(200)	22	9,000
05	시카고 (IL, IN, WI, MO, MI, OH)	이용락(10,000) 김수상(1,000) 이기억(500) 지명식(300) - 4명 \$6,800 노재욱(\$300) 강창만(\$500) 조철원(250) 김정주(200) 김호범(200) 송재현(200) 문병훈(200) 성홍환(250) 최일주(500) 김기태(200) 임현재(1,000) 임근식(500) 소진문(350) 신석균(300) 최길용(300) 강영국(300) 김병윤(200) 최희수(200) 황치용(200) 조대현(200) 장승규(200) 임춘수(500) 장기남(500) 이정일(200) 최호승(200) 시카고 지역동창회(4,000) 송순영(1,000) 한재은(1,000) 구경희(800) 조중행(500) 박영규(300) 전현일(200) 김현욱(200)	37	27,750
06	워싱턴 DC (MD, VA)	주일(\$200) 곽홍(\$250) 변단식(200) 문성길(200) 이영목(200) 방은호(250) 신상균(200) 장효강(200) 전신애(미연방정부 노동성장관실 여성국장 500) 진금섭(200) 권철수(500) 박윤수(1,000)	12	3,900
07	워싱턴주	김성열(200) 김성렬(200)	2	400
08	휴스턴	조시호(3,000) 김정훈(200) 탁순덕(250)	3	3,450
09	달라스	김옥균(200)	1	200
10	미네소타	김필주(\$200) 권승립(200) 김태환(500) 이창재(200)	4	1,100
11	조지아	김예순(\$200) 임수암(\$200) 김용건(200)	3	600
12	아리조나	오덕겸(300) 박성숙(300)	2	600
13	유타	김성완(500)	1	500
14	하와이			
15	오레곤	나제관(200) 김상순(200) 정태훈(200) 조중훈(200)	4	800
16	기타1(서부)			
17	기타2(중부)			
18	기타3(동부 & 캐나다)	정구영(200)	1	200
19	필라델피아	김세경(250) 이정필(200) 김현영(200) 현재원(200) 이상봉(200) 정정수(200)	6	1,250
20	뉴잉글랜드	김제호(200) 김영호(\$1,000) 정태진(\$200) 김인수(200) 윤상래(200) 변화경(300)	6	2,100
21	하트랜드	김호원(\$300) 하트랜드 지역동창회(\$500) 류광현(200) 이상문(200) 지역동창회(500) 김용환(200)	6	1,900
22	중부펜실바니아			
일반 이사 합계			125	\$53,870
종신 이사 합계			5	\$13,500
총 계			130명	\$67,370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관악 후원금 납입현황

(2002년 1월 19일~5월 25일)

#### 종신이사

강영빈, 박경민, 박병기, 방은호, 서영석  
심상은, 오인석, 오홍조, 윤선홍, 이교락  
이기영, 이병준, 이세열, 이진구, 이청광  
정태, 전희택, 윤정옥, 한홍택, 조시호

#### 300달러이상

- 이용락(공대 48입) \$5,000
- 조시호(문리대 59입) \$3,000
- 한홍택(공대 60입) \$3,000
- 윤정옥(약대 50입) \$3,000
- 김수상(의대 47입) \$1000
- 김영호(치대 49졸) \$1,000
- 뉴욕약대동창회 \$1,000
- 이기억(문리대 47졸) \$500
- 김성완(문리대 59입) \$500
- 최수용(상대 55입) \$500
- 강창만(의대 58입) \$500
- 하트랜드(지역동창회) \$500
- 지명식(사대 65입) \$300
- 김호원(치대 52입) \$300
- 노재욱(의대 64졸) \$300

#### 300달러이하

- 곽홍(의대 45입) \$250
- 오태희(의대 58입) \$250
- 조철원(문리대 66입) \$250
- 김세경(미대 62입) \$250
- 김향자(약대 61입) \$220
- 임낙균(약대 64입) \$200
- 김성복(공대 59졸) \$200
- 심영춘(수의대 64입) \$200
- 오재인(치대 33입) \$200
- 김종표(법대 58입) \$200
- 김성열(치대 61입) \$200
- 나제관(공대 72입) \$200
- 김제호(상대 56입) \$200
- 김필주(농대 56입) \$200
- 정태진(의대 53입) \$200
- 주일(의대 46입) \$200
- 이운순(의대 52입) \$200
- 임수암(공대 62입) \$200
- 이명상(문리대 59입) \$200
- 김용재(의대 60입) \$200
- 김예순(문리대 68입) \$200
- 김성열(치대 61입) \$200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백만달러 기금  
납입 현황**

(2002년 1월 19일 ~ 5월 25일)

**Anchor-Donor (2만달러 이상:약정)**

방은호 (워싱턴 DC · 약 42입)

윤정옥 (뉴욕 · 약 50입)

김영덕 (뉴욕 · 공 53입)

이병준 (남가주 · 상 55입)

김병수 (뉴욕 · 상 55입)

최수용 (뉴욕 · 상 55입)

유창남 (뉴욕 · 의 58입)

오인석 (뉴욕 · 법 58입)

이전구 (뉴욕 · 농 60입)

임낙균 (남가주 · 약 64입)

**3,000달러이상**

최수용(상대 55입) \$5,000

**1,000달러이상**

워싱턴 DC 지역동창회(2,115)

<조수미 CD 141장 판매대금>

한홍택(공대 60입) \$1,000

**300달러이상**

**300달러이하**

김기훈(상대 52입) \$250

황석우(의대 53입) \$100

송창원(문리대 53입) \$100

**1백만불 기금 지부별 입금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계
01	남가주(CA)	한홍택(\$1,000)황석우(100) 정인환(200)권길상(100)한상철(333,400) 이병준(20,000) 심상은(1,000) 조용명(500) 임낙균(500) 이명선(300) 박취서(200) 이종열(200) 이강훈(150) 임택선(100) 김옥권(100) 권기상(100) 이정재(100) 신동국(100) 김일영(100) 유병원(100) 도영미(100) 황석우(100)	22	358,550
		이양숙(200) 박우선(200)	2	400
03	샌프란시스코	김양주(300)	1	300
04	뉴욕 (NY, NJ, PA 일부, CT)	김기훈(\$250)최수용(5,000)김석식(100)진성호(19,400) 추재욱(10,000) 오인석(20,000) 김병수(7,000) 최수용(5,000) 김영덕(5,000) 윤정옥(5,000) 이전구(4,000) 황관일(1,500) 김진승(1,000) 허리훈(1,000) 허선행(500) 이준행(500) 강영선(500) 김용재(500) 이기범(500) 이재진(500) 변천의(500) 김상각(300) 홍선경(300) 이경림(300) 방준재(300) 주의돈(300) 남상태(300) 조성준(300) 김기훈(250) 박승서(250) 이기형(200)김연석(200)동창근(200) 리준국(150) 황진환(100) 조대영(100) 허병렬(100) 심기련(100) 유진형(50)	39	91,600
05	시카고 (IL, IN, WI, MO, MI, OH)	소진문(100) 임춘수(200) 이윤라(1,000) 조영재(300) 정태, 최호승(500) 배영섭(200) 전영자(200) 임춘수(200) 강영국(200) 박종수(200) 구자원(200) 이기춘(200) 김윤태(100) 문병훈(100)	15	4,700
06	워싱턴 DC(MD, VA)	지역동창회(3,990:조수미 CD 266장 판매대금) 이규남(150) 방은호(5,000) 박윤수(1,000) 박용길(100) 오인환(200) 김창호(50) 장병규(50) 이선명(50)	9	10,590
07	워싱턴주(WA)			
08	휴스턴(HOUSTON, TX)	박승균(300) 유금용(100) 김충열(200) 박민자(100)	4	700
09	달라스(DALLAS, TX)	김인호(200)	1	200
10	미네소타(MN)	송창원(100) 변우진(100) 김태환(300) 왕규현(100) 변우진(100) 남세현(100)	6	800
11	조지아(GA)	장병건(100)	1	100
12	아리조나(AZ)	박양세(100) 박양세(200)	1	300
13	유타(UT)			
14	하와이(HI)			
15	오레곤(OR)	이태호(100) 익명(300)	2	400
16	기타(서부)			
17	기타(중부)	강영빈(500) 이회백(1,000)	2	1,500
18	기타(동부&캐나다)	한광수(333.33)	1	333.33
19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PA)	정정수(500) 서중민(1,000) 이정필(800) 정정수(500) 한혜원(300) 현재원(300) 정홍택(300) 강형진(200) 윤경숙(100) 정구영(100)	10	4,100
20	뉴잉글랜드(MA)	도은희(200) 이재신(3,000) 아급하(200) 정태진(100) 김제호(100)	5	3,600
21	하트랜드	오태요(500) 김명자(500) 이상문(250) 배한홍(100)	4	1,350
22	펜실바니아			
	특별 후원금	간호대동창회(13,560) 모교동창회/모교순방단(3,000) 임광수 서울대총동창회부회장(5,000) 한규남(유화1점: 현재 경매 중)	4	21,560
	<b>총 계</b>		<b>129</b>	<b>501,083.33</b>

**약정하신 동문들**

\*2001년 7월1일부터 2002년 4월 25일까지 납입하신 분. 21명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계
현금 약정	방은호(워싱턴 DC/\$20,000약정 \$5,000납입) 서동영(남가주/\$100,000:생명보험 중 일부) 윤정옥(뉴욕/\$20,000중 \$5,000납입) 임낙균(남가주/\$20,000약정) 김영덕(뉴욕/\$20,000중 \$5,000납입) 김병수(뉴욕/\$20,000중 \$7,000납입) 최수용(뉴욕/\$20,000중 \$10,000납입) 이전구(뉴욕/\$20,000중 \$4,000납입) 유창남(20,000약정) 강영빈(기타 중부/\$500중 \$500 납입) 강경식(뉴잉글랜드/생명보험 중 일부)	11명 (7명 납입)	\$260,500 (\$36,500 납입)
기타	방은호(유증) 김태환(유증) 정태	3명	
<b>총 합 계</b>		<b>136명</b>	<b>725,083.33</b>

### 조수미 CD 주문서

조수미 CD 'Love from Washington' 주문서 (8-25-01 Washington DC 공연 실황 녹음)

구입자 성명: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구입 수량 및 금액: CD \_\_\_\_\_ 개 총액 \$ \_\_\_\_\_ (우송료 포함)  
 수표는 Payable to SNUAAUSA \*가격: 1장 당 \$15.00 (우송료 별도)  
 우송료는 1장 당 \$3.00, 복수 구입시 추가 1장 당 \$1.00 추가

\*주문서를 기입하여 CD대금과 우송료를 합계하여 재미동창회 사무국으로 보내 주십시오.

**SNUAAUSA**  
 790 BUSSE ROA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전화: 847-981-1464, Fax: 847-981-1465

\* 판매대금 전액은 재미 동창회를 위한 관악후원금과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에 적립됩니다.

**질취신**

## 재미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한 동문독자 여론조사 설문서

이번 8월부터 이곳 시카고에서 발간할, 재미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문으로 독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잠깐 시간을 내셔서 설문에 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회송하여 주십시오

필) 동창회보가 각 분야에 종사하시는 동창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쓰는 기획기사를 연재한다면, 어떤 분야의 주제가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야를 쓰셔도 좋고 가능한 자세하게 기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I) 지금까지 동창회보를 우편으로 받으신 후 (택일)

- 1) 그냥 받아두고 잘 읽지 않는다( )
- 2) 눈으로 일별하고 밀쳐둔다( )
- 3) 흥미있는 기사가 있으면 즉시 읽어본다( )
- 4) 시간상 당장 읽지 않더라도 보관했다가 꼭 다시 찾아 읽는다( )
- 5) 시간 나는대로 게재내용을 거의 다 읽는다.( )

1)

2)

II) 동창회보를 읽으시는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분 ( )시간 정도

VII) 현재 기획중인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분석기사를 동창회보에 게재하는 데에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표를 해 주십시오

- 1) 남북한 관계와 통일에 관한 국제 정세( )
- 2) 한국교육문제에 장래와 서울대학교의 역할( )
- 3) 기타 자연과학, 기술분야에 대한 읽고 싶으신 주제에 대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III) 어떤 내용의 기사를 유심히 읽어보십니까 (여러 항목에 표시셔도 됩니다)

- 1) 동창회 사업계획 보도기사나 공지사항( )
- 2) 본국 동창들의 동정, 소식( )
- 3) 미국 내 동창들의 개인/지부 활동소식(소속지역)( )
- 4) 타지역 동창회 소식( )
- 5) 동문들이 투고한 기사 및 column( )

VIII) 동창회보 편집위원회에서 집필의뢰를 하면 응하시겠습니까?

- 1) 예( )
- 2) 아니오( ) →어째서 그러십니까? ( )

IV) 일반 신문잡지에서 어떤 분야들에 관한 기사를 관심있게 읽으십니까?

IX) 미주동창회에서 동창회를 빛내는 전문적 업적을 성취하신 동문을 초청하여 지역을 순회하는 강연회를 개최하는(Distinguished Alumni Lecturership)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V) 지금까지 받으신 동창회보의 내용 구성에 대하여 (택일)

- 1) 만족한다( )
- 2) 좀 부실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
- 3)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 4) 내용이 실망적이어서 읽을 흥미가 없었다( )

- 1) 예( )
- 2) 아니오( )

X)내용있고 수준있는 동창회보를 만들기 위하여 동문 개개인들이 크고 작은 소식이나 의견을 수시로 보내주시면 앞찬 동창회보 발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기타 충고의 말씀이 있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작성 동문>

성명 :

주소 :

전화 :

e-mail :

Fax :

기타 의견란

# 동문이 운영하는 우편주문 가능한 Gift Shop

지명식 동문(사대 65입) 부부는 시카고 근교 Northbrook의 White Plains Shopping Center내에서 Modern Gifts & Dundee Shiseido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취급 품목으로는 한국인 피부에 적합한 Shiseido, 참존, 아모레 화장품과 지성피부, 여드름 전용화장품 Dr. Eslee를 취급하고 있다.

그 밖에 각종 선물용품, 가정용품, 부엌용품, 속옷류, 전기제품, 약세사리, 영양제, 비타민 등을 구비하고 있고, 전자파를 방지하여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Sheild Life 제품도 갖추고 있다. 귀국 선물로 인기있는 로얄제리, 커피 및 꿀가루등도 간단히 전화 한 통화로 구입할 수 있다. 전화주문이나 우편주문은 UPS로 즉시 발송하고 크레딧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10:00AM-8:00PM, 일요일 1:30PM-5:00PM 이다. 많은 동문들의 이용을 기다리겠습니다.

## MODERN GIFTS & DUNDEE SHISEIDO

지명식 동문 (사대 65년 입)

Tel: 847-559-1005

Northbrook, IL

\*UPS, Mail Order 가능

## 재미 총동창회 지부회장 / 동창회보 지국장 명단

지 부	회 장	총무 / 동창회보 지국장
뉴욕	한창섭 B:212-594-0493 H:201-848-8665	김종윤 B:914-714-0587 F:914-686-0186
남가주	임낙균 B:213-999-1600 H:310-530-4353	백옥자 B:213-365-9449 C:818-620-8316
샌프란시스코	정조웅 B:408-496-6838 H:408-972-4026	임승패 B:415-777-1133 H:510-537-5369
시카고	한재은 B:841-741-7990 H:847-428-4929	이승자 B:773-553-1930 H:847-564-5948
뉴잉글랜드	이재신 B:508-577-9424 H:508-923-0031	변종원 H:508-366-2743 B:508-389-1760<ext.3038>
조지아	김재철 B:770-944-2775 H:770-579-5615	문종현 B:770-409-8844 H:770-449-0301
미네소타	김태환 B:612-863-4060	남세현 B:651-733-7287 H:651-768-8939
워싱턴 DC	진금섭 B:703-205-8064 H:703-631-0631	김 국 B:703-304-2129 H:703-830-7979
워싱턴주	허운행 B:360-683-4195 H:360-683-4197	이혜숙 B:253-927-8668 F:253-627-2542
휴스턴	김영창 B:713-431-6071 H:713-859-8182	변중무 B:713-743-9301 H:713-783-3178
달라스	이병규 B:817-251-8789 H:972-304-0748	강성호 B:972-570-0234 H:214-496-9393
아리조나	윤성수 H:480-283-9806 yunss@cox.net	최윤근 B:480-967-9461 H:602-502-9988
하와이	정재훈 B:808-951-7242 H:808-926-6089	정광수 B:808-956-7653 H:808-395-1678
유타	한성양 B:801-272-7444 H:801-485-2065	황선종 B:801-582-1695 H:801-582-1695
오래곤	라제관 B:503-696-3422 H:503-645-5550	정성국 B:503-226-6467 H:503-524-7741
필라델피아	강영배 B:610-623-8560 H:610-651-7834	주기목 B:215-745-9030 F:215-745-3055
하트랜드	이상문 B:402-472-3915 H:402-483-0221	장명우 F:402-472-5290
중부펜실베이니아	송재훈 B:814-865-6998 H:814-466-0542	이 욱 B:814-862-0494
캐나다/온타리오	유희자 B:416-960-0074	노정희 B:905-886-4152
캐나다/밴쿠버	황태규 B:604-433-8539	박병우 B:604-570-0803 H:604-420-7034
캐나다/에드먼튼	정기진 B:780-437-7669	

## 동문 사업제 안내

<p><b>강 권</b></p> <p>Pusan Pipe America 이병준(상 55입) (562)692-0600 Sant Fe Springs, CA</p> <p><b>골프용품</b></p> <p>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총 60입) (212)564-2255 New York, NY</p> <p><b>주인회계사</b></p> <p>Young Sik Oh CPA 오영식(법 72입) (201)569-1177 Englewood Cliff, NJ</p> <p>이범선(상 48입) 이경림(상 64입) (212)768-9144 New York, NY</p> <p>Young Tail Choi EA 최영태(문 67입) (212)695-0206 New York, NY</p> <p>Deloitte &amp; Touche LLP 김낙구(상 67입) (213)688-5585 Los Angeles, CA</p> <p>Wesley Y Chung 정일화(상 55입) (212)736-6590 New York, NY</p> <p>이규섭(상 68입) CPA, CFA (703)642-2900 Annandale, VA</p> <p><b>주식상담</b></p> <p>IBECONS INT L 김재철(공대 58입) (212)460-2815 New York, NY</p> <p><b>교 회</b></p> <p>진리교회 김태환목사(공대 76입) (718)225-1000 New Hyde Park, NY (L.I.E. Exit 33 South)</p>	<p><b>국제금융</b></p> <p>Sit/Kim International Investment Associate 김병수(상 55입) (212)750-7215 New York, NY</p> <p>PTC International 이태영(법대 60입) (410)962-8409 Baltimore, MD</p> <p><b>법 회</b></p> <p>Alco Lock &amp; Safe 정인식(상 58입) (212)867-3377 New York, NY</p> <p><b>금융 / 투자</b></p> <p><b>무역</b></p> <p>Nina America Inc. 강석권(법 61입) (212)683-6462 New York, NY</p> <p>EAC Trading Inc. 윤경옥(약 50입) (516)466-5678 Great Neck, NY</p> <p>Oregon Hide Co. 조형원(수 55입) (503)620-1001 Lake Oswego, OR</p> <p>G.A. Marketing Company 지인수(상 59입) (310)216-7929 Los Angeles, CA</p> <p><b>리포서</b></p> <p>최형무 변호사 최형무(법대 69입) (718)463-3500 Flushing, NY</p> <p>한국서적 전문 서술서점 권려진(문 60줄) 창업 (773)463-7756</p>	<p>김용화 변호사 김용화(법대 69입) (212)619-1770 New York, NY</p> <p><b>병 원 / 내과</b></p> <p>Joon J Bang, MD 방준재(의 63입) (718)768-1264 Brooklyn, NY</p> <p><b>법 회 / 상담(주요분야)</b></p> <p>Charles H. Sung, DVM DVM 성홍환(수의 75입) (330)534-8383 Hubbard, OH</p> <p><b>병 원 / 신장내과</b></p> <p>Rim and Sul, MDPC 임준수(의 57입) (313)882-2922 Grosse Pointe,</p> <p><b>법 회 / 상하임대</b></p> <p>Kenneth Song 송관호(의 58입) (212)423-4817 New York, NY</p> <p><b>병 원 / 피부과</b></p> <p>Chang Ho Suk 석창호(의 66입) (718)461-6212 Flushing, NY</p> <p><b>병 원 / 치과</b></p> <p>Sung Bo Hong, DMD 홍성보(치 63입) (201)871-0007 Tenafly, NJ</p> <p><b>보 험</b></p> <p>Gold Plus 서재숙(을 65입) (212)354-8988 New York, NY</p> <p><b>보 험</b></p> <p>KOI 종합보험 김성희(상 67입) (213)387-5252 Los Angeles, CA</p>	<p>한미종합보험 박일순(상 59입) (718)458-3551 Jackson Hts, NY</p> <p>한영종합보험 한영우(공 59입) (718)463-9100 Flushing, NY</p> <p><b>부동산</b></p> <p>Cosmo Realty 이재덕(법 60입) (201)944-4949 Palisades Park, NJ</p> <p>C-21 Infinity 이재원(법 60입) (201)944-5353 Palisades Park, NJ</p> <p>REMAX(회망부동산) 최 호(문 61입) (201)461-3525 Palisades Park, NJ</p> <p>Gateway Title Co. 박인수(총 64입) (213)388-3333 Los Angeles, CA</p> <p>ERA Premier Properties 변만식(사대 49입) (703)750-0000 Annandale, VA</p> <p>로얄 부동산 엄무광(문 65줄) (800)474-0200 SKOKIE, IL</p> <p>Pacific Hotel Motel Specialists, Inc. (HMBA American Hotel Broker) 김동호(총대 58입) (206)972-3675 Everett, WA</p> <p><b>설 계</b></p> <p>Booming World Design &amp; Engineering 김상익(공 49줄) (310)539-7760 Court Lomita, CA</p> <p>Queens Plumbing Supply 김승호(공대 71입) (718)392-0111 L.I.C. NY</p>	<p><b>법 회</b></p> <p>Care Tex Industries, Inc. 강봉창(약 50입) (562)602-6567 South Gate, CA</p> <p><b>운송물류</b></p> <p>S. Y. Shipping 김종표(법대 58입) (592)467-5455 Artesia, CA</p> <p><b>투 자</b></p> <p>Equitable Financia Service 원영배(미 74입) (213)368-5705 Los Angeles, CA</p> <p>Hanin Federal Credit Union 이영일(문리 57줄) (213)368-9000 Los Angeles, CA</p> <p><b>의 료기관</b></p> <p>MASH 심상은(상 54입) (213)487-5695 Los Angeles, CA</p> <p><b>의 료</b></p> <p>Jeffrey Allen Corp. 이기영(총 70입) (201)863-5160 Secacus, NJ</p> <p>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상 61입) (201)440-8500 Moonachie, NJ</p> <p><b>인턴쉽 사업</b></p> <p>KS E biz 정세원(총 69입) (201)722-4796 River Vale, NJ</p> <p><b>인턴쉽</b></p> <p>MODERN GIFTS &amp; DUNDEE SHISEIDO 지명식(사대 65년 입) Tel: 847-559-1005 Northbrook, IL UPS, Mail Order 가능</p>	<p><b>인턴쉽 사업</b></p> <p>Aladdin USA 이형림(문 79입) (323)692-9888 LA, CA</p> <p><b>지부지 부들</b></p> <p>Knox-Seeman Whse, Inc. 서동영(사대 60입) (310)327-1006 Gardena, CA</p> <p><b>진 지</b></p> <p>Amkor Anam 정홍택(상 61입) (214)580-1879 Philadelphia, PA</p> <p><b>부동산</b></p> <p>Smithtown Wines &amp; Spirits 이지원(문리 73입) (613)265-1121 Smithtown, NY</p> <p><b>의 료</b></p> <p>Kumon Educational Institute 김형덕(상 57입) (718)358-0538 Flushing, NY</p> <p><b>인턴쉽</b></p> <p>Joong-Ang Medical Center 이수호(보건대학원 71줄) (718)353-6207 Flushing, NY</p> <p>브롱스 약국/시호 함의원 박경룡(약대 63입) (718)733-1399 Bronx, NY</p> <p><b>외국문</b></p> <p>Revicci(레비치) 신정려(약대 52입·화장품, 약품개봉) (973)994-1421 Short Hill, NJ</p> <p><b>의 료</b></p> <p>Flowers On Lexington 박상원(을 65입) (800)2525-way New York, NY</p> <p>Seward Florist 김수환(간호 72줄) (626)287-6161 San Gabriel, CA</p>
---	--	--	---	---	--

# 새 회계년도입니다. 응답 꼭 보내주세요.

※재미동창회는 전 동문의 네트워크를 위해 Data Base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동문은 이 설문지를 기입한 후 오려서 동창회 사무실로 우송바랍니다.

## 재미 동문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설문 및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공개 여부 설문 2001. 7. 1 ~ 2002. 6. 30 회보 구독료 납입서

재미 서울대 전 동문들의 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모교 지원사업 및 동문 지원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문에 간단히 답하시어 동봉의 반송봉투를 이용 설문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창회보를 받지 않는 주변 동문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본 설문지 여백에 적어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성명 : 한글 \_\_\_\_\_ 영문 \_\_\_\_\_
2. 모교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3. 졸업전공 : \_\_\_\_\_ 대학 \_\_\_\_\_ 학과 \_\_\_\_\_
4. E-mail address : \_\_\_\_\_
5. New home address : \_\_\_\_\_
6. New home Tel. No. \_\_\_\_\_
7. 직장이름 : \_\_\_\_\_
8. 직장주소 : Tel. \_\_\_\_\_ Fax. \_\_\_\_\_
9.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에 공개 무방 ( ), 가급적 동문들에게만 공개 원함 ( ).
10. 사업 종류 (다음 해당되는 항목 또는 복수항목에 서클하여 주십시오.)

가정주부, 가정복지 자문, 간호원, 감정사, 경영간부, 경찰, 수사관, 사설탐정, 공무원, 공인회계사, 군인, 금융자문, 은행원, 기업인, 대학교수, 학교 선생님, 학원강사, 디자이너, 미술가, 서예가, 음악가, 연예인, 작가, 기타 예술인, 검사, 판사, 변호사, 법률보조, 법의학, 보험, 부동산 중개사, 실험실요원, 언론인, 엔지니어, 연구원, 요리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의료보조, 은퇴, 장의사, 종교인, 투자자문, 재정자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기타 컴퓨터 관련업, 통관사, 체육인, 학생, 건설 건축 관련업, 국제무역, 농업, 수산업, 제조, 통신업, 도매업, 소매업, 건설업, 광고업, 여행업, 인쇄업, 운송업, 기타 서비스 소매, 기타 직업.

11. 위의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취급하시는 분야 또는 전문분야를 간단하게 아래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의사의 경우) "정신과" : (변호사의 경우) "가정법" : (교수의 경우) "물리학" : (언론인의 경우) "일간신문기자" : (도매업) "의류" 등등

12. 동창회보 일년 구독료 \$ 50은 동창회보 발간 사업 뿐 아니라 모교지원을 위한 업무 및 재미 동문 지원사업을 위하여 긴요한 자원입니다. 재미 총동창회 집행부는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 유지하겠습니다.

**본인은 2001. 7. 1 ~ 2002. 6. 30 구독료 \$50을 함께 우송합니다.**

Yes. ( )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No. ( )

수표 보내실 곳 : SNUAAUSA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13. 소속 지역동창회 이름 : ( ) 지역동창회

### 1

2001. 7. 1. ~ 2002. 6. 30 회계년도 동창회 회보 구독료 \$50.00을 납부합니다. ( )

### 2

## 미주 관악후원회 3차년도 후원금 납입서

본인은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활동재원 확보와 미주동창회보의 지속적인 월간발행을 후원하기 위하여 결성된 「미주관악후원회」 회원임을 명예스럽게 생각하며, 제 3차년도 관악후원회비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 ●매년 불입 후원이사

- 년 \$ 200이상 (금액명기 \$ )
- 년 \$ 500이상 (금액명기 \$ )
- 년 \$ 1,000이상 (금액명기 \$ )

#### ●일시불 종신후원이사

\$ 3,000이상 (금액명기 \$ )

▷이 후원금은 세금 보고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후원금에 대한 세금보고용 영수증은 별도로 송부하겠습니다.  
: \$ 250 이상만)

### 3

## 1백만 달러 기금 납입서

본인은 영원한 서울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교와 후진을 돕기 위한 1백만달러 기금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음과 같이 기금을 낼 것을 동의합니다.

#### ●총액(금액명기 \$ )

- ①일시불 ( )
- ②3년 분할 납입 ( )  
(\$ )씩 ( )회 분납

▷이 기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미 총동창회는 재산을 이 1백만달러 기금에 남겨주실 유언 (A Will) Program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

Check Payable to :

**SNUAAUSA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Check 보내실 곳 :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ausa@snuaa.org